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3-03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담당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 영화정책연구팀
총괄	손진아 영화정책연구팀 팀장
진행	김현정 영화정책연구팀 주임
개관	김경만 영화정책연구팀 과장
세계 및 한국 시장	손진아 영화정책연구팀 팀장
	김현정 영화정책연구팀 주임
극장 시장	김성희 영화진흥위원회 객원연구원
극장 외 시장	손진아 영화정책연구팀 팀장
	김성희 영화진흥위원회 객원연구원
	태은정 온라인정보화연구팀 차장
해외수출	이상윤 국제교류지원팀 주임
독립·예술영화	김현정 영화정책연구팀 주임
극장 현황	정혜란 영화정책연구팀 주임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이샛별 영화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발행인 박기용

발행일 2023년 4월 10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전화 (051)720-4700 / 홈페이지 www.kofic.kr

경성문화사 / 제작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1 전화 (02)786-2999

ISSN 2982-5792 ⓒ영화진흥위원회, 2023

목차

요약문	10
제1장 개관	17
제2장 부문별 결산	25
가. 세계 및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27
1)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에서의 한국	27
2) 국가별 극장산업 현황	31
3) 한국 영화산업 시장규모	35
나. 극장 시장	36
1) 입장권 매출액과 관객 수	36
2) 박스오피스	40
3) 월별 흥행추이	42
4) 장르별 흥행추이	48
5) 제작·수입·개봉편수 및 등급별 현황	50
6) 국적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53
7)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55
8) 특수상영 흥행 추이	57
다. 극장 외 시장	61
1) TV VOD	63
2) 인터넷 VOD	67
3) DVD·블루레이 등	69
4) TV 방영권	69
라. 해외 수출	70
1) 한국영화 해외 수출	70
2) 완성작 수출 부문	71
마. 독립·예술영화	76
1) 독립·예술영화 극장흥행	76
2) 한국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현황	81
3) 독립·예술영화 인정현황	82

□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바. 극장 현황	84
1) 극장	84
2) 멀티플렉스	91
3) 특별관	93
4) 작은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95
사.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97
1)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제작비	98
2) 한국 상업영화 제작비	101
3) 한국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103
4)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105
부록	111
가. 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개봉일람	114
나. 2022년 국내 영화 시상식 주요부문 수상실적	138
다. 2022년 해외 주요 영화제·시상식 초청 및 수상실적	139
라.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전국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 수·스크린	141

표 목차

〈표 1〉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14
〈표 2〉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15
〈표 3〉 2018~2022년 주요 국가별 전년 대비 극장 시장 성장률	31
〈표 4〉 2019년 VS 2022년 각 국가별 극장 시장 성장률	32
〈표 5〉 2018~2022년 각 국가별 전년 대비 영화 관람요금 인상률	33
〈표 6〉 2018~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35
〈표 7〉 2018~2022년 매출액, 관객 수, 1인당 관람횟수	37
〈표 8〉 2022년 광역단체별 매출액, 관객 수, 1인당 관람횟수	38
〈표 9〉 2018~2022년 평균 관람요금	39
〈표 10〉 2022년 전체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40
〈표 11〉 2022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41
〈표 12〉 2022년 외국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41
〈표 13〉 202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 수	42
〈표 14〉 2022년 장르별 관객 수 순위	49
〈표 15〉 2022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개봉편수	50
〈표 16〉 2022년 등급별 실질개봉작 및 형식개봉작 편수 및 비중	51
〈표 17〉 2022년 등급별 전체개봉작 및 실질개봉작 관객 수 및 비중	51
〈표 18〉 2022년 전체개봉작 및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개봉편수, 매출액, 관객 수	52
〈표 19〉 2022년 국적별 점유율	54
〈표 20〉 2022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56
〈표 21〉 2022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56
〈표 22〉 2022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57
〈표 23〉 2018~2022년 특수상영 매출액·관객 수 및 비중 추이	58
〈표 24〉 2021~2022년 특수상영 관객 점유율	60
〈표 25〉 2018~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	62
〈표 26〉 2018~2022년 TV VOD 시장 매출 규모	63

〈표 27〉 2022년 TV VOD 전체영화 매출 상위 20위	65
〈표 28〉 2022년 TV VOD 한국영화 매출 상위 10위	66
〈표 29〉 2022년 TV VOD 외국영화 매출 상위 10위	66
〈표 30〉 2018~2022년 인터넷 VOD 시장 매출 규모	67
〈표 31〉 2022년 네이버 시리즈온 영화 이용 순위	68
〈표 32〉 2018~2022년 DVD·블루레이 시장 매출 규모	69
〈표 33〉 2018~2022년 한국영화 해외 수출 실적 변화 추이	70
〈표 34〉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변화 추이	71
〈표 35〉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73
〈표 36〉 2020~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국가별 수출 실적	74
〈표 37〉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판권유형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75
〈표 38〉 2018~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76
〈표 39〉 2018~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77
〈표 40〉 2022년 전체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79
〈표 41〉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80
〈표 42〉 2022년 외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80
〈표 43〉 2018~2022년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	81
〈표 44〉 2018~2022년 한국 장편 독립영화 제작편수 대비 개봉편수	81
〈표 45〉 2022년 독립·예술영화 승인 및 심사인정 현황	82
〈표 46〉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및 심사운영 세칙 심사기준	83
〈표 47〉 2013~2022년 연도별 전국 극장 수, 스크린, 좌석 수	84
〈표 48〉 2022년 지역별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86
〈표 49〉 2022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88
〈표 50〉 2022년 신규 개관 극장 목록	89
〈표 51〉 2022년 휴·폐관 극장 목록	90
〈표 52〉 2022년 지역별 멀티플렉스 비중	91
〈표 53〉 2022년 4대 멀티플렉스 체인 현황	92
〈표 54〉 2022년 특별관 유형 분류 및 현황	93

〈표 55〉 2022년 지역별 특별관 분포	94
〈표 56〉 2022년 전국 작은영화관 현황	95
〈표 57〉 2022년 지역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분포	96
〈표 58〉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파트 주요 용어 기준 및 정의	97
〈표 59〉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집계수익률 조사 및 분석 개요	98
〈표 60〉 2013~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평균 제작비	98
〈표 61〉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99
〈표 62〉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순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100
〈표 63〉 2018~2022년 한국영화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101
〈표 64〉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및 평균 순제작비	102
〈표 65〉 2018~2022년 한국영화 독립·예술영화 평균 제작비	103
〈표 66〉 2021~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및 평균 순제작비	104
〈표 67〉 2018~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106
〈표 68〉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손익분기점 구간별 편수·비율	107
〈표 69〉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총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108
〈표 70〉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108
〈표 71〉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	109

그림 목차

〈그림 1〉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시장, 해외) 매출 추이	14
〈그림 2〉 2019년 대비 2022년 세계 주요 국가 극장 매출 비교	22
〈그림 3〉 2018~2022년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	28
〈그림 4〉 2018~2022년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 성장률	28
〈그림 5〉 2018~2022년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 비중	29
〈그림 6〉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	29
〈그림 7〉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성장률	30
〈그림 8〉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비중	30
〈그림 9〉 2018~2022년 각 국가별 극장매출 규모 상위 10위	31
〈그림 10〉 2019년 VS 2022년 각 국가별 극장 시장 성장률	32
〈그림 11〉 2018~2022년 각 국가별 영화 관람요금	33
〈그림 12〉 2018~2022년 각 국가별 1인당 관람횟수	34
〈그림 13〉 2018~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35
〈그림 14〉 2019년 VS 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비중	36
〈그림 15〉 2013~2022년 관객 수 추이	37
〈그림 16〉 202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 수 추이	42
〈그림 17〉 2022년 전체영화 장르별 관객 수 비중	49
〈그림 18〉 2022년 한국영화·외국영화 장르별 관객 수 비중	50
〈그림 19〉 2018~2022년 전체·한국·외국영화 전체 매출액 대비 특수상영 매출액 비중 변화 추이	59
〈그림 20〉 2020~2022년 특수상영 매출액 비중 변화 추이	60
〈그림 21〉 2018~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	62
〈그림 22〉 2018~2022년 TV VOD 월별 이용건수	63
〈그림 23〉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변화 추이	72
〈그림 24〉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73
〈그림 25〉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판권유형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75
〈그림 26〉 2018~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78

〈그림 27〉 2018~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매출액	78
〈그림 28〉 2013~2022년 연도별 전국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85
〈그림 29〉 2022년 지역별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86
〈그림 30〉 2013~2022년 연도별 전국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87
〈그림 31〉 2019~2022년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운영형태 비중	92
〈그림 32〉 2013~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99
〈그림 33〉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분포 비율	100
〈그림 34〉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순제작비 구간별 분포 비율	101
〈그림 35〉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102
〈그림 36〉 2021~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104
〈그림 37〉 2018~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106
〈그림 38〉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추이	109

주요 업체명 약어

씨제이이앤엠(주): CJ ENM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

(주)쇼박스: 쇼박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UPI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메가박스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NEW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워너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소니

(주)덱스터스튜디오: 덱스터 (주)홈초이스: 홈초이스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요약

🔯 세계 및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 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수출) 매출 합은 1조 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체 매출 규모가 2019년 대비 58.0% 감소하였던 2020년 1조 537억 원, 지난 10년 간 가장 적은 총 매출 규모였던 2021년 1조 239억 원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2조 5093억 원의 68% 가량 회복한 수치로, 아직 한국 영화산업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이른 수준이다.
- 극장매출은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극장 외 시장 매출(TV VOD, 인터넷 VOD, DVD·블루레이 등 물리적 저장매체, TV 방영권)은 4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였다. 해외 수출은 923억 원(7,147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66.0% 증가하였다.
- 한편, 세계 극장시장에서 한국은 매출 규모 7위를 차지했다. 2022년 전 세계 극장 매출액은 251억 6,9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60.3% 회복세를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은 54.7%(8억 9,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회복이 더딘 편이다.

🔯 극장 시장

- 2022년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하였고, 전체 관객 수는 1억 12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86.4% 늘었다.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고, 5월〈범죄도시2〉를 시작으로〈탑건: 매버릭〉,〈한산: 용의 출현〉,〈공조2: 인터내셔날〉,〈아바타: 물의 길〉등 성수기에 화제작들이 개봉한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액은 1조 원을 상회했고, 연 관객 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22년 전체 매출액은 2019년의 5분의 3(60.6%), 2022년 전체 관객 수는 2019년의 2분의 1(49.8%)에 불과하였다.
- 2022년 한국영화 매출액은 6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9%(4576억 원) 증가했고, 한국영화 관객 수는 62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4.7%(4457만 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던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전년 대비 25.6%p 늘어난 55.7%였다. 2022년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전년 대비 1.02회 증가한 2.19회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 2022년 전체 배급사 관객 점유율에서는 디즈니가 17.34%의 관객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17.32%를 기록한 롯데였다. 2022년 전체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1위는 〈범죄도시2〉로 매출액 1313억 원, 관객 수 1269만 명을 기록했고, 2위는 〈아버타: 물의 길〉로 매출액 903억 원, 관객 수 731만 명을 모았다. 3위는 〈탑건: 매버릭〉으로 매출액 879억 원, 관객 수 818만 명이었고, 4위는 〈한산: 용의 출현〉으로 매출액 737억 원, 관객수 726만 명이었다. 5위는 매출액 709억 원, 관객수 698만 명을 기록한 〈공조2: 인터내셔날〉이었다.

• 장르별 순위에서 액션 영화가 관객 점유율 53.2%, 매출 점유율 54.8%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2022년 전체 관객 중 절반 이상이 액션 영화 관객으로 액션 영화로의 장르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 〈아바타: 물의 길〉, 〈탑건: 매버릭〉,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이 흥행하며 특수상영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특수상영(4D·IMAX·ScreenX·Dolby Cinema) 전체 매출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2% 증가했고, 2022년 특수상영 전체 관객 수는 8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2.2% 늘었다. 2022년 특수상영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 모두 특수상영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최고치 기록이었다.

💶 극장 외 시장

- 2022년 극장 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4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합계의 26.6%로 지난해 37.5%에 비해 10.9%p 가량 감소한 수준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극장이 점점 회복세로 접어든 영향에 따른 결과일 뿐 2022년 극장 외 시장은 모든 영역에 있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 극장 외 시장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TV VOD 시장이 전체 극장 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인터넷 VOD가 전년 대비 59.2% 대폭 성장하며 37.4%로 TV VOD와의 차이를 좁혔다. 인터넷 VOD의 상당부분(94.6%)을 차지하는 OTT의 성장이 눈에 띄는 지점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극장흥행 대작들이 특정 OTT 플랫폼과 독점으로 계약됨에 따라 해당 작품들이 IPTV 등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것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독점 공개는 홀드백을 깬 사례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DVD 및 블루레이 시장 매출액은 전년보다 다소 높은 77억 원, TV 채널 방영권의 영화 매출은 233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해외 수출

• 해외 수출액은 2022년 회복을 넘어 성장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던 필름마켓들이 대면마켓으로 복귀하면서 수출 판로가 다시 확보되었고, 글로벌 OTT의 영향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하여 높아진 관심 또한 해외 수출에 있어 호재로 작용하였다. 2022년 한국영화 해외 수출 총액은 71,465,380달러(923억원)로, 2021년 집계금액 대비 47.0% 증가하였다. 그중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금액은 총 71,440,380달러로 전년 대비 66.0%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영화 수출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2005년 7,599만 달러 이후 최고 기록이다. 한편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비교를 위한 유의미한 수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감소폭이 컸다. 2022년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액에서는 아시아가 48.2%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교해서는 그 비중이 낮아졌다. 2022년에도 〈승부〉등의 작품이 극장 개봉 대신 OTT행을 택하며 '전세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계약금액은 크게 늘어났다. 완성작 판권유형별 수출 비중에서는 전 판권(시비 Rights)가 85.3%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예술영화

- 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는 총 357편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하였다. 전체영화 개봉 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5.8%p 감소한 21.7%였다.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3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으며,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전체영화 관객 수에서 독립·예술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반면 한국 독립·예술 영화 관객 수는 125만 명으로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 하였다.
- 전체 독립·예술영화 매출액은 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감소하였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역시 3.2%p 감소한 3.0%였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매출액은 10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이전인 2018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늘었으나, 전체 관객 수와 매출액 상승폭이 각각 86.4%, 98.5%로 크기 때문에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낮아졌다.
-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흥행 작품을 살펴보면 10위 권 내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 각각 3편이었고, 그 외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 장르도 호평을 받았다. 이 중 〈그대가 조국〉, 〈대무가〉, 〈나의 촛불〉세 편이 전체 독립·예술영화 흥행 순위 10위 권 안에 들었다. 외국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영화들이 흥행 10위 권 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전체 독립·예술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일본 로맨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SNS 홍보와 입소문을 통해 깜짝 흥행에 성공하였다.

🔯 극장 현황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국에서 영업 중인 극장 수는 561개로 전년 대비 19개(3.5%) 증가하였다. 스크린 수는 전년 대비 68개(2.1%) 증가한 3,322개였고, 좌석 수는 3,700개(0.8%) 감소한 466,680개였다. 2022년에는 최근 5년간 처음으로 극장 수가 증가하였으나, 좌석 수가 감소하였다. 2022년의 이러한 추세는 관람 형태 다변화 속에서 극장들이 생존 전략의 하나로 관람 경험을 차별화하는 고급화 전략에 주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2022년 신규 개관 극장은 총 27개로 이중 멀티플렉스 체인 소속 극장이 17개(직영 7개, 위탁 10개), 비멀티플렉스 극장이 10개(작은영화관 7개)였다.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은 신도시나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섰고, 신규 개관한 비멀티플렉스 극장은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브랜딩한 극장이거나 작은영화관이었다. 2022년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휴·폐관 극장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 전국 극장의 80.6%인 452개 극장이 멀티플렉스 극장이었으며, 그 중 4대 체인(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소속이 아닌 극장은 대한극장 1곳이었다. 전체 관객 수 대비 멀티플렉스의 관객 점유율은 96.1%, 매출액 점유율은 97.1%이었다. 2022년 전국 특별관은 총 547개관으로 지난해 대비 102개(22.9%) 증가했으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좌석 관련 특별관이었다. 작은영화관은 2022년 61개(신규 7개)가 영업 중이었으며,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전국 68개관이었다.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 2022년 제작비 전수조사 분석대상인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197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5288억 원으로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8억 원이었다. 이중 평균 순제작비가 21.4억 원으로 총제작비의 79.9%, 평균 P&A비용이 5.4억 원으로 총제작비의 20.1%를 차지하였다.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제작·개봉한 상업영화 36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4483억 원으로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124.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99.9억 원, 편당 평균 P&A비용은 2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독립·예술영화 128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436.7억 원으로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3.6억 원, 편당 평균 순제작비는 2.8억 원, 편당 평균 P&A비용은 0.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 상업영화 36편의 평균 추정수익률은 -0.3%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021년에는 평균 수익률이 -20%를 하회하였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흑자로 돌아오지는 못하였으나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제작비 규모별로는 80억 이상~150억 미만(6편)의 평균 수익률이 108.2%로 가장 높았고 150억 이상(6편)이 9.7%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 외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적자 수익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구간은 50억 이상~80억 미만(13편)으로 -59.1% 수익률로 잠정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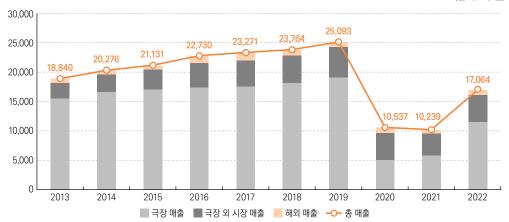
〈표 1〉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단위: 억 원, %)

7분	2013	2014	2015	201	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¹⁾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5,845	11,602	
비중	82.3%	82.1%	81.2%		76.7%	75.5%	76.3%	76.3%	48.4%	57.1%	68.0%	
비 증감률	6.6%	7.3%	3.1%		1.6%	0.8%	3.3%	5.5%	-73.3%	14.5%	98.5%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4,514	3,838	4,539	
비중	14.2%	14.7%	15.8%		18.1%		19.9%	20.3%	42.9%	37.5%	26.6%	
비 증감률	24.0%	11.0%	12.7%		23.2%	5.7%	8.6%	7.5%	-11.4%	-16.5%	18.3%	
억원 651 664 6				완성작	509	460	458	442	595	492		
	628	서비스	664	883	427	418	324	64	923			
					소계	1,173	1,343	885	860	919	556	
				완성작	4,389	4,073	4,160	3,788	5,416	4,303		
만 달러 ³⁾	5,946	6,308	5,550	서비스	5,720	7,806	3,876	3,590	2,945	560	7,147	
				소계	10,109	11,879	8,036	7,378	8,361	4,863		
비중	3.5%	3.3%	3.0%		5.2%	5.8%	3.7%	3.4%	8.7%	5.5%	5.4%	
비 증감률	57.2%	2.0%	-5.4%		86.8%	14.5%	-34.1%	-2.8%	6.9%	-39.5%	66.0%	
합계	18,840	20,276	21,131		22,730	23,271	23,764	25,093	10,537	10,239	17,064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비 증감률	10.0%	7.6%	4.2%		7.6%	2.4%	2.1%	5.6%	-58.0%	-2.8%	66.7%	
	매출1) 비중 비중감률 시장 매출 비중감률 역원 만달러3) 비중 비중감률	배출1) 15,513 비중 82.3% 비중감률 6.6% 시장 매출 2,676 비중 14.2% 비 중감률 24.0% 억원 651 만달러3) 5,946 비중 3.5% 비 중감률 57.2% 경계 18,840 비중 100%	배출1) 15,513 16,641 비중 82.3% 82.1% 비중감률 6.6% 7.3% 시장 매출 2,676 2,971 비중 14.2% 14.7% 비 증감률 24.0% 11.0% 억원 651 664 만달러3) 5,946 6,308 비중 3.5% 3.3% 비 증감률 57.2% 2.0% 남계 18,840 20,276 비중 100% 100%	배출1) 15,513 16,641 17,154 비중 82.3% 82.1% 81.2% 비중감률 6.6% 7.3% 3.1%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비중감률 24.0% 11.0% 12.7% 역원 651 664 628 반당라3 5,946 6,308 5,550 비중 3.5% 3.3% 3.0% 비중감률 57.2% 2.0% -5.4% 남제 618 100% 100% 100%	배출1) 15,513 16,641 17,154 비중 82.3% 82.1% 81.2%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비중감률 24.0% 11.0% 12.7% 원성작 석원 651 664 628 서비스 소계 비중 3.5% 3.3% 3.0% 비중감률 57.2% 2.0% -5.4% 남이 중감률 100% 100% 100%	배출1) 15,513 16,641 17,154 17,432 비중 82.3% 82.1% 81.2% 76.7% 비중금불 6.6% 7.3% 3.1% 1.6% 1.25 비중 14.2% 14.7% 15.8% 18.1% 비중금불 24.0% 11.0% 12.7% 23.2% 인원적 651 664 628 서비스 664 소계 1,173 인상작 4,389 만달러3 5,946 6,308 5,550 서비스 5,720 소계 10,109 비중 3.5% 3.3% 3.0% 5.2% 18.8% 비중금불 57.2% 2.0% -5.4% 86.8% 14.8% 14.8% 14.8% 14.8%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9% 15.2	배출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비중 82.3% 82.1% 81.2% 76.7% 75.5% 비중감률 6.6% 7.3% 3.1% 1.6% 0.8%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비중 14.2% 14.7% 15.8% 18.1% 18.7% 비중감률 24.0% 11.0% 12.7% 23.2% 5.7% 억원 651 664 628 서비스 664 883 보생주 1,173 1,343 24.0% 4,389 4,073 만달러3) 5,946 6,308 5,550 서비스 5,720 7,806 보생주 2,72% 3.3% 3.0% 5.2% 5.8% 비중감률 57.2% 2.0% -5.4% 86.8% 14.5% 비중감률 100% 100% 100% 100% 100% 100%	매출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비중 82.3% 82.1% 81.2% 76.7% 75.5% 76.3% 비중감률 6.6% 7.3% 3.1% 1.6% 0.8% 3.3%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비중 14.2% 14.7% 15.8% 18.1% 18.7% 19.9% 비중감률 24.0% 11.0% 12.7% 23.2% 5.7% 8.6% 4년 중감률 24.0% 11.0% 12.7% 23.2% 5.7% 8.6% 458 460 460 458 460 460 460 460 460 460 460 460 460 460	매출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비중 82.3% 82.1% 81.2% 76.7% 75.5% 76.3% 76.3% 16,645 17,52를 6.6% 7.3% 3.1% 1.6% 0.8% 3.3% 5.5%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비중 14.2% 14.7% 15.8% 18.1% 18.7% 19.9% 20.3% 비중감률 24.0% 11.0% 12.7% 23.2% 5.7% 8.6% 7.5% 44 2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배출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비중 82.3% 82.1% 81.2% 76.7% 75.5% 76.3% 76.3% 48.4% 비중감률 6.6% 7.3% 3.1% 1.6% 0.8% 3.3% 5.5% -73.3%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4,514 비중 14.2% 14.7% 15.8% 18.1% 18.7% 19.9% 20.3% 42.9% 비중감률 24.0% 11.0% 12.7% 23.2% 5.7% 8.6% 7.5% -11.4% 비중감률 24.0% 11.0% 12.7% 23.2% 5.7% 8.6% 7.5% -11.4% 비중감률 661 664 628 서비스 664 883 427 418 324 만달러3 5,946 6,308 5,550 서비스 5,720 7,806 3,876 3,590 2,945 나달러3	배출1) 15,513 16,641 17,154 17,432 17,566 18,140 19,140 5,104 5,845 비중 82.3% 82.1% 81.2% 76.7% 75.5% 76.3% 76.3% 48.4% 57.1% 비중 감률 6.6% 7.3% 3.1% 1.6% 0.8% 3.3% 5.5% -73.3% 14.5% 시장 매출 2,676 2,971 3,349 4,125 4,362 4,739 5,093 4,514 3,838 비중 14.2% 14.7% 15.8% 18.1% 18.7% 19.9% 20.3% 42.9% 37.5% 비중감률 24.0% 11.0% 12.7% 5.7% 8.6% 7.5% -11.4% -16.5% 비중감률 24.0% 11.0% 12.7% 509 460 458 442 595 492 억원 651 664 628 4,389 4,073 4,160 3,788 5,416 4,303 만달러3) 5,946 6,308 5,550 40 4,389	

〈그림 1〉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시장, 해외) 매출 추이

(단위: 억 원)



¹⁾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극장 입장권 매출로, 매점매출이나 광고매출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²⁾ 해외매출은 2016년부터 완성작 수출액과 서비스 수출액을 구분하여 집계해 오고 있다.

³⁾ 해외수출액의 원화 환산 시 적용 환율은 1USD = 1,292.16원(2022년 한국은행 환율 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였음.

⟨표 2⟩ 2013~2022년 한국 영화산업 주요 통계지표

(단위: 만명, 편, 개, 회, %)

1 2022 33 11,281
3 11,281
% 86.4%
2 6,279
% 244.7%
% 55.7%
31 5,001
% 18.2%
% 44.3%
3,322
12 561
7 2.19
% -0.3%
.7 82 .0 .1 .9 .9 .9 .9 .9 .9 .9 .9

⁴⁾ 개봉편수는 2016년부터 실질개봉작(연간 상영회차 40회차 이상-최소 1개 상영관에서 7일간 전일 상영되는 경우의 상영 회차)와 형식개봉작(연간 상영회차 40회차 미만-온라인 VOD 서비스를 겨냥해 형식으로 개봉하는 대부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상영회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모두 실질개봉작으로 포함 하여 집계해 오고 있다. 또한 감독판/무삭제판 등은 원영화에 합산한 것이다.

⁵⁾ 수익성 분석 대상작은 2010~2015년까지는 '총제작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작되었거나 전국 최대 100개 상영관 이상에서 개봉 상영된 영화' 기준, 2016년부터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된 영화' 기준이다. 2022년 수익률은 간이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향후 발간될 『2022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에서 집계치로 보정될 예정이다.

제1장

개관

제1장 **개관**

기대는 컸으나 결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간 침체된 영화산업의 회복을 기대한 2022년에 대한 평가다. 그간 한국영화는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성장세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수년간 이어졌으나 극장매출, 관객 수, 극장 수, 스크린 수, 제작 편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기생충〉(2019)의 전 세계적 흥행과 수상으로 상업적, 예술적 성취도 이뤄내면서 파죽지세로 성장의 가능성을 발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극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산업의 모든 수치들은 곤두박질쳤다. 2년의 긴 시간이 지나 개봉을 미뤄왔던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재생을 모색했던 한국영화 산업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며 가능성은 발견하였으나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기준점은 서로 달라서 투자, 제작, 배급, 그리고 관객들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접점을 모색한 한 해였다.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은 예년과 같이 극장을 중심으로 하여 영화산업을 살펴보겠지만, OTT가 대중화되면서 포착할 수 없는 지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절반의 복구, 침체의 장기화

2022년 한국 극장 총 매출은 1조 1602억 원, 총 관객 수는 1억 1281만 명이었다. 직전년도인 2021년에 비교하면 매출은 98.5%, 관객 수는 86.4% 상승하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사실 업계의 기대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던 예년 수준으로의 복귀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정상 수준이었던 2019년의 극장 총 매출이 1조 9140억 원, 총 관객 수가 2억 2668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불과 60.6%, 49.8%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겠지만 누구도 충분히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치이다.

완성된 영화들이 코로나19로 개봉을 미루면서 관객이 여가시간에 가까운 멀티플렉스 극장을 찾으면 입장료, 시간에 상응하는 재미를 보장하는 작품을 볼 수 있다는 흐름이 깨졌다. 시기에 맞는 작품의 배급도 원활하지 못했으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용기 있게 극장에 내놓은 작품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을 거둬야 했다. 올해 개봉했던 개별 작품들의 흥행 흐름을 살펴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관객의 발길이 본격화되지 못한 5월, 전편의 대형 흥행에 힘입어 과감하게 개봉한 〈범죄도시2〉가 끝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1313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기록하였고, 업계에 자신감을 심어줬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극장가의 흥행을 장악했던 마블 스튜디오의 최신작 〈닥터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 명)**)가 우리나라에서 626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고 이어서 흥행 보장 프랜차이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과 〈마녀(魔女) Part 2.The Other One〉, 〈탑건: 매버릭〉이 6월에 개봉하며 여름 시장으로 향하는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탑건: 매버릭〉은 높은 관객 만족도 속에 장기 흥행을 지속하며 879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전체 박스오피스 수입 3위에 올랐다.

영화 흥행은 언제나 작품과 배급 전략, 관객의 필요가 맞물려 이뤄졌지만 한국 영화산업에서 올해만큼 관객들과 업계가 서로 눈치를 본 해는 없었을 것이다. 높아진 물가 속에 팬데믹 기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한 극장 요금은 오랜만에 극장을 찾으려 했던 관객들에게는 놀라움과 부담으로 다가왔고 신중하게 작품을 고르려는 경향은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내놓지 못하고 개봉을 미뤄온 작품들을 언제 내놓을지 고심을 거듭하였다. 작품은 쌓여있었고 개봉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는 시기는 다가오고 있었다.

7~8월, 소위 여름 시장은 언제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한국 영화 대작들이 경쟁하며 시장을 키운시기였다. 마침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한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자리를 비우면서 오랫동안 극장 개봉을 미뤄왔던 한국영화 대작들이 한주 차이로 개봉 시기를 정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았다. 〈외계+인 1부〉,〈한산: 용의 출현〉,〈비상선언〉,〈헌트〉는 흥행 불패 최동훈 감독의 새로운 도전,역대 최고 흥행작의 후속편, 한국 대표배우들의 앙상블 재난 블록버스터,이정재,정우성 콤비의 스파이액션 대작이라는 요소들이 극장가를 정상화 궤도로 견인할 충분한 포트폴리오로 여겨졌다. 결국 총수입 160억 원, 210억 원에 그친 〈외계인 1부〉(154만 명)와〈비상선언〉(206만 명)은 실패,〈한산: 용의 출현〉(726만 명)〈헌트〉(435만 명〉는 737억 원, 446억 원의 극장 매출을 올리며 일정 정도의 성공과 기대가 엇갈리는 결과를 냈다. 무리한 개봉 일정이 패착이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높아진 극장 관람요금으로 인해관객들이 볼 작품을 더욱 신중히 선택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¹⁾ 괄호 안은 2022년 최종 관객 수이다.

^{2) 〈}탑건: 매버릭〉은 관객 수 기준 818만 명으로 전체 2위, 매출액 기준 879억 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영화의 빛나는 가능성들

언제나 그랬듯 우리 영화는 제작비나 흥행 규모로만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헤친자 열풍', 'N차 관람'의 중심에서 꾸준한 관객 몰이로 매출액 196억 원, 관객 수 190만 명을 기록하였다. 영화 미학적으로 훌륭한 작품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을 한 영화였다. 8월 개봉한 영화 〈육사오(6/45)〉는 중급규모의 코미디는 더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198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극장에서 벌어들이면서 올해의 깜짝 흥행작이 됐다. 대중적이지만 한 번도 영화화된 적이 없는 소재인 로또와 남북관계를 신선한 얼굴의 젊은 배우들과 잘 버무려냈다는 점에서 호평 받은 작품이었다. 11월 개봉한 사극 스릴러 〈올빼미〉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배우들의 호연 속에 318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며 잘 만든 작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흥행한다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준 작품이었다. 특히 〈육사오(6/45)〉의 박규태 감독과〈올빼미〉의 안태진 감독은 영화판에서 오래 버티며 쌓은 내공으로 결실을 맺게 된 과정의 이야기도 화제를 모았다.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는 시사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강세였다. 601개 스크린에서 상영된 〈그대가 조국〉(이승준 감독)이 31억 원의 수입을 거두는 한편, 김의성, 주진우 감독의 〈나의 촛불〉도 극장에서만 4억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 그리고 음악 다큐 〈아치의 노래, 정태춘〉(고영재 감독)도 호평 속에 3억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또한 젊고 솔직한 화법으로 팬덤의 실체를 파헤친 〈성덕〉(오세연 감독)은 세대를 뛰어넘은 화제작이었다. 또한 손현주, 박진영(갓세븐), 서현진, 안성기 등 인기 배우가 출연한 중소규모 영화인 〈봄날〉, 〈크리스마스 캐럴〉, 〈카시오페아〉 등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작품들 또한 제작비, 관객 양극화 흐름 속에서 주목할 사례로 남았다.

회복의 가능성을 찾아서

2023년도 후반기 극장가는 관록의 흥행사들에게 패가 쥐어졌다. JK필름이 제작한 〈공조2: 인터내셔날〉 (698만 명)은 전작의 흥행 요소였던 웃음과 액션을 적절히 배합하며 9월 추석 시즌을 전후로 70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역시 JK필름에서 제작하고 윤제균 감독이 오랜만에 연출로 복귀한 〈영웅〉(12월 개봉, 148만 명)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역사적 인물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에 도전했고, 145억 원(2023년 합계 313억 원)의 수입을 올리며 일정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례적인 겨울 월드컵이 끝나자 전 세계 극장의 흥행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작품이 〈영웅〉보다 한 주 앞서 개봉하였는데,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이었다. 전작이 극장 관람과 시청 디바이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반향을 모은 뒤 11년 동안 준비한 작품인 만큼 관객들의 기대가 컸다. 2022년 12월 14일 개봉해 보름동안 902억 원을 벌어들인 이 영화는 2023년을 넘어 13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에 이른다.3) 극장가가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총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작품이 두 작품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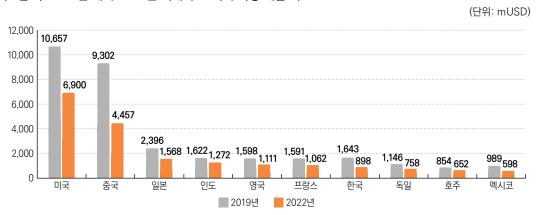
나왔다는 것은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작품에만 관객이 쏠리고 다른 영화들에는 관객이 들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또한 낳았다.

〈아바타: 물의 길〉은 IMAX,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4DX 등 특별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관객들도 많았다. 이왕 비싼 입장료를 낼 것이라면 더 큰 화면, 좋은 사운드를 갖춘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겠다는 관객들의 수요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봉하면 흥행이 보장됐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작품인 〈토르: 러브 앤 썬더〉,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3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거둔 것은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게 한다. 계속된 시리즈의 피로감, 디즈니 플러스로 이어지는 방대한 세계관으로 인한 진입장벽도 지적되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스파이더맨: 노 웨이홈〉은 성공했다는 점은 관객들의 관람 작품 선택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려줬다.

전 세계 극장가 흥행을 기준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22년의 회복세를 평가해보고자 한다.⁴⁾ 2019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는 417억 2,800만 달러(53조 9193억 원)였는데, 2022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 추정치는 251억 6,900만 달러(32조 5224억 원)로 60.3%의 회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박스오피스는 2019년 16억 4,300만 달러(2조 1230억 원)에서 2022년 8억 9,800만 달러(1조 1604억 원)로 54.7% 회복했는데, 전 세계 회복세보다 11.1%p 낮은 수치다.

2022년 극장 매출 상위 10위권의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은 64.7%,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66.8%, 66.1%, 영국은 69.6%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65.4%, 중국은 47.9%였다. 중국과 홍콩의 극장 매출 회복률은 각각 47.9%, 59.3%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극장 수입회복이 국가 방역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2019년 대비 2022년 세계 주요 국가 극장 매출 비교



^{3) 2023}년 2월 10일 현재 상영 중 매출액 기준이다.

⁴⁾ OMDIA. Cinema Admissions & Box Office (2023) 참조

사람들은 극장 밖에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산업 결산』은 지금까지 극장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극장 외 시장을 추가로 다루며 매년 영화산업을 조망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산업이 커버되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OTT산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사람들의 영화 소비 패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OTT를 통한 영화의 유통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창작자들이 OTT시리즈물과 오리지널 영화, 극장 영화를 넘나들며 작업을 지속하는 사이, 새로운 채널들을 외면하고 극장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에 변화가 확실히 와야 하는 시기가 지나고 있다.

극장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가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선회한 〈야차〉, 애초에 OTT오리지널 콘텐츠로 기획된 영화 〈모럴 센스〉, 〈카터〉, 〈20세기 소녀〉는 분명 한국 영화인들이 기획, 제작한 한국영화다. 에피소드 형식의 시리즈물은 제외하더라도 2시간 내외의 장편 영화의 형식으로 제작된 한국영화들을 단지 유통 윈도우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결산에서 다룰 수 없었다는 점은 이 결산의 한계이면서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정책을 수립, 시행해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재 한계이기도 하다. OTT 오리지널 영화이지만 극장에 먼저 소개되고 이후 온라인 IPTV를 거쳐 본래 플랫폼에 안착한 〈젠틀맨〉, 극장 상영도중에 홀드백을 없애고 OTT를 통해 공개된 〈한산: 용의 출현〉의 케이스는 혼란 속에서 자구책을 찾아나가는 업계의 노력인 동시에 앞으로 산업의 향방을 점 쳐볼 수 있게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극장엔 관객이 줄었지만 사람들이 볼 것이 없어 심심했다는 말은 없다. 방송시간에 맞춰 지상파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없고 코로나19 기간 유튜브, 넷플릭스를 통한 콘텐츠 소비는 생활화되었으며 틱톡, 인스타 쇼츠는 짧은 시간 사람들의 재미를 채워주고 있다. 더 이상 절대 지위를 지닌 미디어와 콘텐츠는 없다. 나의 24시간을 채워줄 콘텐츠는 넘쳐나고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전보다 높은 관람요금을 내고 봐야 하는 극장을 찾아야 할 이유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큰 스크린, 좋은 사운드, 안전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나와 편한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작품, 한 작품의 가치로서 앞으로 영화를 오롯이 극장에 내놓고 심판받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기존의 흥행, 배급 공식, 관람환경은 변화한 판도를 온전히 반영하여 다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영화를 포함한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할 시점이 왔다. 『2022년 한국영화산업 결산』은 실제 산업과 지원 체계의 간극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2상

부문별 결산

제2장

부문별 결산

가. 세계 및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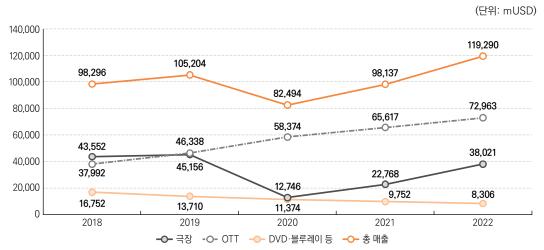
1)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에서의 한국

세계 영화·영상산업에 있어 2019년부터 OTT 시장 규모가 극장 시장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극장, OTT, DVD·블루레이 등의 시장 규모는 각각 380억 2,100만 달러(49조 1292억원), 729억 6,300만 달러(94조 2799억원), 83억 600만 달러(10조 7327억원)로, 전체 시장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61.2%에 다다른다. 이는 극장시장 규모(31.9%)에 비해 약 2배 큰 비중으로, 지금의 극장 회복세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OTT 와의 격차를 줄이기에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팬데믹의 여파로 급격히 하락했던 세계 극장시장이 2020년 이후 조금씩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정상 괘도까지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15.8% 부족한 수준이다.

팬데믹 이후 세계 영화시장의 수익은 코로나19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탑건: 매버릭〉,〈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픽사의〈버즈 라이트이어〉,〈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와 같은 할리우드 히어로 무비, 대형 흥행작의 속편, 그리고 고예산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작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말 개봉된〈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전세계에서 18억 달러 이상의 극장티켓 판매 수익을 올렸고, 관객들은 여전히 '극장용 영화' 관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극장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2022년은 이와 같이 흥행을 담보하는 작품들의 극장 개봉이 세계 극장시장을 전년 대비 67.0% 성장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텐트폴 영화들이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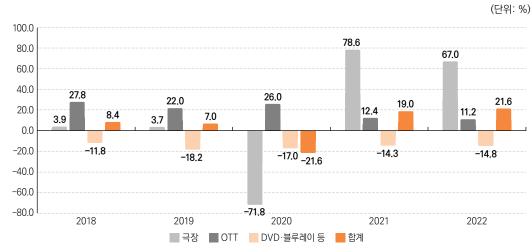
⁵⁾ 본 장에서는 한국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위해 달러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다른 장에서 원화 표기에 기초한 한국 시장 규모와는 다소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 2018~2022년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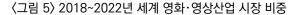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 극장 매출은 광고수익(Cinema advertising)이 포함된 금액이며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림 4〉 2018~2022년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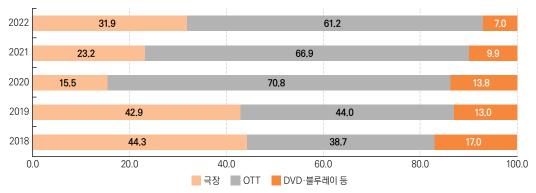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 극장 매출은 광고수익(Cinema advertising)이 포함된 금액이며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⁶⁾ PwC, Cinema,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을 바탕으로 작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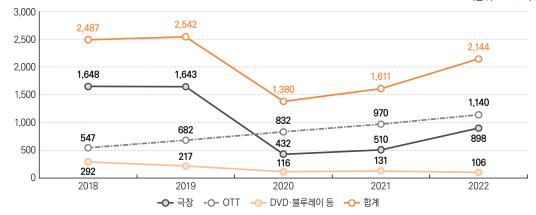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 극장 매출은 광고수익(Cinema advertising)이 포함된 금액이며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2022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영화·영상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는 극장 2.4%, OTT 1.6%, DVD·블루레이 등이 1.3%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2020년 73.7% 대폭 하락했던 한국의 극장시장은 할리우드 블록 버스터인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아 2021년 18.1% 증가한 5억 1,000만 달러를 기록 하였다. 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의 시장 규모는 극장시장이 전년 대비 76.1% 성장한 8억 9,800만 달러 (1조 1604억 원)를 기록해 11억 4,000만 달러(1조 4731억 원)를 차지한 OTT와의 차이를 다소 좁혔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16억 4,3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45.3% 낮은 규모로 회복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림 6〉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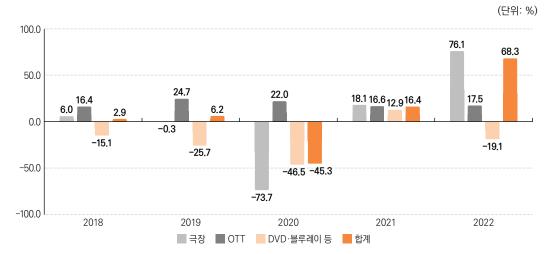
(단위: mUSD)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극장매출: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⁷⁾ Cinema in South Korea,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극장시장의 경우 PwC 예측 전망치보다 더 정확한 영화진흥위원회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데이터로 보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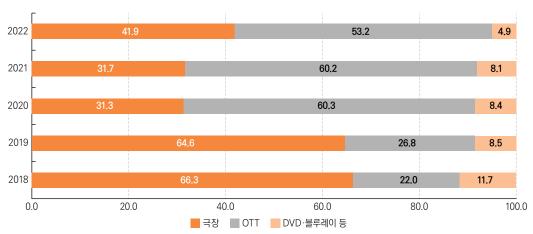
〈그림 7〉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성장률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극장매출: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림 8〉 2018~2022년 한국 영화·영상산업 시장 비중

(단위: %)



- * 출처: PwC,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2-2026 / 극장매출: KOBIS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 * OTT와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액은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된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의 제반 콘텐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2) 국가별 극장산업 현황

2021년 세계 극장시장에서 매출 규모 8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2022년 한 단계 앞선 7위에 올라섰다. 2022년 전 세계 극장 매출액은 251억 6,9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60.3% 회복세를 보이는데 반해, 한국은 54.7%(8억 9,800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회복이 더딘 편이다.

〈표 3〉 2018~2022년 주요 국가별 전년 대비 극장 시장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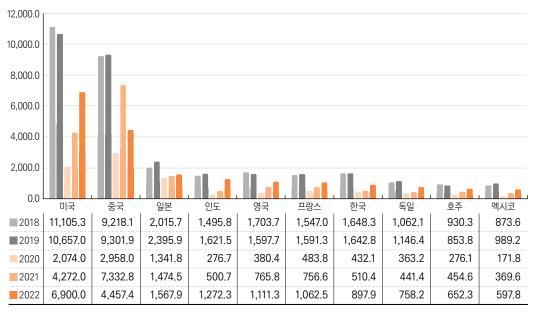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국	7.8	-4.0	-80.5	106.0	61.5
중국	11.4	0.9	-68.2	147.9	-39.2
일본	-1.1	18.9	-44.0	9.9	6.3
인도	1.1	8.4	-82.9	81.0	154.1
영국	3.4	-6.2	-76.2	101.3	45.1
프랑스	0.9	2.9	-69.6	56.4	40.4
한국	6.1	-0.3	-73.7	18.1	75.9
독일	-11.0	7.9	-68.3	21.5	71.8
호주	1.1	-8.2	-67.7	64.7	43.5
멕시코	-0.8	13.2	-82.6	11.51	61.7

^{*} 출처: Omdia

(그림 9) 2018~2022년 각 국가별 극장매출 규모 상위 10위

(단위: mUSD)



^{*} 출처: Omdia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주요 국가별 극장 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인도, 호주 프랑스, 독일 등은 -34% 수준까지 회복하였고, 한국은 -45.3%, 중국은 -52.1%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시행 등과 같은 국가 방역 정책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국가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볼 때 극장의 회복이 방역 정책과도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4〉 2019년 VS 2022년 각 국가별 극장 시장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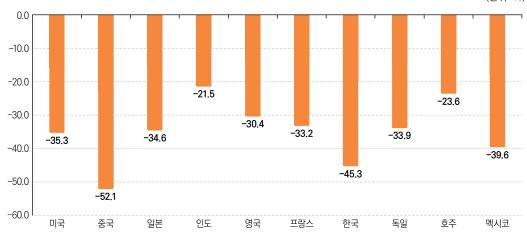
(단위: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호주	멕시코
성장률	-35.3	-52.1	-34.6	-21.5	-30.4	-33.2	-45.3	-33.9	-23.6	-39.6

^{*} 출처: Omdia

〈그림 10〉 2019년 VS 2022년 각 국가별 극장 시장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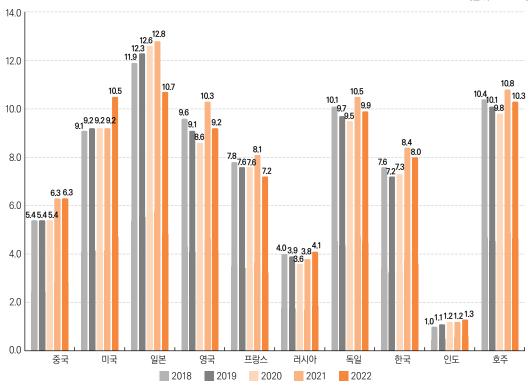


2022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람요금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폐단위를 미국 달러(USD)로 일괄 적용하여 산출할 경우에는 국가별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로 인해 몇몇 국가에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각 국가별 화폐단위를 적용하여 증감률을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영화 관람요금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역시, 2022년 극장 관람요금이 10,285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8) 2022}년 극장매출 상위 10위 국가 기준

〈그림 11〉 2018~2022년 각 국가별 영화 관람요금

(단위: mUSD)



^{*} 출처: Omdia

〈표 5〉 2018~2022년 각 국가별 전년 대비 영화 관람요금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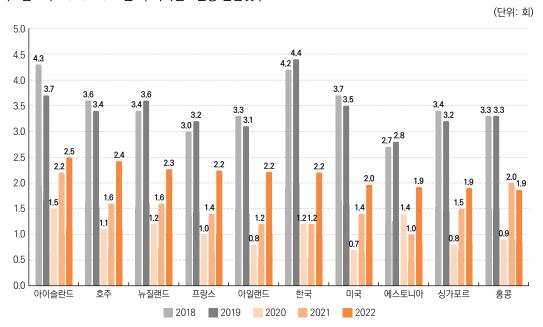
(단위: %)

					(EH: 7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국	1.9	0.3	0.0	0.0	15.0
중국	2.9	4.8	0.1	8.8	4.2
일본	0.7	1.9	0.7	4.4	0.1
인도	13.0	19.3	16.5	-4.9	15.4
영국	-3.8	-1.4	-5.1	11.5	-0.9
프랑스	0.7	2.2	-2.1	2.5	0.7
한국	4.9	0.7	1.5	12.6	6.6
독일	-1.2	1.2	-3.3	6.2	5.8
호주	-1.9	4.6	-1.9	1.2	3.3
멕시코	5.8	7.5	5.2	15.3	0.7

^{*} 출처: Omdia, Cinema Admissions & Box Office 4Q22, 로컬 화폐가치 기준(Average Ticket Price(Local)) 인상률

202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관람횟수는 2.2회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작들의 극장개봉이 거듭 연기되며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던 2021년, 세계 10위에 그쳤던 한국의 1인당 관람횟수는(1.2회) 1년 만에 6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국민 1인당 관람횟수 4.4회로 전 세계 1위(2019)를 기록할 만큼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이기도 했던 극장에서의 영화관람이다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람요금이 상승하고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 혹은 꼭 극장에서 봐야할 영화가 있어야 극장을 찾는 지금, 관객의 변화된 소비행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쉬지 않고 고민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해왔다.

〈그림 12〉 2018~2022년 각 국가별 1인당 관람횟수



* 출처: Omdia

미디어 환경 변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계 영화·영상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OTT 시장의 파급력은 결국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서 비롯된다. 이미 많은 영화산업 종사자가 OTT로 넘어가 OTT 오리지널 콘텐츠 생산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높아진 관람요금과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눈높이라는 진입장벽을 뚫고 영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 그리고 그를 위한 시의성 있는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영화산업 시장규모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한 한국 영화산업 매출 규모는 1조 7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7%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체 매출 규모가 2019년 대비 58.0% 감소하였던 2020년 1조 537억원, 지난 10년 간 가장 적은 총 매출 규모였던 2021년 1조 239억원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조 5093억원과 비교하면 약 68% 가량 회복한 수치로, 아직 한국 영화산업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회복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이른 수준이다.

2022년 전체 영화산업 매출은 1조 1602억 원으로, 극장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0.9%p 증가한 68.0%였다. 극장 외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4539억 원이었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장 매출이 일정 부분 회복하며 26.6%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였다. 해외 수출은 오프라인 필름마켓 등의 재개로 전년 대비 66.0% 증가한 923억 원(7147만 달러)이었고, 비중은 5.4%로 전년도 5.5%와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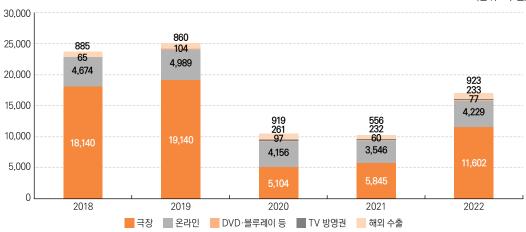
〈표 6〉 2018~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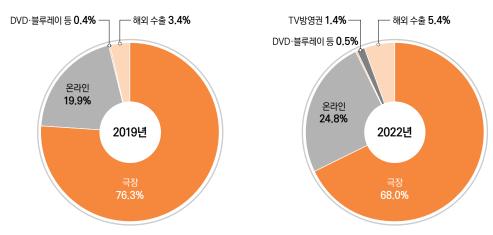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2018	2018 2019		2021	2022
극장 으라인 		18,140	19,140	5,104	5,845	11,602
		4,674	4,989	4,156	3,546	4,229
- 누네	DVD·블루레이	65	104	97	60	77
TV 방영권		-	-	261	232	233
해외 수출		885	860	919	556	923
합계		23,764	25,093	10,537	10,239	17,064

〈그림 13〉 2018~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단위: 억 원)





〈그림 14〉 2019년 VS 2022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비중

나. 극장 시장

1) 입장권 매출액과 관객 수

2022년 극장 전체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5757억 원) 증가하였고, 전체 관객수는 1억 12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86.4%(5228만 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0년 5104억 원, 2021년 5845억 원의 전체 매출액을 기록한 데 그쳤지만,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었고, 5월 〈범죄도시2〉를 시작으로 〈탑건: 매버릭〉, 〈한산: 용의출현〉, 〈공조2: 인터내셔날〉, 〈아바타: 물의 길〉 등 성수기에 화제작들이 개봉한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액은 1조 원을 상회하였고, 연 관객 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섰다.

2022년 한국영화 매출액은 6,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9%(4576억 원) 증가했고, 한국영화 관객수는 62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4.7%(4457만 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던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영화 관객수 점유율은 전년 대비 25.6%p 늘어난 55.7%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대작 영화와 기대작의 개봉이 줄면서 11년 만에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며 외국영화에 우위를 내주었지만, 2022년에 다시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우위를 점했다.

외국영화 매출액은 5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7%(1181억 원) 증가했고, 외국영화 관객 수는 5,0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2%(770만 명) 늘었다. 〈아바타: 물의 길〉, 〈탑건: 매버릭〉 등의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가 흥행하면서 외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44.3%이다. 외국영화는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미 그간 개봉이 연기되었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하기 시작했기 한국영화와 비교해 전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팬데믹으로 인한 개봉연기 사태로 기대작의 개봉이 부족했던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과 관객 수가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22년 전체 매출액은 2019년의 5분의 3(60.6%), 2022년 전체 관객 수는 2019년의 2분의 1(49.8%)에 불과했다. 2022년 전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39.4%(7538억 원) 감소했고, 전체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50.2%(1억 1387만 명) 줄었다. 2022년 한국영화 매출액은 2019년 대비 35.0%(3398억 원) 감소했고, 2022년 한국영화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45.7%(5283만 명) 줄었다. 2022년 외국영화 매출액은 2019년 대비 43.9%(4140억 원) 감소했고, 2022년 외국영화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55.0%(6104만 명) 줄었다.

2022년 인구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전년 대비 1.02회 증가한 2.19회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아이슬란드 2.49회, 호주 2.42회, 뉴질랜드 2.27회, 프랑스 2.24회, 아일랜드 2.21회 다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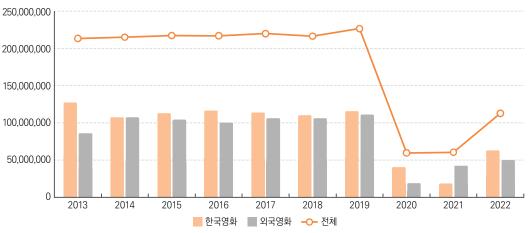
(표 7) 2018~2022년 매출액, 관객 수, 1인당 관람횟수

(단위: 억원, 만명, 회)

							,	
7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년 대비 2022년 증감률	2019년 대비 2022년 증감률
	전체영화	18,140	19,140	5,104	5,845	11,602	98.5%	-39.4%
극장 매출	한국영화	9,128	9,708	3,504	1,734	6,310	263.9%	-35.0%
	외국영화	9,012	9,432	1,600	4,111	5,292	28.7%	-43.9%
	전체영화	21,639	22,668	5,952	6,053	11,281	86.4%	-50.2%
관객 수	한국영화	11,015	11,562	4,046	1,822	6,279	244.7%	-45.7%
	외국영화	10,624	11,106	1,906	4,231	5,001	18.2%	-55.0%
1인당 관람횟수		4.18	4.37	1.15	1.17	2.19	-	_

〈그림 15〉 2013~2022년 관객 수 추이

(단위: 명)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연간 극장 관객 수를 살펴보면 서울 관객 수가 전국 관객 수의 25.6%인 289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848만 명(25.2%)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 관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9%였다. 부산이 769만 명(6.8%)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관객 수를 나타냈다.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영화관에서는 팝콘 등취식이 허용되었다. 여기에 그간 개봉이 연기되었던 한국영화 기대작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이 이어지면서 모든 지역에서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낸 지역은 강원도로 전년 대비 108.2%(144만 명) 증가했고, 경상남도가 104.5%(292만 명)로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노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관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년 대비 70.8%(1199만 명), 대구시는 전년 대비 72.9%(216만 명), 부산시는 전년 대비 79.6%(341만 명) 증가했다.

지역별 스크린 수, 좌석 수 1위는 경기도로 스크린 수는 854개, 좌석 수는 11만 6306개이다. 2위는 서울로 스크린 수는 591개, 좌석 수는 9만 4487개이다. 3위는 부산으로 스크린 수는 228개, 좌석 수는 3만 4053개이다. 인구 1인당 관람횟수는 서울이 3.07회로 가장 높았다. 2위는 2.65회를 기록한 대전이었고, 3위는 광주로 2.61회였다.

〈표 8〉 2022년 광역단체별 매출액, 관객 수, 1인당 관람횟수

(단위: 개, 원, %, 명, 회)

구분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관객 수	관객 수 점유율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평균 관람요금	인구 수	1인당 관람횟수
서울	90	591	94,487	28,924,221	25.6%	306,486,284,668	26.4%	10,596	9,428,372	3.07
부산	29	228	34,053	7,686,230	6.8%	77,592,126,987	6.7%	10,095	3,317,812	2.32
대구	22	145	20,912	5,124,982	4.5%	51,492,054,973	4.4%	10,047	2,363,691	2.17
인천	27	172	25,920	5,745,673	5.1%	60,017,187,502	5.2%	10,446	2,967,314	1.94
광주	17	128	17,473	3,740,228	3.3%	37,161,260,711	3.2%	9,936	1,431,050	2.61
대전	16	107	17,805	3,832,629	3.4%	40,045,566,788	3.5%	10,449	1,446,072	2.65
울산	9	56	8,583	2,399,252	2.1%	24,672,600,749	2.1%	10,283	1,110,663	2.16
세종	4	23	3,284	694,648	0.6%	7,199,052,411	0.6%	10,364	383,591	1.81
경기	139	854	116,306	28,481,402	25.2%	298,913,651,947	25.8%	10,495	13,589,432	2.10
강원	28	127	14,980	2,762,750	2.4%	26,151,431,882	2.3%	9,466	1,536,498	1.80
충북	21	119	15,981	3,070,645	2.7%	30,745,022,635	2.6%	10,013	1,595,058	1.93
충남	29	149	18,068	3,755,668	3.3%	37,848,185,011	3.3%	10,078	2,123,037	1.77
전북	29	139	19,277	3,311,508	2.9%	32,758,672,539	2.8%	9,892	1,769,607	1.87
전남	23	101	12,704	2,513,205	2.2%	23,876,999,762	2.1%	9,501	1,817,697	1.38
경북	33	152	17,422	3,739,796	3.3%	36,643,638,680	3.2%	9,798	2,600,492	1.44
경남	38	192	25,260	5,706,481	5.1%	55,615,771,055	4.8%	9,746	3,280,493	1.74
제주	7	39	4,165	1,315,744	1.2%	12,992,418,700	1.1%	9,875	678,159	1.94
합계	561	3,322	466,680	112,805,062	100.0%	1,160,211,927,000	100.0%	10,285	51,439,038	2.19

^{*} 인구 수는 2022년 12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2022년 평균 관람요금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10,285원으로 평균 관람요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어섰다. 영화관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영화 관람요금을 팬데믹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언론보도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영화상영관 상영내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2020년 10~12월, 2021년 4~7월, 2022년 4~7월 세 시기에 걸쳐 각각 1천 원씩 관람요금을 인상했고, 그 결과 2018년 12,000원이던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주말 일반 시간대 영화관람요금은 2023년 1월 19일 기준으로 15,000원으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표 9〉 2018~2022년 평균 관람요금

(단위: 억원, 만명,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매출액		19,140	5,104	5,845	11,602
관객 수		21,639	22,668	5,952	6,053	11,281
	전체영화	8,383	8,444	8,574	9,656	10,285
평균 관람요금 (원)	한국영화	8,286	8,396	8,660	9,518	10,049
(4)	외국영화	8,483	8,493	8,392	9,716	10,582

^{*} 평균 관람요금 = 전체 매출액 / 전체 관객 수

2) 박스오피스

〈표 10〉 2022년 전체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단위: 개, %, 원, 명)

관객수 12,693,302 7,313,220 8,177,446	배급사 에이비오, 플러스엠 디즈니
7,313,220 8,177,446	플러스엠 디즈니
8,177,446	
	=
	롯데
7,264,934	롯데
6,982,840	CJ ENM
5,884,587	디즈니
4,352,390	플러스엠
3,222,738	NEW
2,716,306	디즈니
2,837,410	UPI
2,806,501	NEW
2,105,644	디즈니
2,269,024	UPI
2,058,869	쇼박스
2,024,121	소니
1,980,769	홈초이스, 싸이더스
1,893,954	CJ ENM
1,539,362	CJ ENM
1,487,686	CJ ENM
1,261,131	CJ ENM
	5,884,587 4,352,390 3,222,738 2,716,306 2,837,410 2,806,501 2,105,644 2,269,024 2,058,869 2,024,121 1,980,769 1,893,954 1,539,362 1,487,686

^{*} 상영점유율 산출기준 = A(상영횟수) / B(전체 상영횟수)×100

⁻ 상영횟수(A): 조회기간에 특정영화의 상영횟수(상영회차 기준)

⁻ 전체 상영횟수(B): Σ(조회기간에 특정영화의 상영횟수) (※ 각 상영영화별 A값(상영횟수) 누적의 합)

^{*} 최대 스크린 수는 영화의 상영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

^{*} 최대 상영 점유율은 영화의 상영기간 중 최대 일일 상영 점유율,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은 개봉 이후 7일간의 평균 상영 점유율

^{*} 매출액과 관객 수는 모두 2022년 기준이며, 순위는 2022년 매출액 기준임

^{*} 확장판, 감독판 등의 경우 원영화의 관객 수와 매출액을 합산한 수치

〈표 11〉 2022년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단위: 개, %, 원, 명)

									(271.711,	, e, L, O,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최대 스크린 수	최대 상영점유율	개봉1주평균 상영점유율	매출액	관객 수	제작사	배급사
1	범죄도시2	2022-05-18	15세	2,521	72.5	69.3	131,297,440,478	12,693,302	빅펀치픽쳐스, 홍필름,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에이비오, 플러스엠
2	한산: 용의 출현	2022-07-27	12세	2,223	56.0	51.4	73,700,628,377	7,264,934	빅스톤픽쳐스	롯데
3	공조2: 인터내셔날	2022-09-07	15세	2,389	63.2	59.0	70,916,352,586	6,982,840	제이케이필름, CJ ENM	CJ ENM
4	헌 <u>트</u>	2022-08-10	15세	1,625	37.6	36.1	44,600,858,153	4,352,390	아티스트 스튜디오, 사나이픽처스	플러스엠
5	올빼미	2022-11-23	15세	1,541	44.0	40.2	31,768,660,550	3,222,738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영화사담담	NEW
6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2022-06-15	15세	1,796	40.7	38.3	28,922,488,670	2,806,501	영화사금월, 스튜디오앤뉴, 페퍼민트앤컴퍼니	NEW
7	비상선언	2022-08-03	12세	1,734	38.9	35.8	20,927,363,328	2,058,869	매그넘나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씨네주유한회사	쇼박스
8	육사오(6/45)	2022-08-24	12세	1,339	34.8	24.0	19,791,166,880	1,980,769	티피에스 컴퍼니, 싸이더스	홈초이스, 싸이더스
9	헤어질 결심	2022-06-29	15세	1,374	32.6	27.1	19,642,291,589	1,893,954	모호필름	CJ ENM
10	외계+인 1부	2022-07-20	12세	1,959	46.2	37.7	15,995,553,548	1,539,362	케이퍼필름	CJ E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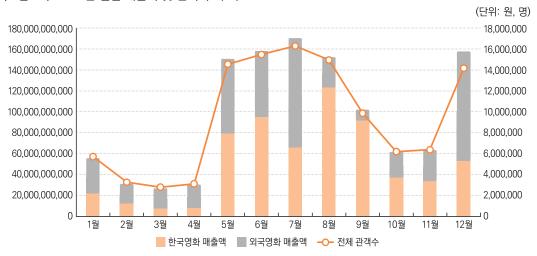
〈표 12〉 2022년 외국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매출액 기준)

(단위: 개, %, 원, 명)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최대 스크린 수	최대 상영점유율	개봉1주평균 상영점유율	매출액	관객 수	배급사
1	아바타: 물의 길	2022-12-14	12세	미국	2,809	70.9	69.4	90,295,968,802	7,313,220	디즈니
2	탑건: 매버릭	2022-06-22	12세	미국	1,975	53.3	49.4	87,855,360,975	8,177,446	롯데
3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05-04	12세	미국	2,691	74.6	71.0	62,648,728,870	5,884,587	디즈니
4	토르: 러브 앤 썬더	2022-07-06	12세	미국	2,143	60.1	53.1	29,505,081,721	2,716,306	디즈니
5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2022-06-01	12세	미국	2,218	52.9	46.1	29,237,071,310	2,837,410	UPI
6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2022-11-09	12세	미국	2,571	68.7	65.8	22,203,102,405	2,105,644	디즈니
7	미니언즈2	2022-07-20	전체	미국	1,394	30.5	27.3	21,999,556,172	2,269,024	UPI
8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12-15	12세	미국	2,162	55.1	78.6	19,859,882,181	2,024,121	소니
9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04-13	12세	미국	2,207	60.2	58.1	12,305,198,580	1,195,441	워너
10	더 배트맨	2022-03-01	15세	미국	2,370	58.1	55.6	9,339,130,700	904,238	워너

3) 월별 흥행추이

〈그림 16〉 202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 수 추이



〈표 13〉 2022년 월별 매출액 및 관객 수

(단위: 편, 원, 명, %)

		한국영화	화			외국영	화		전체영화			
구분	개봉 편수	매출액	관객 수	관객 점유율	개봉 편수	매출액	관객 수	관객 점유율	개봉 편수	매출액	관객 수	
2022년 1월	55	22,038,947,010	2,274,717	39.8%	83	33,562,548,910	3,443,325	60.2%	138	55,601,495,920	5,718,042	
2022년 2월	43	12,744,376,230	1,377,463	42.1%	69	18,203,974,930	1,894,960	57.9%	112	30,948,351,160	3,272,423	
2022년 3월	54	7,867,397,260	846,247	30.2%	100	19,145,934,426	1,953,443	69.8%	154	27,013,331,686	2,799,690	
2022년 4월	71	8,377,298,710	876,930	28.1%	78	22,043,579,850	2,243,214	71.9%	149	30,420,878,560	3,120,144	
2022년 5월	69	79,339,521,110	7,735,086	53.1%	84	71,416,348,050	6,825,573	46.9%	153	150,755,869,160	14,560,659	
2022년 6월	82	95,224,113,280	9,349,642	60.4%	81	62,945,298,030	6,125,870	39.6%	163	158,169,411,310	15,475,512	
2022년 7월	65	65,977,706,376	6,357,425	39.0%	65	104,473,573,011	9,933,818	61.0%	130	170,451,279,387	16,291,243	
2022년 8월	56	123,376,977,426	12,143,049	81.2%	76	28,924,760,359	2,813,785	18.8%	132	152,301,737,785	14,956,834	
2022년 9월	62	91,709,095,309	8,987,768	91.1%	66	10,168,567,899	872,798	8.9%	128	101,877,663,208	9,860,566	
2022년 10월	55	37,718,830,381	3,941,727	63.6%	61	23,855,069,213	2,259,508	36.4%	117	61,573,899,594	6,201,235	
2022년 11월	53	33,577,800,845	3,474,589	54.5%	95	29,876,016,659	2,902,376	45.5%	148	63,453,817,504	6,376,965	
2022년 12월	38	53,027,999,932	5,428,052	38.3%	82	104,616,191,794	8,743,697	61.7%	120	157,644,191,726	14,171,749	
합계	703	630,980,063,869	62,792,695	55.7%	940	529,231,863,131	50,012,367	44.3%	1,643	1,160,211,927,000	112,805,062	

1월 전체 매출액은 55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2.1%(398억 원) 증가했고, 전체 관객 수는 57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1%(393만 명) 늘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2021년 12월 15일, 199억 원)의의 흥행과 1월 마지막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대목을 노린 한국영화의 개봉으로 1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가 2021년 1월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월 한국영화는 〈경관의 피〉,〈특송〉,〈해적: 도깨비 깃발〉,〈킹메이커〉 등의 신작이 개봉한 덕분에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1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68.8%(209억 원) 늘었고, 1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22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1.8%(214만 명) 증가했다. 1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9.7%(189억 원) 증가한 336억 원이었고, 1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9.1%(180만 명) 늘어난 344만 명이었다. 설 연휴(1월 31일~2월 2일) 사흘간의 전체 매출액은 80억 원, 전체 관객 수는 82만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2021년 2월 11~13일)와 비교해 매출액은 57.8%(29억 원), 관객 수는 53.4%(28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설 연휴(2019년 2월 4~6일)와 비교하면 전체 매출액은 81.8%(414억 원) 감소했고, 전체 관객 수는 83.3%(406만 명) 줄었다.

2월 전체 매출액은 30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22억 원) 증가했고, 2월 전체 관객 수는 32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16만 명) 늘었다. 1월 마지막 주말부터 2월 초로 이어지는 닷새간의 설 연휴가 있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이로 인한 기대작들의 개봉연기로 설 연휴 대목 효과가 크지 않았던 탓에 2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데 그쳤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경우는 중량감 있는 한국영화 개봉이 없었던 2021년 2월과 달리 2022년 설 연휴에는 총제작비 100억 원 이상의 〈해적: 도깨비 깃발〉(2022년 1월 26일, 125억 원)과 〈킹메이커〉(2022년 1월 26일, 73억 원)가 개봉한 덕분에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12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1%(66억 원) 늘었고, 2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1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5%(70만 명) 증가했다. 외국영화는 2021년 12월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흥행을 이어나갈 작품이 2월에 부재했던 탓에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2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9.6%(44억 원) 줄어든 182억 원이었고, 2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1%(54만 명) 감소한 189만 명이었다. 설 연휴(2022년 1월 31일~2월 2일) 사흘간의 전체 매출액은 80억 원, 전체 관객 수는 82만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2021년 2월 11~13일, 51억 원, 53만 명)와 비교해 매출액은 57.8%(29억 원), 관객 수는 53.4%(28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전인 2020년 설 연휴(2020년 1월 24~26일, 336억 원, 372만 명)와 비교하면 전체 매출액은 76.1%(256억 원) 감소했고, 전체 관객 수는 78.0%(290만 명) 줄었다.

3월 전체 매출액은 27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31억 원) 감소했고, 3월 전체 관객 수는 2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46만 명) 줄었다. 2021년 3월에는 오스카 수상작인 〈미나리〉와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흥행에 성공했으나, 2022년 3월에는 〈더 배트맨〉,

⁹⁾ 이하 괄호 안은 영화의 개봉일 및 2022년 기준 매출액 또는 관객 수이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문폴〉、〈뜨거운 피〉등 매주 신작이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다 이러다 할 흥행작도 없어 전체 매출액과 전체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3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7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0%(44억 원) 증가했고, 3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8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5%(46만 명) 늘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뜨거운 피〉등의 한국영화가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개봉작이 부족했던 2021년 3월과 비교해서는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증가했다. 3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19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1%(75억 원) 감소했고, 3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19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9%(91만 명) 줄었다.

4월 전체 매출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2%(69억 원) 증가했고, 4월 전체 관객 수는 3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56만 명) 늘었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2022년 4월 13일, 123억 원)이 개봉하면서 흥행작이 없었던 2021년 4월에 비해 매출액과 관객 수가 증가했다. 한국영화는 4월에 기대작의 개봉이 없어 4월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는 〈서복〉,〈자산어보〉,〈내일의 기억〉등이 개봉했던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4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8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16억 원) 감소했고, 4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8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24만 명) 줄었다. 4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2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4%(85억 원) 증가했고, 4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22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7%(79만 명) 증가하였다.

5월 전체 매출액은 1508억 원으로 2019년 5월의 97.5%까지 회복했고, 2021년 5월 대비로는 267.1%(1,097억 원) 증가했다. 5월 전체 관객 수는 1,455만 명으로 2019년 5월의 80.6% 수준을 나타냈고, 2021년 5월 대비로는 232.5%(1018만 명) 늘었다. 5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2022년 5월 4일, 626억 원)와 〈범죄도시2〉(2022년 5월 18일, 1313억 원)가 2주 간격으로 개봉했고, 〈범죄도시2〉(1269만 명)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천만 영화'에 등극하는 등 마블 영화와 범죄·액션영화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5월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다. 5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79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9.5%(719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역대 5월 가운데 한국영화 최고 매출액 기록이다. 5월 한국영화 관객수는 77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7.0%(694만 명) 증가했다. 5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71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2.2%(378억 원) 증가했고, 5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68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7%(325만 명) 늘었다.

6월 전체 매출액은 1582억 원으로 2021년 6월 대비 236.3%(1111억 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9년 6월과 비교해서는 81.0% 수준이었다. 6월 전체 관객 수는 1,548만 명으로 2019년 6월의 67.7% 수준을 나타냈고, 2021년 6월 대비로는 214.0%(1055만 명) 늘었다. 지난 5월 〈범죄도시 2〉를 시작으로 6월 〈브로커〉,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등의 한국영화 기대작이 개봉해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2022년 6월 1일, 292억 원), 〈탑건: 매버릭〉

(2022년 6월 22일, 879억 원)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개봉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액과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개봉일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던 6월 1일에는 전체 매출액 147억 원, 전체 관객 수 146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별 기준으로 매출액과 관객 수 모두에서 2022년 최고 기록이었다. 10) 6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952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9.8% (889억 원) 증가하면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역대 6월 가운데한국영화 최고 매출액 기록을 세웠다. 6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93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38.1% (865만 명) 늘었다. 6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62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6%(222억 원) 증가했고, 6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61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8%(190만 명) 늘었다.

7월 전체 매출액은 1705억 원으로 2019년 7월의 92.6% 수준을 회복했고, 2021년 7월 대비로는 149.4%(1021억 원) 증가했다. 7월 전체 관객 수는 1629만 명으로 2019년 7월의 74.3% 수준을 나타냈고, 2021년 7월 대비로는 133.5%(931만 명) 증가했다. 연중 최대 성수기 여름 시즌의 시작인 7월을 맞아〈외계+인 1부〉(2022년 7월 20일, 160억 원)와〈한산: 용의 출현〉(2022년 7월 27일, 737억 원)이 일주일 간격을 두고 개봉했고, 〈헤어질 결심〉(2022년 6월 29일, 196억 원)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 개봉을 미뤄왔던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7월 개봉을 택하면서 7월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66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9.2%(453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6년간 한국영화 7월 매출액 가운데 최고치 기록이다. 7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63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9.6%(424만 명) 증가하면서 2018년 이후 5년간 한국영화 7월 관객 수 가운데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7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10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2%(568억 원) 증가했고, 7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9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6%(508만 명) 증가했다. 외국영화는 〈탑건: 매버릭〉과〈토르: 러브 앤 썬더〉(2022년 7월 6일, 295억 원)의 개봉 덕분에 전년 동월과 비교해 매출액과 관객 수가 증가했다.

8월 전체 매출액은 1523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759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8월의 72.9% 수준이다. 8월 전체 관객 수는 149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1%(705만 명)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8월의 60.3% 수준이다. 연중 최대 성수기 여름 시즌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던 한국 대작 영화가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개봉하면서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8월 전체 매출액과 관객수 모두 7월 대비 감소한 것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래로 처음이다. 8월 전체 매출액은 전월 대비 10.7%(181억 원), 8월 전체 관객 수는 전월 대비 8.2%(133만 명) 감소했다. 올해는 여름 성수기 개봉한 한국 대작 영화가 기대한 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8월에 할리우드

^{10) 2015~2019}년의 경우, 일별 관객 수 순위 1위는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 또는 여름 성수기였으나, 2022년에는 6월 1일과 5월 5일 등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직후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 2022년 일별 관객 수 순위는 6월 1일, 5월 5일(131만 명), 12월 25일(124만 명) 순이었다.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없어 7월 대비 매출액, 관객 수가 줄었다. 8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1234억 원으로 전월 대비 87.0%(574억 원), 전년 동월 대비 111.7%(651억 원) 증가했다. 8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1214만 명으로 전월 대비 91.0%(578만 명), 전년 동월 대비 101.6%(612만 명) 증가했다. 8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289억 원으로 전월 대비 72.3%(755억 원) 감소했는데, 7월 대비 매출액 감소율로는 2004년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8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59.8%(108억 원) 증가했다. 8월 외국영화 관객수는 281만 명으로 전월 대비 71.7%(712만 명)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0%(93만 명) 증가했다.

9월 전체 매출액은 1019억 원으로 2019년 9월의 81.9% 수준을 회복했다. 9월 전체 관객 수는 986만 명으로 2019년 9월의 66.9% 수준이었다. 9월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5.1%(497만 명) 증가했고, 9월 전체 관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2.2%(445만 명) 늘었다. 추석 연휴 이틀 전 개봉한 〈공조2: 인터내셔날〉(2022년 9월 7일, 709억 원)이 9월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육사오(6/45)〉(2022년 8월 24일, 198억 원)도 슬리퍼 히트를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9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91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0.1%(662억 원) 증가했고, 한국영화 관객 수는 89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7.6%(633만 명) 늘었다. 9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102억 원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으로 9월 가운데 2006년 9월(9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매출을 기록했고, 9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87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9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62.0%(166억 원) 줄었고, 9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3%(188만 명) 감소했다. 북미 극장가에서 8월 중순 이후 개봉작 중 이렇다 할 흥행작이 없었던 것이 국내 극장가에서의 외국영화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 유지)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추석 연휴 사흘간(2022년 9월 9~11일)의 전체 매출액은 291억 원, 전체 관객 수는 276만 명으로 전년 추석 연휴와 비교해 매출액은 209.7%(197억 원), 관객 수는 190.6%(181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추석 연휴 전체 매출액과 전체 관객 수를 2019년 추석 연휴(2019년 9월 12~14일)와 비교하면 전체 매출액은 19.4%(164억 원), 전체 관객 수는 31.3%(126만 명) 감소했다.

10월 전체 매출액은 61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107억 원) 증가했고, 10월 전체 관객 수는 62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4%(101만 명) 늘었다. 〈인생은 아름다워〉(2022년 9월 28일, 109억원)와 〈정직한 후보2〉(2022년 9월 28일, 84억원) 등의 한국영화가 9월 말 개봉한 덕분에 팬데믹 여파로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이 없었던 2021년 10월과 비교해서는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가 증가했다. 10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377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1%(302억원) 증가했고, 10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39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2.1%(311만명) 늘었다. 10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23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9%(194억원) 감소했다. 10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22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1%(210만명) 줄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멱잎학교〉(2022년 9월 28일, 84억원)이 국내 개봉한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DC코믹스 히어로 영화 〈블랙 아담〉(2022년 10월 19일, 80억 원)이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2021년 10월과 비교해서는 외국영화 매출액·관객 수가 감소했다.

11월 전체 매출액은 63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25억 원) 감소했고, 11월 전체 관객 수는 6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4만 명) 줄었다.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2022년 11월 9일, 222억 원)가 전편의 흥행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 극장가는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11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29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6%(196억 원) 감소했고, 11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29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7%(191만 명) 줄었다. 반면, 11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33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8%(171억 원) 증가했고, 11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34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7%(178만 명) 늘었다. 주요한 한국영화의 개봉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1월에는 사극〈올빼미〉(2022년 11월 23일, 318억 원)와〈데시벨〉(2022년 11월 16일, 88억 원) 등의 한국영화가 11월 개봉해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12월 전체 매출액은 1576억 원으로 2019년 동월의 84.5% 수준이었고, 2021년 12월 대비로는 86.6%(732억 원) 증가했다. 12월 전체 관객 수는 1417만 명으로 2019년 동월의 63.1% 수준이었고. 2021년 12월 대비로는 66.7%(567만 명) 늘었다. 〈아바타: 물의 길〉(2022년 12월 14일, 903억 원)11이 12월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영웅〉(2022년 12월 21일, 145억 원), 11월 개봉작 〈올빼미〉 등 한국영화도 12월 전체 매출액 상승에 힘을 보탰다. 12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53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6.4%(426억 원) 증가했고, 관객 수는 54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4%(437만 명) 늘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영향으로 한국 대작 영화의 개봉이 없었으나, 올해는 〈영웅〉, 〈올빼미〉 등 한국영화 기대작이 상영된 덕분에 한국영화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외국영화 매출액은 104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4%(306억 원) 증가했고. 12월 외국영화 관객 수는 87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130만 명) 늘었다. 3D·IMAX3D·4D 등 특수상영 매출 비중이 높은 〈아바타: 물의 길〉12)의 흥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국영화의 매출액 증가율이 관객 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크리스마스 시즌(2022년 12월 24~25일)의 전체 매출액은 291억 워. 관객 수는 249만 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은 141.8%(171억 원), 관객 수는 110.9%(131만 명) 증가했다. 2022년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액. 관객 수를 2019년 크리스마스 시즌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14.0%(36억 원) 증가했고, 관객 수는 17.3%(52만 명) 감소했다. 〈아바타: 물의 길〉의 흥행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매출액이 2019년 매출을 넘어섰다.

^{11) 〈}아바타: 물의 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1285억 원의 누적 매출액, 1014만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되었다.

^{12) 2023}년 1월 21일 기준 〈아바타: 물의 길〉의 전체 매출액과 관객 수에서 특수상영(3D·IMAX 3D·4D·ScreenX·Dolby Cinema 3D)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3.0%, 특수상영 관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이다.

4) 장르별 흥행추이13)

장르별 순위에서는 액션이 6,002만 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했다.14) 〈아바타: 물의 길〉(731만 명) 〈탑건: 매버릭〉(818만 명), 〈한산: 용의 출현〉(728만 명), 〈공조2: 인터내셔날〉(698만 명) 등 2022년 전체 흥행 10위권 영화 중 8편이 액션 영화였다.15) 액션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53.2%였고, 매출 점유율은 54.8%로 2022년 전체 관객 중 절반 이상이 액션 영화 관객이었다. 2022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 첫해였기에 개봉이 연기되었던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와 한국 대작 액션 영화의 개봉이 이어지면서 액션 장르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16) 범죄 장르는 1,568만 명의 관객을 모았고, 13.9%의 관객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천만 영화'였던 〈범죄도시2〉가 1,269만 명의 관객을 기록하면서 범죄 장르의 순위 상승을 주도하였다.

애니메이션은 관객 수 1,019만 명, 9.0%의 관객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하락했다. 애니메이션 장르 주요 상영작은 〈미니언즈2〉(227만 명), 〈씽2게더〉(89만 명),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84만 명) 등이다. 드라마 장르는 4위에 자리했고, 90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8.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다. 드라마 장르 주요 상영작은 〈비상선언〉(206만 명), 〈영웅〉(149만 명), 〈브로커〉(126만 명) 등으로 한국영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코미디가 관객 수 373만 명, 관객 점유율 3.3%로 5위였다.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한국영화가 우세한 장르인 코미디의 올해 주요 상영작은 〈육사오(6/45)〉(198만 명), 〈정직한 후보2〉(90만 명), 〈압꾸정〉(61만 명) 등이다.

¹³⁾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입력된 대표 장르에 따라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그러나 흥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장르를 혼용한 작품이 증가하고 있어 한 영화를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장르별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란다.

¹⁴⁾ 액션 장르는 장르별 흥행추이 집계를 시작한 2019년에도 관객 순위 1위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극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개봉이 대거 연기되었던 2020년에 2위(1위는 드라마 장르)로 한 계단 내려왔다. 그러다 개봉이 연기되었던 마블 영화를 비롯한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가 2021년 연이어 개봉하면서 2021년 액션이 흥행 장르 정상을 재탈환한 바 있다.

¹⁵⁾ 전체 흥행 매출액 순위와 전체 흥행 관객 수 순위 모두 액션 영화가 10위권에 8편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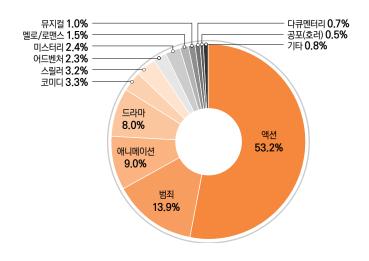
^{16) 2019}년 액션 장르의 관객 점유율은 23.8%였고, 매출 점유율은 24.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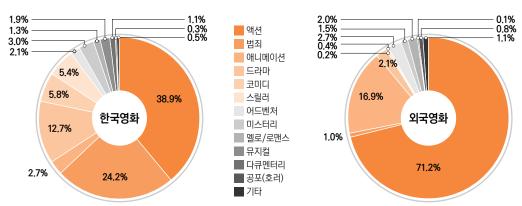
⟨표 14⟩ 2022년 장르별 관객 수 순위

(단위: 편, 원, 명, %)

							(인쉬. 핀, 편, 엉, %)
순위	장르	개봉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주요 상영작
1	액션	119	636,037,237,674	54.8%	60,022,992	53.2%	아바타: 물의 길/탑건: 매버릭/ 한산: 용의 출현/공조2: 인터내셔날
2	범죄	27	160,144,522,464	13.8%	15,684,002	13.9%	범죄도시2/자백
3	애니메이션	72	97,732,676,490	8.4%	10,190,066	9.0%	미니언즈2/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씽2게더
4	드라마	156	86,811,584,034	7.5%	9,020,566	8.0%	비상선언/영웅/브로커
5	코미디	28	36,039,665,608	3.1%	3,732,578	3.3%	육사오(6/45)/정직한 후보2
6	스릴러	35	35,306,406,955	3.0%	3,594,917	3.2%	올빼미
7	어드벤처	8	26,582,084,270	2.3%	2,712,116	2.4%	해적: 도깨비 깃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8	미스터리	18	27,573,229,291	2.4%	2,641,967	2.3%	헤어질 결심/놉
9	멜로/로맨스	45	17,218,830,901	1.5%	1,778,960	1.6%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동감
10	뮤지컬	5	11,043,264,784	1.0%	1,187,669	1.1%	인생은 아름다워
11	다큐멘터리	53	8,707,945,967	0.8%	753,292	0.7%	그대가 조국
12	공포(호러)	27	5,905,975,670	0.5%	609,399	0.5%	오펀: 천사의 탄생
13	SF	9	5,555,730,685	0.5%	349,267	0.3%	가가린
14	공연	37	2,860,596,143	0.2%	161,460	0.1%	세븐틴 파워 오브 러브 : 더 무비
15	기타	1,004	2,692,176,064	0.2%	365,811	0.3%	
	합계	1,643	1,160,211,927,000	100.0%	112,805,062	100.0%	

〈그림 17〉 2022년 전체영화 장르별 관객 수 비중





〈그림 18〉 2022년 한국영화·외국영화 장르별 관객 수 비중

5) 제작·수입·개봉편수 및 등급별 현황

2022년 전체 개봉편수는 1,643편이고, 이 중 전체 실질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81편 감소한 623편이다. 한국영화 실질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2편 증가한 226편이었고, 외국영화 실질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83편 감소한 397편이었다. 전체 실질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이 늘면서 1,000개 관 이상으로 개봉한 전체영화 실질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1,000개 관 이상으로 개봉한 전체영화 실질개봉편수는 전년과 비교해 14편 늘었다. 2022년 1,000개 관 이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실질 개봉편수는 전년 대비 6편 증가한 17편이었다.17)

		하그여히			이그여히		저궤여하			
		인국경외			되고요자		인세경와			
등급	ᅰ자편스	개봉편수		사이珥스 .	개봉	개봉편수		개봉	편수	
	세막인구	전체	실질개봉	TUTT	전체	실질개봉	수입편수	전체	실질개봉	
전체관람가	79	67	66	75	63	62	154	130	128	
12세이상관람가	123	83	78	147	118	113	270	201	191	
15세이상관람가	97	80	74	241	208	182	338	288	256	
청소년관람불가	518	473	8	1,316	551	40	1,834	1,024	48	
제한상영가 ¹⁸⁾	0	0	0	2	0	0	2	0	0	
합계	817	703	226	1,781	940	397	2,598	1,643	623	

〈표 15〉 2022년 한국영화 제작편수 및 외국영화 수입편수, 개봉편수

^{*} 상기 등급별 제작, 수입 편수는 2022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편수'를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2022년 한 해 동안의 '한국영화 제작편수'와 '외국영화 수입편수'로 보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데이터 활용 시 판단이 필요함

^{*} 등급분류 완료 작품 중 40분 이상 작품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내용 및 버전 등의 수정으로 인한 재심과 3D, 확장판, 더빙판, 감독판, 스크린X, 무삭제, 스페셜에디션 등으로 중복된 등급분류 수치는 제외하였음

^{*} 수입영화 중 재개봉영화의 경우, 국내 판권 만료 등의 이유로 수입사가 변경되어 재수입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은 수치에 포함시킴

¹⁷⁾ 개봉 스크린 수는 영화의 상영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이다.

¹⁸⁾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어 제한상영가를 받은 작품은 상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표 16〉 2022년 등급별 실질개봉작 및 형식개봉작 편수 및 비중

(단위: 편, %)

	구분	전체관	람가	12세이상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람불가	합계	
	ਜੋਦ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편수	비중
=17	실질개봉작	66	29.2%	78	34.5%	74	32.7%	8	3.5%	226	100.0%
한국 영화	형식개봉작	1	0.2%	5	1.0%	6	1.3%	465	97.5%	477	100.0%
0귀	전체개봉작	67	9.5%	83	11.8%	80	11.4%	473	67.3%	703	100.0%
017	실질개봉작	62	15.6%	113	28.5%	182	45.8%	40	10.1%	397	100.0%
외국 영화	형식개봉작	1	0.2%	5	0.9%	26	4.8%	511	94.1%	543	100.0%
0귀	전체개봉작	63	6.7%	118	12.6%	208	22.1%	551	58.6%	940	100.0%
TJ.211	실질개봉작	128	20.5%	191	30.7%	256	41.1%	48	7.7%	623	100.0%
전체 영화	형식개봉작	2	0.2%	10	1.0%	32	3.1%	976	95.7%	1,020	100.0%
	전체개봉작	130	7.9%	201	12.2%	288	17.5%	1,024	62.3%	1,643	100.0%

〈표 17〉 2022년 등급별 전체개봉작 및 실질개봉작 관객 수 및 비중

(단위: 명, %)

	구분 ·	전체관림	발 가	12세이상	<u> </u> 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림	<u></u> 불가	합계
	↑世 ·	관객 수	비중	관객 수	비중	관객 수	비중	관객 수	비중	관객 수
TJ =11	한국영화	2,228,774	24.2%	22,704,398	39.3%	36,916,677	90.2%	640,029	60.4%	62,489,878
전체 개봉작	외국영화	6,972,617	75.8%	35,037,682	60.7%	4,020,262	9.8%	419,509	39.6%	46,450,070
/1107	합계	9,201,391	100.0%	57,742,080	100.0%	40,936,939	100.0%	1,059,538	100.0%	108,939,948
, I , I I	한국영화	2,227,894	24.2%	22,704,021	39.3%	36,916,050	90.2%	633,228	60.3%	62,481,193
실질 개봉작	외국영화	6,972,483	75.8%	35,034,864	60.7%	4,019,402	9.8%	417,166	39.7%	46,443,915
	합계	9,200,377	100.0%	57,738,885	100.0%	40,935,452	100.0%	1,050,394	100.0%	108,925,108

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관객 비증은 15세이상관람가가 59.1%로 가장 높았다. 15세이상관람가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범죄도시2〉(1269만 명), 〈공조2: 인터내셔날〉(698만 명), 〈헌트〉(435만 명), 〈올빼미〉(322만 명) 순이었다. 한국영화는 액션 영화와 범죄 영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5세이상관람가가 그간 강세를 보여왔다. 『한국 영화산업 결산』 기준으로 등급별 관객 수 점유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2018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간에서 15세이상관람가가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2세이상관람가는 36.3%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고, 12세이상관람가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한산: 용의 출현〉(728만 명), 〈비상선언〉(206만 명), 〈육사오(6/45)〉,〈외계+인 1부〉(154만 명) 순이었다. 전체관람가는 3.6%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고, 흥행 순위는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45만 명),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도깨비와 7개의 세계〉(36만 명), 〈극장판 헬로카봇: 수상한 마술단의 비밀〉(23만 명) 순이었다. 한국영화 전체관람가 흥행 순위 상위권은 애니메이션이 주를 이루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1.0%의 관객 점유율을 나타냈고, 흥행 순위는 〈늑대사냥〉(46만 명),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8만 명),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6만 명) 순이다.

외국영화의 경우는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와 프랜차이즈 영화 등의 블록버스터 영화가 12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개봉하는 경우가 많아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이 강세를 보여왔다. 2022년에도 외국영화실질개봉작 관객 비중에서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이 75.4%로 가장 높았다. 외국영화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기준으로 등급별 관객 점유율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11년 연속으로 12세이상관람가 등급이 관객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외국영화 12세이상관람가 등급 흥행 순위는 〈탑건: 매버릭〉(818만명), 〈아바타: 물의 길〉(731만명),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284만명), 〈토르: 러브 앤 썬더〉(272만명) 순이었다. 전체관람가 등급 관객점유율은 15.0%였고, 흥행 순위는 〈미니언즈2〉(227만명), 〈씽2게더〉(89만명),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84만명) 순으로 상위권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15세이상관람가 등급 관객점유율은 8.7%이고, 흥행 순위는 〈더 배트맨〉(90만명), 〈극장판 주술회전 0〉(66만명), 〈모비우스〉(48만명) 순이었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관객점유율은 0.9%였고, 흥행 순위는 〈불릿 트레인〉(14만명), 〈스마일〉(11만명) 순이다.

〈표 18〉 2022년 전체개봉작 및 실질개봉작 상영등급별 개봉편수, 매출액, 관객 수

(단위: 편, 원, 명, %)

							(11.	년, 6, 70)
구	분	등급	개봉 편수	개 <mark>봉편</mark> 수 비율	매출액	매출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전체관람가	67	9.5%	23,408,898,726	3.7%	2,228,774	3.6%
	-17	12세이상관람가	83	11.8%	224,372,261,895	35.7%	22,704,398	36.3%
	한국 영화	15세이상관람가	80	11.4%	374,249,400,272	59.6%	36,916,677	59.1%
	0귀	청소년관람불가	473	67.3%	6,422,098,282	1.0%	640,029	1.0%
		합계	703	100.0%	628,452,659,175	100.0%	62,489,878	100.0%
		전체관람가	63	6.7%	66,355,303,604	13.5%	6,972,617	15.0%
T-1-11		12세이상관람가	118	12.6%	382,525,555,917	77.6%	35,037,682	75.4%
전체 개봉작	외국 영화	15세이상관람가	208	22.1%	40,032,524,086	8.1%	4,020,262	8.7%
계공격	유지	청소년관람불가	551	58.6%	4,228,441,036	0.9%	419,509	0.9%
		합계	940	100.0%	493,141,824,643	100.0%	46,450,070	100.0%
		전체관람가	130	7.9%	89,764,202,330	8.0%	9,201,391	8.4%
	TJ.211	12세이상관람가	201	12.2%	606,897,817,812	54.1%	57,742,080	53.0%
	전체 영화	15세이상관람가	288	17.5%	414,281,924,358	36.9%	40,936,939	37.6%
	유지	청소년관람불가	1,024	62.3%	10,650,539,318	0.9%	1,059,538	1.0%
		합계	1,643	100.0%	1,121,594,483,818	100.0%	108,939,948	100.0%
	÷	전체관람가	66	29.2%	23,400,978,726	3.7%	2,227,894	3.6%
		12세이상관람가	78	34.5%	224,367,534,595	35.7%	22,704,021	36.3%
	한국 영화	15세이상관람가	74	32.7%	374,243,688,572	59.6%	36,916,050	59.1%
	0귀	청소년관람불가	8	3.5%	6,388,411,282	1.0%	633,228	1.0%
		합계	226	100.0%	628,400,613,175	100.0%	62,481,193	100.0%
		전체관람가	62	15.6%	66,352,623,604	13.5%	6,972,483	15.0%
LITI	017	12세이상관람가	113	28.5%	382,511,261,357	77.6%	35,034,864	75.4%
실질 개봉작	외국 영화	15세이상관람가	182	45.8%	40,028,073,086	8.1%	4,019,402	8.7%
/11 0 1	O퓌	청소년관람불가	40	10.1%	4,216,656,036	0.9%	417,166	0.9%
		합계	397	100.0%	493,108,614,083	100.0%	46,443,915	100.0%
		전체관람가	128	20.5%	89,753,602,330	8.0%	9,200,377	8.4%
	저나라	12세이상관람가	191	30.7%	606,878,795,952	54.1%	57,738,885	53.0%
	전체 영화	15세이상관람가	256	41.1%	414,271,761,658	36.9%	40,935,452	37.6%
	어겍	청소년관람불가	48	7.7%	10,605,067,318	0.9%	1,050,394	1.0%
		합계	623	100.0%	1,121,509,227,258	100.0%	108,925,108	100.0%

6) 국적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2022년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5.7%로 전년 대비 25.6%p 증가했다. 2011년 이후 10년 연속한국영화가 관객 점유율에서 외국영화를 앞섰다가 2021년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 부족으로 11년 만에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30.1%를 기록하였다. 그러다 올해 5월 개봉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천만 영화'인〈범죄도시2〉를 시작으로〈한산: 용의 출현〉,〈공조2: 인터내셔날〉등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 흥행을 겨냥한 화제작들이 연이어 개봉한 덕분에 팬데믹 여파로 한국영화가 크게 위축되었던 전년 대비 관객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미국영화는 전년 대비 19.8%(731만 명) 늘어난 4421만 명을 동원했고,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21.8%p 감소한 39.2%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와 〈아바타: 물의 길〉, 〈탑건: 매버릭〉,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와 프랜차이즈 영화의 흥행으로 전년 대비 관객 수가 증가했으나, 한국영화 관객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일본영화는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극장판 주술회전 0〉 등의 흥행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4%(62만 명) 증가한 43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였다. 일본영화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2.3%p 줄어든 3.9%였다. 유럽영화는 전년 대비 11.1%(11만 명) 감소한 86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고,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0.8%p 줄어든 0.8%였다. 유럽영화로는 영국 국적의 〈폴: 600미터〉가 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중화권 영화는 전년 대비 36.3%(13만 명) 감소한 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관객 점유율은 전년 대비 0.4%p 줄어든 0.2%였다. 중화권 영화로는 중국 국적의 애니메이션 〈빅샤크4: 바다공룡 대모험〉이 6만 명의 관객을 기록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형식개봉작은 TV VOD 수익을 노린 한국과 일본의 성인물(에로)이 대부분이다. 성인물과 저예산 액션 영화 등의 형식개봉작은 IPTV의 VOD 상영 요건을 충족시킴과 함께 극장 동시 상영 형식을 통해 이용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극장에서 형식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한국영화 형식개봉작은 2017년 212편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477편을 기록했다. 19)

¹⁹⁾ 한국영화 형식개봉작은 2018년 260편, 2019년 303편, 2020년 450편이다.

〈표 19〉 2022년 국적별 점유율

(단위: 편, 원, 명, %)

=	국적	구분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상영작	1,181	630,980,063,869	54.4%	62,792,695	55.7%
=		전체개봉작	703	628,452,659,175	56.0%	62,489,878	57.4%
٢	한국	실질개봉작	226	628,400,613,175	56.0%	62,481,193	57.4%
		형식개봉작	477	52,046,000	61.0%	8,685	58.5%
		상영작	97	365,770,709,179	31.5%	33,922,806	30.1%
	T100	전체개봉작	45	334,175,293,670	29.8%	30,966,914	28.4%
	직배	실질개봉작	44	334,161,023,110	29.8%	30,964,100	28.4%
		형식개봉작	1	14,270,560	16.7%	2,814	19.0%
		상영작	317	107,487,327,746	9.3%	10,291,680	9.1%
	11 스이 전체개봉작 114 106,493,941,528 9.5	9.5%	10,103,060	9.3%			
미국	수입	실질개봉작	94	106,489,460,528	9.5%	10,102,159	9.3%
		형식개봉작	20	4,481,000	5.3%	901	6.1%
		상영작	414	473,258,036,925	40.8%	44,214,486	39.2%
		전체개봉작	159	440,669,235,198	39.3%	41,069,974	37.7%
	소계	실질개봉작	138	440,650,483,638	39.3%	41,066,259	37.7%
		형식개봉작	21	18,751,560	22.0%	3,715	25.0%
	•	상영작	113	2,003,441,500	0.2%	233,661	0.2%
	-1-1.	전체개봉작	57	1,463,425,490	0.1%	176,857	0,2%
중3	화권*	실질개봉작	48	1,462,447,490	0.1%	176,695	0.2%
		형식개봉작	9	978,000	1.1%	162	1.1%
		상영작	300	7,832,462,538	0.7%	864,175	0.8%
		전체개봉작	114	6,916,897,101	0.6%	748,005	0.7%
Ť	우럽	실질개봉작	107	6,915,966,101	0.6%	747,819	0.7%
		형식개봉작	7	931,000	1.1%	186	1.3%
		상영작	731	43,505,440,682	3.7%	4,383,217	3.9%
		전체개봉작	569	41,879,154,091	3.7%	4,204,376	3.9%
٩	일본	실질개봉작	73	41,866,619,091	3.7%	4,202,294	3.9%
		형식개봉작	496	12,535,000	14.7%	2,082	14.0%
		상영작	84	2,632,481,486	0.2%	316,828	0.3%
_		전체개봉작	41	2,213,112,763	0.2%	250,858	0,2%
)	'l타	실질개봉작	31	2,213,097,763	0.2%	250,848	0.2%
		형식개봉작	10	15,000	0.0%	10	0.1%
		상영작	2,823	1,160,211,927,000	100.0%	112,805,062	100.0%
_		전체개봉작	1,643	1,121,594,483,818	100.0%	108,939,948	100.0%
Ē	합계	실질개봉작	623	1,121,509,227,258	100.0%	108,925,108	100.0%
		형식개봉작	1,020	85,256,560	100.0%	14,840	100.0%

^{*} 중화권은 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함

7)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디즈니가 2년 연속 배급사 관객 점유율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디즈니의 관객 수는 19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33.2%(488만 명) 증가했고, 디즈니의 배급편수는 16편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디즈니는 〈아바타:물의 길〉(731만 명),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 명), 〈토르: 러브 앤 썬더〉(272만 명) 등을 배급했다. 2위는 롯데로 전년 대비 258.3%(1408만 명) 증가한 1954만 명을 동원했고, 배급편수는 전년에 비해 7편 늘어난 17편으로 〈탑건: 매버릭〉(818만 명), 〈한산: 용의 출현〉(728만 명) 등을 배급했다. 1위인 디즈니가 17.34%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인 롯데가 17.32%를 기록해 관객점유율은 0.02%p 차이에 불과했으나, 매출 점유율은 디즈니가 19.1%, 롯데가 17.3%로 1.8%p 차이가났다. 디즈니와 롯데의 매출액 점유율 차이가 관객 점유율에 비해 큰 것은 디즈니가 배급한 〈아바타:물의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의 영화가 3D, IMAX 등 특수상영 매출 비중이 높은 영화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바타:물의 길〉은 3D, IMAX, Dolby Cinema에서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CJ ENM은 지난해 6위였다가 올해 세 계단 올라선 3위를 기록했다. 20) 올해 CJ ENM 관객 수는 1,50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3.5%(1,094만 명) 증가했고, 배급편수는 12.5편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CJ ENM은 〈공조2: 인터내셔날〉(698만 명), 〈헤어질 결심〉(189만 명), 〈외계+인 1부〉(154만 명) 등을 배급했다. 플러스엠²¹⁾이 4위였고, 전년 대비 1,313.4%(1094만 명) 늘어난 1,17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플러스엠은 전년에 비해 1.5편 증가한 6편을 배급했고, 〈범죄도시2〉(1269만 명, 공동배급), 〈헌트〉(435만 명), 〈킹메이커〉(78만 명) 등을 배급했다. NEW는 전년 대비 264.2%(671만 명) 증가한 925만 명의 관객을 모아 5위에 자리했고, 배급편수는 전년 대비 5.5편 늘어난 16.5편이었다. NEW는 〈올빼미〉(322만 명),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281만 명) 등을 배급했다.

에이비오는 〈범죄도시2〉(1,269만 명)를 공동배급해 전년 대비 1466.7%(595만 명) 증가한 635만 명을 동원했고, 배급사 순위 7위에 자리했다. 쇼박스는 전년 대비 5.6%(17만 명) 늘어난 320만 명 관객을 모아 10위였고, 전년 대비 1편 증가한 3편을 배급했다. 쇼박스는 〈비상선언〉(206만 명), 〈압꾸정〉(61만 명) 등을 배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영화의 개봉연기로 전체영화 배급사 순위 5위권에 오른 유일한 국내배급사가 롯데였으나, 올해는 한국영화 기대작의 잇단 개봉으로 2~5위까지가 모두 한국 배급사였다.

²⁰⁾ CJ ENM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배급사 관객 점유율 순위에서 15년 연속으로 1위를 지켰고, 2018년 3위, 2019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²¹⁾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이 사명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멀티플렉스 메가박스와 브랜드를 분리했다.

〈표 20〉 2022년 전체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단위: 편, 원, 명, %)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주요 배급작
1	디즈니	16	221,547,846,199	19.1%	19,559,345	17.3%	아바타: 물의 길/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토르: 러브 앤 썬더
2	롯데	17	200,217,488,483	17.3%	19,536,214	17.3%	탑건: 매버릭/한산: 용의 출현/ 해적: 도깨비 깃발
3	CJ ENM	12.5	152,817,015,945	13.2%	15,093,479	13.4%	공조2: 인터내셔날/헤어질 결심/ 외계+인 1부/영웅
4	플러스엠	6	120,326,418,735	10.4%	11,770,521	10.4%	범죄도시2(공동배급)/헌트/킹메이커
5	NEW	16.5	91,086,865,752	7.9%	9,250,811	8.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올빼미/정직한 후보2
6	UPI	25	73,208,051,596	6.3%	7,362,065	6.5%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미니언즈2
7	에이비오	1	65,668,934,739	5.7%	6,350,468	5.6%	범죄도시2(공동배급)
8	소니	11	33,934,007,342	2.9%	3,451,758	3.1%	언차티드/모비우스
9	워너	8	33,990,807,363	2.9%	3,317,824	2.9%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더 배트맨/블랙 아담
10	쇼박스	3	31,693,981,509	2.7%	3,201,175	2.8%	비상선언/압꾸정
	기타	2,707	135,720,509,338	11.7%	13,911,403	12.3%	
	합계	2,823	1,160,211,927,000	100.0%	112,805,062	100.0%	

〈표 21〉 2022년 한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단위: 편, 원, 명, %)

순위	배급사	상영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주요 배급작
1	CJ ENM	8.5	138,773,661,187	22.0%	13,706,748	21.8%	공조2: 인터내셔날/헤어질 결심/ 외계+인 1부/영웅
2	플러스엠	6	120,326,418,735	19.1%	11,770,521	18.7%	범죄도시2(공동배급)/헌트/킹메이커
3	롯데	10	107,075,833,900	17.0%	10,791,676	17.2%	탑건: 매버릭/한산: 용의 출현/ 해적: 도깨비 깃발
4	NEW	9.5	81,799,392,894	13.0%	8,288,124	13.2%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올빼미/정직한 후보2
5	에이비오	1	65,668,934,739	10.4%	6,350,468	10.1%	범죄도시2(공동배급)
6	쇼박스	3	31,693,981,509	5.0%	3,201,175	5.1%	비상선언/압꾸정
7	마인드마크	2	12,794,808,426	2.0%	1,317,029	2.1%	데시벨
8	에이스메이커	3	12,308,998,847	2.0%	1,263,536	2.0%	경관의 피/리멤버
9	CJ CGV	12	12,420,675,338	2.0%	1,192,936	1.9%	동감/스텔라
10	싸이더스	1	9,910,162,939	1.6%	992,048	1.6%	육사오(6/45)(공동배급)
	기타	1,125	38,207,195,356	6.1%	3,918,436	6.2%	
	합계	1,181	630,980,063,869	100.0%	62,792,695	100.0%	

〈표 22〉 2022년 외국영화 배급사별 매출액·관객 점유율 순위

(단위: 편, 원, 명, %)

		상영	-11 - 211	매출액		관객	(ETI E, E, 8, 70)
순위	배급사	편수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점유율	주요 배급작
1	디즈니	16	221,547,846,199	41.9%	19,559,345	39.1%	아바타: 물의 길/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토르: 러브 앤 썬더
2	롯데	7	93,141,654,583	17.6%	8,744,538	17.5%	수퍼 소닉2/스마일
3	UPI	25	73,208,051,596	13.8%	7,362,065	14.7%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미니언즈2
4	소니	11	33,934,007,342	6.4%	3,451,758	6.9%	언차티드/모비우스
5	워너	8	33,990,807,363	6.4%	3,317,824	6.6%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더 배트맨/블랙 아담
6	CJ ENM	4	14,043,354,758	2.7%	1,386,731	2.8%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7	NEW	7	9,287,472,858	1.8%	962,687	1.9%	극장판 포켓몬스터DP: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
8	대교	1.5	6,602,938,222	1.2%	662,119	1.3%	극장판 주술회전 0
9	워터홀	4	4,122,414,511	0.8%	387,576	0.8%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10	바이포엠	0.5	3,375,067,401	0.6%	331,198	0.7%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공동배급)
	기타	1,558	35,978,248,298	6.8%	3,846,527	7.7%	
	합계	1,642	529,231,863,131	100.0%	50,012,367	100.0%	

8) 특수상영 흥행 추이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로 팬데믹 기간 중 위축되었던 영화 소비 심리가 진작되었고, 여기에 킬러 콘텐츠인 〈아바타: 물의 길〉을 비롯해 〈탑건: 매버릭〉, 〈닥터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등이 흥행하며 특수상영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특수상영 (4D·IMAX·ScreenX·Dolby Cinema) 전체 매출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2%(952억 원) 증가했다. 2022년 특수상영 전체 관객 수는 8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2.2%(619만 명) 늘었다. 2022년 특수상영 전체 매출액은 특수상영 매출액과 관객 수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최고치 기록이었다. 2022년 특수상영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이고, 특수상영 관객 수가 전체 관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다.

전체 매출에서 전체 특수상영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6%, 2019년 4.6%, 2020년 2.8%, 2021년 5.3%였는데, 2022년에는 10.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외국영화 전체 매출에서 외국영화 특수상영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8.5%, 2019년 9.0%, 2020년 7.2% 2021년 7.3%였는데, 2022년에는 21.2%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국영화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영화 전체 매출에서 한국영화 특수상영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0.7%, 2019년 0.3%, 2020년 0.8%, 2021년 0.6%, 2022년 2.3%로 2022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물론

올해 특수상영 매출 비중이 증가한 것은 〈아바타: 물의 길〉의 메가 히트로 인한 3D 관람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OTT의 부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영화 관람요금 인상으로 관객이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와 VOD 및 OTT로 봐야 하는 영화를 구분하는 경향성이 강화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영화 특수상영 매출액은 142억 원으로 전체 특수상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였고, 한국영화 특수상영 관객 수는 95만 명으로 전체 특수상영 관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였다. 외국영화 특수상영 매출액은 1121억 원으로 전체 특수상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7%였고, 외국영화 특수상영 관객 수는 769만 명으로 전체 특수상영 관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0%였다.

〈표 23〉 2018~2022년 특수상영 매출액·관객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원, 만 명, %)

					(i. E, E O, 1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영화	18,140	19,140	5,104	5,845	11,602
	전체영화 중 특수상영	826	872	143	312	1,264
	특수상영 비중	4.6%	4.6%	2.8%	5.3%	10.9%
	한국영화	9,128	9,708	3,504	1,734	6,310
극장 매출	한국영화 중 특수상영	63	27	27	11	142
	특수상영 비중	0.7%	0.3%	0.8%	0.6%	2.3%
	외국영화	9,012	9,432	1,600	4,111	5,292
	외국영화 중 특수상영	763	845	116	302	1,121
	특수상영 비중	8.5%	9.0%	7.2%	7.3%	21.2%
	전체영화	21,639	22,668	5,952	6,053	11,281
	전체영화 중 특수상영	713	758	132	246	865
	특수상영 비중	3.3%	3.3%	2.2%	4.1%	7.7%
	한국영화	11,015	11,562	4,046	1,822	6,279
관객 수	한국영화 중 특수상영	63	28	26	9	95
	특수상영 비중	0.6%	0.2%	0.6%	0.5%	1.5%
	외국영화	10,624	11,106	1,906	4,231	5,001
	외국영화 중 특수상영	650	729	106	237	769
	특수상영 비중	6.1%	6.6%	5.6%	5.6%	15.4%

2022

(단위: %) 4.6 4.6 2.8 100.0 5.3 10.9 0.08 60.0 40.0 20.0 0.0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영화 일반상영 ■ 전체영화 특수상영 0.3 8.0 0.6 2.3 100.0 100.0 8.5 9.0 7.3 7.3 21.2 0.08 80.0 60.0 60.0 92.7 92.7 40.0 40.0 78.8 20.0 20.0

〈그림 19〉 2018~2022년 전체·한국·외국영화 전체 매출액 대비 특수상영 매출액 비중 변화 추이

특수상영 중에서는 IMAX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IMAX 전체 매출은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5% (228억 원) 증가했고, 2022년 전체 특수상영 매출의 31.0%를 차지했다. IMAX 흥행 순위 1위는 〈아바타: 물의 길〉로 97억 원(45만 명)의 매출을 기록했다. 〈탑건: 매버릭〉이 54억 원(30만 명)의 매출로 2위였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45억 원(25만 명)으로 3위였다. 한국영화 중에서는 〈한산: 용의 출현〉이 20억 원(12만 명)의 IMAX 매출을 올린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2022

2021

한국영화 특수상영

0.0

2018

2019

외국영화 일반상영

2020

2021

외국영화 특수상영

0.0

2018

2019

한국영화 일반상영

2020

팬데믹으로 인해 특수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3D 상영이 2021년에는 없었으나, 2022년에는 〈아바타: 물의 길〉의 흥행으로 3D 매출이 IMAX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D 매출은 전체 매출의 30.1%에 해당하는 381억 원이었다. 3D 흥행 순위 1위는 〈아바타: 물의 길〉로 336억 원(239만 명)의 매출을 기록했고, 2위는 〈아바타 리마스터링〉으로 37억 원(22만 명)의 매출을 올렸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5억 원(4만 명)의 매출로 3위에 자리했다. 3D로 상영한 한국영화는 없었다.

4D 전체 매출은 283억으로 전년 대비 205.0%(19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특수상영 전체 매출의 22.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4D 흥행 순위 1위는 〈탑건: 매버릭〉으로 68억 원(56만 명)의 매출을 올렸다. 2위는 56억 원(40만 명)의 매출을 기록한 〈아바타: 물의 길〉이었고, 〈한산: 용의 출현〉이 31억 원(26만 명)의 매출로 3위였다. ScreenX 전체 매출액은 특수상영 전체 매출의 11.0%에 해당하는 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2.7%(102억 원) 증가했다. ScreenX 흥행 순위 1위는 〈탑건: 매버릭〉이었고, 30억 원(24만명)의 매출을 기록했다. 22억 원(18만명)의 매출로 〈아바타: 물의 길〉이 2위였고,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19억 원(15만명)의 매출로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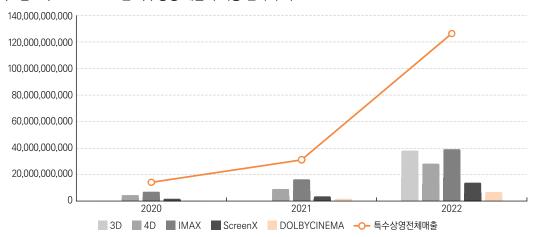
돌비 시네마(Dolby Cinema)는 전년 대비 271.2%(50억 원) 증가한 6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특수상영 전체 매출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돌비 시네마 흥행 1위는 〈아바타: 물의 길〉이고, 26억 원(15만 명)의 매출을 올렸다. 17억 원(14만 명)의 매출로 〈탑건: 매버릭〉이 2위였고, 〈닥터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5억 원(3만 명)의 매출로 3위였다. 돌비 시네마로 상영한 한국영화는 없었다.

(표 24) 2021~2022년 특수상영 관객 점유율

(단위: 편, 억 원, 만 명, %)

			202	2년			2021년					
구분	개봉 편수	상영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개봉 편수	상영 편수	매출액	매출액 점유율	관객 수	관객 점유율
3D	6	6	381	3.3%	267	2.4%	0	0	0	0.0%	0	0.0%
4D	42	54	283	2.4%	233	2.1%	41	48	93	1.6%	93	1.5%
IMAX	28	35	392	3.4%	215	1.9%	24	32	165	2.8%	106	1.7%
ScreenX	18	20	139	1.2%	103	0.9%	9	10	36	0.6%	34	0.6%
Dolby Cinema	30	37	69	0.6%	46	0.4%	31	37	18	0.3%	13	0.2%
2D	1,826	2,861	10,338	89.1%	10,415	92.3%	1,938	2,921	5,532	94.6%	5,806	95.9%
기타	2	38	0	0.0%	0	0.0%	0	93	1	0.0%	1	0.0%
합계	1,952	3,051	11,602	100.0%	11,281	100.0%	-	-	5,845	100.0%	6,053	100.0%

〈그림 20〉 2020~2022년 특수상영 매출액 비중 변화 추이



다. 극장 외 시장

2022년 극장 외시장 총 매출규모는 4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합계의 26.6%로 지난해 37.5%에 비해 10.9%p 가량 감소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극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극장 외시장의 매출이 전체 영화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을 뿐, 2022년 극장 외시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의 매출액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TV VOD 시장의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인터넷 VOD가 전년 대비 59.2% 대폭 성장하며 전체 극장 외시장 매출의 37.4%를 차지하였다.22) 여름 텐트폴 작품들이 특정 OTT 플랫폼 독점으로 계약됨에 따라 해당 작품들이 IPTV 등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슈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VD, 블루레이 등과 TV 방영권 시장의 매출이 전체 극장 외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와 5.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2년은 팬데믹 장기화로 큰 타격을 받았던 극장 시장이 반등한 해였던 만큼 극장 외 시장 역시 그 영향을 받아 고객들의 소비로 이어졌다. 2021년 말에 개봉하여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8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2022년 3월 극장 외 시장에서 VOD로 편성되었으며 '극장

매체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유통창구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부터는 극장 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 영역 중 해외 매출을 제외한 부분을 '극장 외 시장(non-theatrical market)'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매출을 집계하는 극장 외 시장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구	분	내용			
OJIOI	TV VOD	IP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온라인	인터넷 VOD	OTT 플랫폼, 웹하드플랫폼 등			
DVD·블	루레이 등	DVD, 블루레이, VHS 등 물리적 저장매체			
TV 5	방영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극장 외 시장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극장시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기에 시장 전체 통계 수치의 정확도보다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부 항목별 매출은 온라인 영화시장의 주요 사업자와 플랫폼, 그리고 국내 유수 DVD/블루레이 공급업체를 통해 집계된다. TV VOD에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매출 실적은 국내 IPTV 3사와 홈초이스를 통해, 인터넷 VOD 서비스 실적과 TV 방영권 매출은 십여 개의 주요 콘텐츠 제공업자들을 통해 취합하거나 공개된 내용을 통해 추정하고 이후, 표본 집단과 모집단간 크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을 거친다.

본 파트는 통계데이터 취합의 과정에서 각 업체별 관계자로부터 받은 2022년 극장 외 시장 산업에 대한 평가와 2023년 전망에 대한 서면의견 및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²²⁾ 인터넷 VOD가 성장세이긴 하나, 직배사 매출이 추정치로 반영되어 있어 실제 매출과 상이하다.

경험을 위한 영화'로 제작되어 더더욱 VOD와 OTT 출시를 기다리게 했던 〈탑건〉(1987)의 36년 만의후속작 〈탑건: 매버릭〉 등 대형 극장 흥행작들이 2022년 하반기 극장 외 시장에 연이어 입성하며 연 매출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3년 만에 천만 관객 돌파의 기염을 토한 〈범죄도시2〉는 VOD 시장에서도 유례없는 흥행몰이를 하며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였다. 〈아바타: 물의 길〉과 〈탑건: 매버릭〉이 극장흥행에 성공하면서 전작인 〈아바타〉(2009)와 〈탑건〉(1987) 등 원작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2〉 등 소수의 초대형 작품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흥행작의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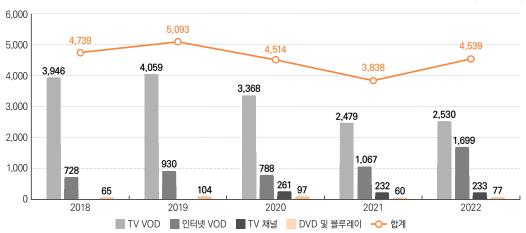
〈표 25〉 2018~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구분	매출액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온 라	TV VOD	3,946	83.3	11.4	4,059	79.7	2.9	3,368	74.6	-17.0	2,479	64.6	-26.4	2,530	55.7	2.1
인	인터넷 VOD	728	15.4	-3.2	930	18.3	27.7	788	17.5	-15.3	1,067	27.8	35.4	1,699	37.4	59.2
_)VD· ^일 레이 등	65	1.4	-3.0	104	2.0	60.0	97	2.1	-6.7	60	1.6	-38.1	77	1.7	28.3
TV	방영권	-	-	-	-	-	-	261	5.8	-	232	6.0	-11.1	233	5.1	0.4
	합계	4,739	100	8.6	5,093	100	7.5	4,514	100	-11.4	3,838	100	-15.0	4,539	100	18.3

〈그림 21〉 2018~2022년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 원)



1) TV VOD

2022년 TV VOD 시장의 매출은 2530억 원으로 소폭이지만 2019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였다. 극장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신작 영화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반등으로 인한 상승효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TV VOD 시장이 전체 극장 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작유통 프로세스를 뒤흔들며 급성장 하고 있는 OTT로 인해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21년 말 기준 IPTV 가입자는 1989만 가구,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는 1288만 가구로 집계되었다.²³⁾ 디지털케이블 TV 가입자는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년 대비 1.9%(25만) 감소한 반면, 꾸준히 가입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IPTV는 전년 대비 7.3%(135만) 증가하였다. 2019년 이후부터 디지털케이블TV, 위성방송 등 IPTV를 제외한 다른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몇 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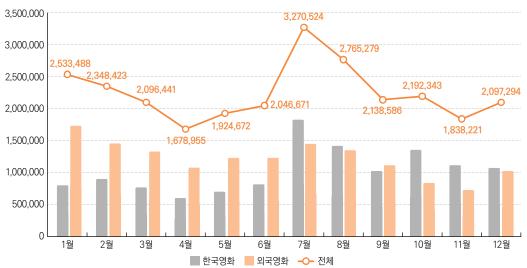
〈표 26〉 2018~2022년 TV VOD 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3,946	4,059	3,368	2,479	2,530
전년 대비 증감률	11.4%	2.9%	-17.0%	-26.4%	2.1%

〈그림 22〉 2018~2022년 TV VOD 월별 이용건수

(단위: 건)



²³⁾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계포털, 『2022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2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연기로 안방에 신작이 부족해 한국영화 월별 이용건수는 1~6월까지 60~90만 건 수준을 오르내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이후 극장 개봉한 〈범죄도시2〉가 7월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개봉이 연기되었던 한국영화 기대작이 연이어 출시하면서 7~12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한국영화 월 이용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24) 한국영화는 1월과 9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이용건수가 증가한 반면, 외국영화는 전월에 걸쳐 온라인 이용건수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영화 개봉연기로 외국영화가 반사이익을 누렸던 2021년과 달리 올해는 한국영화 화제작이 연이어 출시하면서 한국영화로 관심이쏠렸고, OT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TV VOD 시장의 회복세가 더딘 것도 외국영화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영화도 신작 출시로 전년 대비 이용건수가 증가한 것이지 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2년 한국영화 이용건수는 1239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3%(200만 건) 증가하였으나, 2019년 대비로는 57.2%(1657만 건) 감소하였다. 2022년 외국영화 이용건수는 1454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5%(637만 건)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로는 59.4%(2127만 건) 줄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전체 이용건수는 253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75만 건) 감소하였다. 1월 TV VOD 외국영화 이용건수는 173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21만 건) 감소하였으나, 2022년 외국영화 월별 이용건수로는 연중 최고치였다. 마동석의 할리우드 진출작으로 화제가 됐던 마블 영화〈이터널스〉가 1월 7일(금) 출시해 1월 한 달간 21만 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하며 1월 전체 흥행 1위를 차지하였다. 주말 포함 5일간의 설 연휴(2022년 1월 29일~2월 2일) 이용순위 1위는 〈경관의 피〉로 닷새간 11만 9409건을 기록하였고, 2위는 4만 184건을 모은 〈이터널스〉였다.

7월〈범죄도시2〉와〈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이 VOD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체영화와한국영화 모두 2022년 월별 이용건수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 한국영화 이용건수는 182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3%(95만 건) 증가하였다. 한국영화 이용건수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7월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출시가 없었던 영향으로 외국영화 7월 이용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2.6%(107만 건) 감소한 145만 건을 기록하면서 7월 전체 이용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7월 전체 이용건수는 327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2만 건) 줄었으나, 전월(6월)보다는 120만 건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여름 성수기인 8월 한국영화는 〈범죄도시2〉의 안방 흥행과〈헤어질 결심〉,〈외계+인 1부〉등의한국영화 신작이 출시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3.9%(50만 건) 증가한 142만 건의 월 이용건수를 기록하였다. 8월 전체 이용건수는 277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6%(90만 건) 감소하였다. 〈범죄도시2〉는 9월까지 3개월 연속 월 이용순위 1위를 차지했는데, 추석 연휴 나흘간(2022년 9월 9~12일)의 이용순위 1위도 〈범죄도시2〉은 대체 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 나흘간 7만 277건을 모았고, 추석 흥행 2위는 〈토르: 러브 앤 썬더〉로 6만 4392건을 기록하였다.

²⁴⁾ TV VOD 월별 이용건수는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의 월별 점유율 통계를 참고하였다.

10월에는 극장서 슬리퍼 히트를 기록한 〈육사오(6/45)〉가 10월 한 달간 24만 건을 모아 10월 이용순위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헌트〉로 10월 23만 건을 기록하였다. 10월 전체 이용건수는 219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16만 명) 감소하였다. 크리스마스 시즌(2022년 12월 24~25일)에는 극장에서 〈아바타: 물의 길〉이 메가 히트한 영향으로 전작인 〈아바타〉가 2만 8324건으로 이용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12월 전체 이용건수는 210만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30만 건) 줄었다. 12월 흥행 순위 1위는 12월 한 달간 16만 건을 모은 〈공조2: 인터내셔날〉로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이용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

2022년 TV VOD 전체영화 매출 순위에서는 〈범죄도시2〉가 140억 원(153만 건)의 매출로 1위를 차지하였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극장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첫 번째 영화였는데, 안방에서도 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TV VOD로 출시한 영화 중 매출액 100억 원과 이용건수 100만 건을 넘어선 첫 번째 영화였다. 2위는 62억 원(66만 건)의 매출을 기록한 〈공조2: 인터내셔날〉이었고, 3위는 59억 원(66만 건)의 매출을 올린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이었다. 지난해에는 한국영화 개봉연기로 인한 신작 콘텐츠 부족으로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영화가 한 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세 편의 영화가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외국영화로는 〈탑건: 매버릭〉이 45억 원(49만 건)의 매출로 4위에 오른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43억 원(49만 건)의 매출로 5위에 자리하였다. 범죄·액션 영화에 대한 안방의 선호도 여전하였다. 〈경관의 피〉와〈뜨거운 피〉모두 극장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TV VOD 매출을 기록하며 선전하였다.25〉 〈경관의 피〉는 32억 원(39만 건)의 TV VOD 매출로 전체 이용순위 9위였고,〈뜨거운 피〉는 18억 원(22만 건)의 매출로 전체 이용순위 16위였다.

〈표 27〉 2022년 TV VOD 전체영화 매출 상위 20위

(단위: 억 원, 건)

순위	영화명	극장 개봉일	매출액	이용건수
1	범죄도시2	2022-05-18	139.7	1,532,339
2	공조2: 인터내셔날	2022-09-07	62.2	655,527
3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2022-06-15	59.4	662,388
4	탑건: 매버릭	2022-06-22	45.4	493,806
5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12-15	43.0	485,855
6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2022-06-01	35.3	395,029
7	헌 <u>트</u>	2022-08-10	34.2	362,105
8	외계+인 1부	2022-07-20	32.0	348,474
9	경관의 피	2022-01-05	31.8	387,456
10	육사오(6/45)	2022-08-24	31.3	344,092

^{25) 〈}경관의 피〉는 극장에서 2022년 67억 원(68만 명)의 매출을 기록했고, 〈뜨거운 피〉는 같은 기준으로 39억 원(41만 명)의 매출을 올렸다.

순위	영화명	극장 개봉일	매출액	이용건수
11	이터널스	2021-11-03	29.2	343,104
12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05-04	28.0	331,599
13	특송	2022-01-12	24.3	312,305
14	헤어질 결심	2022-06-29	22.9	283,312
15	씽2게더	2022-01-05	21.8	232,476
16	뜨거운 피	2022-03-23	18.4	218,702
17	정직한 후보2	2022-09-28	17.8	196,112
18	킹메이커	2022-01-26	16.7	192,238
19	미니언즈2	2022-07-20	16.2	159,489
20	토르: 러브 앤 썬더	2022-07-06	16.2	187,045

〈표 28〉 2022년 TV VOD 한국영화 매출 상위 10위

(단위: 억 원, 건)

				(
순위	영화명	극장 개봉일	매출액	이용건수
1	범죄도시2	2022-05-18	139.7	1,532,339
2	공조2: 인터내셔날	2022-09-07	62.2	655,527
3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2022-06-15	59.4	662,388
4	<u>헌트</u>	2022-08-10	34.2	362,105
5	외계+인 1부	2022-07-20	32.0	348,474
6	경관의 피	2022-01-05	31.8	387,456
7	육사오(6/45)	2022-08-24	31.3	344,092
8	특송	2022-01-12	24.3	312,305
9	헤어질 결심	2022-06-29	22.9	283,312
10	뜨거운 피	2022-03-23	18.4	218,702

〈표 29〉 2022년 TV VOD 외국영화 매출 상위 10위

(단위: 억 원, 건)

순위	영화명	극장 개봉일	매출액	이용건수
1	탑건: 매버릭	2022-06-22	45.4	493,806
2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12-15	43.0	485,855
3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2022-06-01	35.3	395,029
4	이터널스	2021-11-03	29.2	343,104
5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05-04	28.0	331,599
6	씽2게더	2022-01-05	21.8	232,476
7	미니언즈2	2022-07-20	16.2	159,489
8	토르: 러브 앤 썬더	2022-07-06	16.2	187,045
9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04-13	15.9	160,495
10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2021-12-22	13.7	164,725

2) 인터넷 VOD

인터넷 VOD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59.2%로 극장 외 시장 영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점으로 대작 영화들의 극장 개봉과 함께 관객들이 극장을 다시 찾게 되면서 OTT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촉매제로 급성장한 OTT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2년에는 OTT 플랫폼에서 극장 개봉영화를 독점으로 공개하면서 홀드백을 깬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개봉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대형 극장 개봉작인 〈한산: 용의출현〉과 〈비상선언〉을 독점 공개하며 기존 영화유통의 프로세스를 무너트리는 사례가 있었다. 26) 이러한 시도에 대해 영화계와 OTT 업계에는 극장에서 손익분기점을 한참 미치지 못한 작품이 OTT의 독점계약을 통해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과 대형 OTT 플랫폼의 콘텐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OTT 시장의 지각변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광고기반 저가요금제 도입, 계정 공유 금지 등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 국내 OTT 시장 역시 순차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는 포화된 OTT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콘텐츠 투자에 집중하기보다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며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동시에 저가요금 고객확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7)

한편, 웹하드 서비스를 통한 영화 소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인터넷 VOD 시장 전체에서 OTT 서비스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은 5.4%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더 낮아졌다.

〈표 30〉 2018~2022년 인터넷 VOD 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 원)

						(= 11 1 = 7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터넷 VOD		728	930	788	1,067	1,699
	ОТТ	541	718	631	976	1,608
	ଧାଟ	74.3%	77.2%	80.1%	91.5%	94.6%
	전년 대비 증감률	-0.6%	32.7%	-12.1%		64.8%
	웹하드	187	212	157	91	91
	비중	25.7%	22.8%	19.9%	8.5%	5.4%
	전년 대비 증감률	-10.1%		-25.9%	-42.0%	0.0%
전년 대비 증감률		-3.2%	27.7%	-15.3%	35.4%	59.2%

²⁶⁾ YTN, 2022.8.24., [Y초점] '한산'→'비상선언' 집어삼킨 쿠팡... 독점 공개 앞세운 과감한 전략 https://star.ytn.co.kr/_sn/0117_202208241727310861 (2022.2.3. 최종 방문)

²⁷⁾ 전자신문 etnews, 2023.2.1., [스페셜리포트] 광고요금제·계정공유금지 등 넷플릭스발 OTT 지각변동 https://www.etnews.com/20230201000192 (2022.2.3. 최종 방문)

네이버 시리즈온 2022년 한국영화 이용 순위를 보면 같은 해 한국영화 박스오피스 흥행 상위 10위까지의 작품 중 7편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극장흥행 대작 중 특정 OTT와 독점계약 된 작품이 빠져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OTT 업체 간 콘텐츠 경쟁에 따른 독과점 이슈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후 극장 개봉 신작이 많지 않아 영화 이용 상위권 순위 작품들의 개봉연도가 다양했던 것과는 달리 2022년에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2022년 개봉작(2021년 연말 개봉작 포함)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극장 개봉 신작이 증가하고 극장에서 흥행을 거둔 작품들이 인터넷VOD에서까지 좋은 반응으로 이어가며 조금씩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괘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시리즈온과 같은 OTT 서비스는 신작 수급이 빠르고 영화100% 쿠폰과 같은 멤버십 서비스, 그리고 연말연시 무료영화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 2022년 네이버 시리즈온 영화 이용 순위

순위	한국영화		외국영화		
	제목	극장 개봉일	제목	극장 개봉일	
1	범죄도시2	2022-05-18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2021-12-15	
2	헤어질 결심	2022-06-29	탑건: 매버릭	2022-06-22	
3	공조2: 인터내셔날	2022-09-07	더 배트맨	2022-03-01	
4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2022-06-15	씽2게더	2022-01-05	
5	헌트	2022-08-10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022-05-04	
6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2022-02-23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022-04-13	
7	외계+인 1부	2022-07-20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2022-06-01	
8	경관의 피	2022-01-05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2021-12-22	
9	육사오(6/45)	2022-08-24	블랙 아담	2022-10-19	
10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2022-03-09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2022-10-12	

3) DVD·블루레이 등

2022년 DVD 및 블루레이 시장의 매출은 77억 원 정도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매출이 28.3%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두 곳 많은 업체로부터 매출 데이터를 제공받은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큰 작품과 출시작이 늘면서 DVD와 블루레이의 총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상승한 패키지 제작원가와 환율상승, 한정판 패키지 전문 제작업체 고유의 고급 사양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출의 5% 선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DVD 및 블루레이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2019년에는 애니메이션 장르의 꾸준한 인기와 마블 흥행작의 패키지 제작, 그리고 굿즈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들의 특별판 패키지가 다수 판매 매출을 올렸는데 제작원가와 환율 상승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 패키지 영역의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1월 국내에서 OTT 서비스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22년 초 한국의 홈비디오 시장을 철수한 월트 디즈니의 행보는 OTT 시장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전략과 물리적 저장매체인 DVD, 블루레이 시장의 사양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표 32〉 2018~2022년 DVD·블루레이 시장 매출 규모

(단위: 억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65	104	97	60	77
전년 대비 증감률	-3.0%	60.0%	-6.7%	-38.1%	28.3%

4) TV 방영권

2022년 한 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채널 등에 판매한 TV 방영권 매출액의 합은 233억 원으로 전년도(232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라. 해외 수출28)

1) 한국영화 해외 수출

2022년은 해외 수출 분야에 있어서는 회복의 해를 넘어, 성장의 해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만 개최되던 필름마켓들이 대면마켓으로 복귀하면서 수출 판로가 다시 확보되었고, 글로벌 OTT로부터 촉발된 한국 콘텐츠에 대하여 높아진 관심 또한 해외 수출에 있어 호재로 작용하였다. 2022년 한국영화해외 수출 부문 총액은 총 71,465,380달러로, 이 금액은 2021년 집계금액인 48,631,018달러보다 47.0% 증가한 실적이다.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금액은 총 71,440,380달러로 전년 대비 66.0% 상승하였는데, 이는 한국영화수출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던 2005년 7599만 달러 이후 최고 기록이다. 한편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수출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감소폭은 99.6%에 달했다. 그러나 본 통계에서는 기술서비스 분야가이미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수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통계를 근거로 한국영화 기술서비스 부문의 수출 규모가 위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본 통계에는 한국영화 투자배급사의 해외영업 부문 혹은 한국영화 전문 해외세일즈사, 기술서비스사의 마켓 계약 실적, 개별 활동을 통한 계약실적만을 집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국영화해외 진출 양상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수출 실적의 확연한 증가세는 한국영화해외 수출의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표 33) 2018~2022년 한국영화 해외 수출 실적 변화 추이

(단위: USD)

						, ,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완성작 수출	계약금액	37,436,403	36,276,567	51,290,400	39,763,074	69,927,595
	현지배급수익	4,170,844	1,600,749	2,866,580	3,269,944	1,512,785
	소계	41,607,247	37,877,316	54,156,980	43,033,018	71,440,380
	기술서비스 수출	35,361,845	19,089,682	9,761,760	5,598,000	25,000
서비스 수출	로케이션 유치	3,395,117	16,815,191	19,686,314	-	-
	소계	38,756,962	35,904,873	29,448,074	5,598,000	25,000
합계		80,364,209	73,782,189	83,605,054	48,631,018	71,465,380
전년 대비 증감률		-32.3%	-8.2%	13.3%	-41.8%	47.0%

^{*} 본 부문의 모든 금액은 별도의 환율기준율을 적용하여 USD로 일괄 변경하였음

28)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출을 집계하는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내용		
완성작 수출	계약 실적	한국영화 완성작의 수출 계약 실적		
	현지배급수익	기 수출작의 추기수익(overage), 현지 직배 수익 등		
서비스 수출	기술서비스 수출	VFX 작업 수주, 장비 수출 등 기술서비스 수출 실적		
	로케이션 유치	해외 작품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발생하는 국내 집행 금액		

^{*} 해외 글로벌 OTT로 판매된 매출액은 해외 판매로 분류하여 완성작 수출액(계약금액)에 포함함. 단, 개별 배급사에서 부가판권 개념으로 판매한 일부 작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

2) 완성작 수출 부문

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총액은 71,440,380달러로 전년 대비 66.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해 연도에 체결된 계약금액은 69,927,595달러로 총액의 97.8%를 차지하였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가 본격화된 2021년과 비교하여 75.9% 증가한 수치이며, 의외의 증가세를 보인 2020년 (51,290,400달러)과 비교해도 31.9% 증가한 수치로, 완성작 수출 부문에서 2005년에 기록한 75,994,580달러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극장 개봉을 미루고 있던 영화들이 개봉에 나서며 해외 수출 라인업이 확대되었고, 특히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다수의 작품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OTT 시리즈물로부터 시작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수출 실적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재개된 칸 국제영화제를 통해 최초 공개된 〈헤어질 결심〉과〈브로커〉는 칸 마켓을 통해 각각 192개국, 171개국에 선판매 되었다. 마찬가지로 해외 영화제가 먼저 주목한〈헌트〉와〈늑대사냥〉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었다. 전작의 성공으로 흥행이 약속된 속편에 대한 높은 관심은〈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공조 2: 인터내셔날〉의 판매 성과로도 이어졌는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내 극장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범죄도시2〉의 흥행은〈범죄도시3〉의 선판매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3년 2부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외계+인〉은 1, 2부가 함께 큰 관심을 받았다.

반면 현지 배급수익은 1,512,785달러로 전년 대비 53.7% 감소한 수치이나, 전체 계약금액의 증가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표 34)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변화 추이

(단위: USD)

					(= 1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외매출 총액	41,607,247	37,877,316	54,156,980	43,033,018	71,440,380
계약금액	37,436,403	36,276,567	51,290,400	39,763,074	69,927,595
현지배급수익	4,170,844	1,600,749	2,866,580	3,269,944	1,512,785
전년 대비 증감률	2.2%	-9.0%	43.0%	-20.5%	66.0%
수출 편수(편)	603	574	975	809	776
편당 평균 수출가	62,084	63,200	52,606	49,151	90,113

^{*} 현지배급수익은 MG계약에서 발생하는 추가수익(overage)이나 RS계약에 따른 수익, 현지 직접 배급에 따른 수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난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부터 기존의 추가수익이란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해 오고 있음

^{*} 수출 편수는 신규 계약 건수만을 의미하며, 현지배급수익 발생 작품 수는 포함하지 않음

^{*} 평균 수출가 = 계약금액 / 수출 편수



〈그림 23〉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수출 변화 추이

2022년 한국영화 수출액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48.2%의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

반면 '전 세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계약금액은 크게 늘어났는데, 2020년 달성한 역대 최대치 (22,138,400달러) 이후 두 번째로 큰 금액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로 직행한 작품들의 매출액이 반영되었는데, 2022년에도 〈승부〉 등의 작품이 OTT행을 택하며 나타난 결과이다. 코로나19의 완화로 극장 개봉이 재개되었지만, 일부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전 세계' 매출액의 비중이 다시금 크게 늘어난 데다, 다수 권역을 커버하는 글로벌 세일즈 회사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극장 관람요금의 상승, OTT 구독 인구 증가세의 정체,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증가 등의 외부 환경이 향후 '전 세계'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어 유럽 9,507,462달러(13.3%)과 북미 5,818,835달러(8.1%)에서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며, 전체 비중 또한 늘어났다.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각각 1.8%, 0,4%, 0.2%를 차지하여, 전체 수출 금액에 비해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의 증가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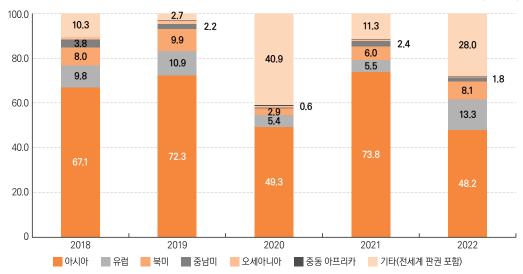
〈표 35〉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USD)

							2021			
구분	2018		2019	2019		2020			2022	
TE	금액	비중								
아시아	27,924,327	67.1%	27,403,357	72.3%	26,712,089	49.3%	31,768,205	73.8%	34,408,677	48.2%
북미	4,057,565	9.8%	4,133,177	10.9%	2,935,543	5.4%	2,371,203	5.5%	9,507,462	13.3%
유럽	3,313,223	8.0%	3,762,036	9.9%	1,547,411	2.9%	2,570,002	6.0%	5,818,835	8.1%
중남미	1,582,428	3.8%	824,821	2.2%	308,500	0.6%	1,020,000	2.4%	1,270,546	1.8%
오세아니아	339,644	0.8%	612,478	1.6%	317,320	0.6%	264,880	0.6%	295,888	0.4%
중동/아프리카	92,560	0.2%	121,447	0.3%	197,717	0.4%	181,520	0.4%	163,210	0.2%
기타(전 세계 포함)	4,297,500	10.3%	1,020,000	2.7%	22,138,400	40.9%	4,857,208	11.3%	19,975,762	28.0%
합계	41,607,247	100.%	37,877,316	100.%	54,156,980	100.%	43,033,018	100.%	71,440,380	100.%

〈그림 24〉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권역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한국영화 완성작의 국가별 수출실적은 여러 국가를 커버하고 있는 현지수입사의 경우에는 대표지역을 지정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므로, 2021년에 비해 새롭게 순위권에 등장한 국가들이 있다. 그럼에도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한국영화의 주요 타깃 시장임을 보여준다.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던 대만은 다시 1위로 복귀하였다. 3위를 차지했던 2021년에도 15.5%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46.2% 증가하였다. 반면 2021년 최고치를 달성했던 대중국 수출은 1,961,100달러로 76.6% 급감하였다. 〈원더랜드〉등 신작 기대작과 구작, 리메이크 판권 등이 고르게 판매되었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부가판권 판매만이 주를 이루며 계약 금액이 축소되었다.

순위에 새롭게 등장한, 프랑스는 전년 538,918달러의 계약금액으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에서 459.2%나 상승한 3,014,006달러의 계약 금액을 기록하였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헤어질 결심〉, 〈브로커〉, 〈헌트〉, 〈다음 소희〉 등이 활발하게 거래된 결과이다. 한편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194,115달러의 계약금액에서 411.1% 상승한 992,156달러의 계약금액을 달성하며, 전체 대비 0.5%의 비중에서 1.4%의 비중으로 증가하였다. 하나의 현지수입사가 다수의 국가를 커버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한 중남미에서는, 대우루과이 수출금액이 701,408달러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하는 OTT 플랫폼과의 거래와 다수 권역을 커버하는 글로벌 세일즈 회사의 증가에 따라 국가별 수출 실적에 포함할 수 없는 기타 지역의 계약금액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해당 통계는 한국영화의 주요 수입 국가를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2020~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국가별 수출 실적

(단위: USD)

순위	2020				2021		2022		
正刊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대 만	7,924,412	14.6%	중국	8,396,220	19.5%	대 만	9,779,476	13.7%
2	일 본	5,110,593	9.4%	일 본	6,963,322	16.2%	일 본	9,212,205	12.9%
3	싱가포르	3,798,225	7.0%	대 만	6,690,404	15.5%	미국	5,814,455	8.1%
4	홍콩	2,467,961	4.6%	싱가포르	4,295,609	10.0%	싱가포르	5,869,534	8.2%
5	중국	2,448,126	4.5%	미국	4,452,554	10.3%	홍콩	4,418,580	6.2%
6	미국	1,525,595	2.8%	홍콩	1,414,200	3.3%	프랑스	3,104,006	4.3%
7	베트남	1,242,103	2.3%	독 일	762,728	1.8%	중국	1,961,100	2.7%
8	독 일	824,857	1.5%	말레이시아	625,500	1.5%	러시아	992,156	1.4%
9	말레이시아	799,000	1.5%	태 국	490,584	1.1%	우루과이	701,408	1.0%
10	필리핀	494,500	0.9%	필리핀	478,000	1.1%	베트남	618,000	0.9%

완성작 중 당해 연도 수출실적을 판권유형별로 살펴보면 전 판권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 판권 비중의 증가(84.0%)는 플랫폼의 다변화와 소비 행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선호한 것이 원인이라 분석한 바 있는데, 2021년에는 OTT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극장판권을 제외한 부가 판권의 비중이 증가(23.7%)한 것으로 나타나,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시장의 수요에 따른 판권유형의 변화는 향후의 통계를 통해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21년 중국을 필두로 미국, 스페인, 인도와의 리메이크 계약 성과로 최고치를 기록한 리메이크 판권의 경우 2022년에는 그 수치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중국 수출액도 급감하여, 비공식적인 한한령의 영향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리메이크 판권 중 중국과의 계약 비중이 66.8%에 이르러, 중국은 여전히 한국영화의 리메이크 수요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뒤를 이어 인도(29.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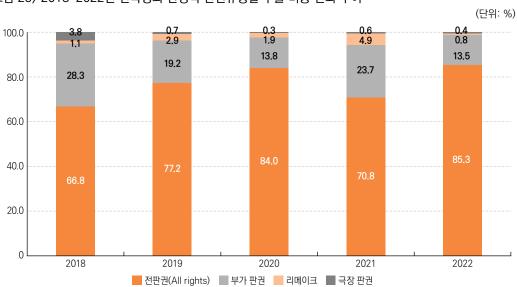
〈표 37〉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판권유형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단위: USD)

									(1. 03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千正	금액	비중								
전 판권 (All Rights)	24,992,022	66.8%	28,003,695	77.2%	43,067,316	84.0%	28,169,557	70.8%	59,652,042	85.3%
부가 판권	10,611,481	28.3%	6,963,872	19.2%	7,095,358	13.8%	9,408,078	23.7%	9,461,789	13.5%
리메이크 판권	410,000	1.1%	1,038,000	2.9%	997,126	1.9%	1,942,500	4.9%	554,211	0.8%
극장 판권	1,422,900	3.8%	271,000	0.7%	130,600	0.3%	242,939	0.6%	259,554	0.4%
합계	37,436,403	100%	36,276,567	100%	51,290,400	100%	39,763,074	100%	69,927,595	100%

^{*} 본 수치는 완성작 수출액에서 현지배급수익을 제외한 것임

〈그림 25〉 2018~2022년 한국영화 완성작 판권유형별 수출 비중 변화 추이



마. 독립·예술영화²⁹⁾

1) 독립·예술영화 극장흥행

2022년 개봉한 전체 독립·예술영화는 총 357편으로, 2021년 450편과 비교하였을 때 20.7% 감소한 수치이다. 전체영화 개봉편수에서 독립·예술영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5.8%p 감소한 21.7%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382만 명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다.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수는 2016년 968만 명, 2017년 979만 명으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전체 영화 관객수에서 독립·예술영화 관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독립·예술영화 매출액은 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독립·예술영화 매출액이 가장 높았던 2017년 독립·예술영화 매출액인 730억 원의 약 48%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년 대비 3.2%p 떨어진 3.0%에 그쳤다.

〈표 38〉 2018~2022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단위: 편, 명,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영화	1,646	1,740	1,693	1,637	1,643
개봉	전체 독립・예술영화	496	409	356	450	357
편수	독립·예술영화 증감률	-0.6%	-17.5%	-13.0%	26.4%	-20.7%
	전체 대비 비중	30.1%	23.5%	21.0%	27.5%	21.7%
	전체영화	216,385,720	226,679,573	59,524,438	60,528,229	112,805,062
관객 수	전체 독립・예술영화	8,579,356	8,096,679	4,656,754	4,226,710	3,821,282
선색구	독립·예술영화 증감률	-12.3%	<i>-5.6%</i>	-42.5%	-9.2%	-9.6%
	전체 대비 비중	4.0%	3.6%	7.8%	7.0%	3.4%
	전체영화	1,813,967,070,138	1,913,996,351,168	510,377,556,191	584,488,561,900	1,160,211,927,000
매출액	전체 독립・예술영화	61,066,664,685	63,516,968,467	37,683,840,641	35,957,908,670	35,347,624,956
메돌액	독립·예술영화 증감률	-16.4%	4.0%	-40.7%	-4.6%	-1.7%
	전체 대비 비중	3.4%	3.3%	7.4%	6.2%	3.0%

^{*} 전국 관객 수와 매출액은 상영작 기준

^{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한 영화를 말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및 심사운영 세칙에 따라 인정 심사를 거쳐 심사기준을 충족한 영화들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독립·예술영화로 등록한다.

코로나19 발생 3년차에 접어든 2022년 관객 수와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86.4%, 98.5%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와 매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속적인 하향세를 그리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상승한 영화 관람요금과 달라진 관객들의 영화소비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비춰진다.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영화와 전체 독립·예술영화의 수치를 함께 살펴보았다.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는 131편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독립·예술영화 편수 역시 357편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전체 독립·예술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7%로 오히려 지난해 보다 3.1%p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영화 개봉편수는 1,643편로 전년 보다 근소하게 증가하여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8.0%로 전년 대비 1.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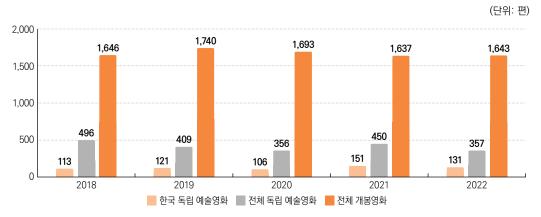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25만 명이었고, 매출액은 8.6% 증가한 108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관객 수와 매출액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체 관객 수와 매출액 상승폭이 커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낮아졌다. 그간 개봉을 미루던 상영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하며,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가 전체 영화관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전년 대비 0.9%p 낮아졌다. 매출액 비중 역시 전년 대비 0.8%p감소한 0.9%로, 1%를 넘지 못하였다.

〈표 39〉 2018~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관객 수, 매출액

(단위: 편, 명,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독립・예술영화	113	121	106	151	131
-u	전체영화	1,646	1,740	1,693	1,637	1,643
개봉 편수	<i>전체 대비 비중</i>	6.9%	7.0%	6.3%	9.2%	8.0%
L 1	전체 독립・예술영화	496	409	356	450	357
	독립·예술 대비 비중	22.8%	29.6%	29.8%	33.6%	36.7%
	한국 독립・예술영화	1,104,499	2,892,356	757,320	1,238,471	1,246,021
	전체영화	216,385,720	226,679,573	59,524,438	60,528,229	112,805,062
관객 수	전체 대비 비중	0.5%	1.3%	1.3%	2.0%	1.1%
	전체 독립 · 예술영화	8,579,356	8,096,679	4,656,754	4,226,710	3,821,282
	독립·예술 대비 비중	12.9%	35.7%	16.3%	29.3%	32.6%
	한국 독립・예술영화	8,807,262,388	22,625,860,420	6,036,497,850	9,986,483,152	10,843,177,441
	전체영화	1,813,967,070,138	1,913,996,351,168	510,377,556,191	584,488,561,900	1,160,211,927,000
매출액	전체 대비 비중	0.5%	1.2%	1.2%	1.7%	0.9%
	전체 독립・예술영화	61,066,664,685	63,516,968,467	37,683,840,641	35,957,908,670	35,347,624,956
	독립·예술 대비 비중	14.4%	35.6%	16.0%	27.8%	30.7%





〈그림 27〉 2018~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 매출액



2022년 전체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흥행 1위는 6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일본 로맨스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30〉가 차지하였다. 개봉 1일차 199개 스크린에서 상영을 시작하였으나 12월에는 최대 439개까지 스크린 수가 늘어났다. 국내 인지도 있는 유명 배우 효과 없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과 입소문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멀티버스를 소재로한 미국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38만 명이 관람하였다. 독특한 세계관과 양자경, 키 호이 콴을 비롯한 여러 배우들의 파격적인 변신 및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3위는 33만 관객을 동원한 이승준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으로 상영관 확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례적으로 600개 이상 스크린에서 상영하여, 한국 독립·예술영화로는 유일하게 10만 관객 이상을 모았다.

^{30)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2023년 1월 29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22년 한국 독립영화 흥행 순위를 살펴보면 〈그대가 조국〉, 〈나의 촛불〉, 〈아치의 노래, 정태춘〉과 같은 다큐멘터리와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 대소동〉 같은 애니메이션 장르가 선전하였다. 이 중 전체 독립·예술영화 흥행 10위 안에 든 영화는 〈그대가 조국〉, 〈대무가〉, 〈나의 촛불〉 단 3편이었다. 이 외에는 〈봄날〉, 〈크리스마스 캐럴〉, 〈카시오페아〉 같이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 장르도 호평을 받았다.

외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상위 10위에는 비교적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영화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국내 영화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국적별 점유율을 가지는 미국, 일본 외에도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노르웨이), 매즈 미켈슨 주연의 〈어나더 라운드〉(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유럽영화들이 3만 명 이상 관객을 동원하였다.

〈표 40〉 2022년 전체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단위: 개, 원, 명)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스크린수	매출액	관객 수	배급사
1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022-11-30	12세	일본	258	6,750,134,802	662,395	(주)바이포엠스튜디오, 홀리가든
2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2022-10-12	15세	미국	620	4,078,243,141	383,373	워터홀컴퍼니(주)
3	그대가 조국	2022-05-25	12세	한국	601	3,110,252,870	333,633	(주)엣나인필름
4	안테벨룸	2022-02-23	15세	미국	638	899,691,250	95,983	(주)올스타엔터테인먼트
5	스펜서	2022-03-16	12세	영국	730	782,912,830	83,152	(주)영화특별시에스엠씨, 그린나래미디어(주)
6	바다 탐험대 옥토넛 : 탐험선 대작전	2022-08-11	전체	영국	241	746,170,950	79,113	와이드 릴리즈(주)
7	대무가	2022-10-12	15세	한국	587	571,289,256	63,431	판씨네마(주), (주)케이티알파
8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2022-10-05	전체	한국	531	493,898,813	54,143	NEW, (주)블루라벨픽쳐스
9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2022-08-25	15세	노르웨이	68	469,596,171	46,201	그린나래미디어(주), (주)하이스트레인저
10	나의 촛불	2022-02-10	전체	한국	294	405,835,950	42,123	트윈플러스파트너스(주)

〈표 41〉 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단위: 개, 원, 명)

순위	영화명	감독	개봉일	등급	스크린 수	매출액	관객 수	배급사
1	그대가 조국	이승준	2022-05-25	12세	601	3,110,252,870	333,633	(주)엣나인필름
2	대무가	이한종	2022-10-12	15세	587	571,289,256	63,431	판씨네마(주), (주)케이티알파
3	고고다이노 극장판: 얼음공룡의 비밀	이선명	2022-10-05	전체	531	493,898,813	54,143	NEW, (주)블루라벨픽쳐스
4	나의 촛불	김의성 주진우	2022-02-10	전체	294	405,835,950	42,123	트윈플러스파트너스(주)
5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2: 원더스타 콘서트 대작전	김수경	2022-12-21	전체	432	380,743,121	40,776	NEW
6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고영재	2022-05-18	전체	149	333,236,210	35,094	NEW
7	극장판 윌벤져스 : 수상한 캠핑 대소동	신창환 류정우	2022-06-23	전체	110	293,037,800	29,432	(주)대교 미디어콘텐츠사업본부
8	봄날	이돈구	2022-04-27	15세	455	239,876,830	34,236	(주)콘텐츠판다
9	크리스마스 캐럴	김성수	2022-12-07	청불	410	227,011,380	24,235	(주)디스테이션
10	카시오페아	신연식	2022-06-01	12세	175	211,378,300	24,207	(주)트리플픽쳐스

〈표 42〉 2022년 외국 독립·예술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단위: 개, 원, 명)

순위	영화명	개봉일	등급	국적	스크린 수	매출액	관객 수	배급사
1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022-11-30	12세	일본	258	6,750,134,802	662,395	(주)바이포엠스튜디오, 홀리가든
2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2022-10-12	15세	미국	620	4,078,243,141	383,373	워터홀컴퍼니(주)
3	안테벨룸	2022-02-23	15세	미국	638	899,691,250	95,983	(주)올스타엔터테인먼트
4	스펜서	2022-03-16	12세	영국	730	782,912,830	83,152	(주)영화특별시에스엠씨, 그린나래미디어(주)
5	바다 탐험대 옥토넛 : 탐험선 대작전	2022-08-11	전체	영국	241	746,170,950	79,113	와이드 릴리즈(주)
6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2022-08-25	15세	노르웨이	68	469,596,171	46,201	그린나래미디어(주), (주)하이스트레인저
7	애프터 양	2022-06-01	전체	미국	161	389,758,300	40,233	(주)영화특별시에스엠씨, 주식회사 왓챠
8	어쩌다 공주, 닭냥이 왕자를 부탁해!	2022-09-08	전체	프랑스	306	386,597,280	41,049	(주)팝엔터테인먼트
9	어나더 라운드	2022-01-19	15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175	336,856,354	36,299	(주)엣나인필름
10	썸머 필름을 타고!	2022-07-20	전체	일본	65	312,069,026	33,011	(주)싸이더스, (주)블루라벨픽쳐스

2) 한국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현황

2022년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작품공모 출품 편수로 가늠한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는 1,574편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2021년 이후 출품 편수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예측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최다 출품 편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감소하였던 장편 출품 편수는 전년 대비 33편, 약 28.0% 증가한 151편이었고, 단편 출품 편수는 1,423편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장편의 경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심화로 완료되지 못하였던 작품들이 2022년 완성 후출품되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극장 산업의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독립영화 제작이 지속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작자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표 43〉 2018~2022년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

(단위: 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치	헤 한국 독립영화	1,244	1,368	1,433	1,550	1,574
스테시티		단편(중편 포함)	1,125	1,244	1,290	1,432	1,423
세식인구		장편	119	120	143	118	151
	전체 한국영화		501	609	807	804	817
	ē/:	국 독립영화(장편) 제작 비중	23.8%	19.7%	17.7%	14.7%	18.5%

^{*} 전체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연도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편수'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한국 장편 독립영화의 2022년 개봉편수는 124편이었다. 한국 독립·예술영화로 인정받은 131편 중 단 7편만을 제외한 수치이다. 한국 독립영화 개봉작 124편의 평균 상영횟수는 796회로 전체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226편의 평균 상영횟수인 13,422회의 약 5.9% 수준에 불과하다. 124편 중 16.9%에 해당하는 21편만이 총 1,000회 이상 상영하였는데 이 중 상영횟수 4,000회를 넘는 작품은 5편에 불과하였다. 해당하는 5편은 모두 한국 독립·예술영화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작품이었으며, 1위인〈그대가 조국〉단 한 편만이 상영횟수 10,000회 이상을 기록하였다. 반대로 1,000회 미만인 작품은 103편이었고 그 가운데서 총 상영횟수가 100회 미만인 작품도 28편에 달하였다. 전체 한국 독립영화의 15.3%인 19편이 총 관객 수 1만 명 이상을 동원하였고, 12.1%에 해당하는 15편이 1억 원 이상의 극장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표 44〉 2018~2022년 한국 장편 독립영화 제작편수 대비 개봉편수

(단위: 편)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장편)	119	120	143	118	151
한국 독립영화 개봉편수(장편)	88	106	96	147	124
제작 대비 개봉 비중	73.9%	88.3%	67.1%	124.6%	82.1%

^{*} 독립영화 개봉편수는 해당 연도 개봉작 중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인정을 득한 영화임

3) 독립·예술영화 인정현황31)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심사 결과 2022년 독립영화 인정 작품은 총 364편으로 그 중 승인된 작품은 301편,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된 작품은 63편이었다. 전체 신청편수인 454편 중 80.2%가 독립영화로 인정받았다. 심사 대상작은 153편으로 30편이 불인정, 60편이 심사제외 되었다. 예술영화는 승인 작품이 309편, 심사를 통해 인정된 작품이 63편으로 전체 신청편수인 513편의 72.5%에 해당하는 총 372편의 영화가 예술영화로 인정받았다. 심사 대상작 204편 중 110편이 불인정, 31편이 심사제외 되었으며, 심사 대상작의 약 30.8%에 해당하는 63편만이 인정되었다.

〈표 45〉 2022년 독립·예술영화 승인 및 심사인정 현황

(단위: 편)

	독립영화		예술영화				
승	인	301	승	인	309		
	인정	63		인정	63		
심사	불인정 30	 심사	불인정	110			
	심사제외	60		심사제외	31		
	소계	153		소계	204		
 전체 신	전체 신청편수		전체 신청편수		513		
독립영화 승인/인정		364	예술영화	승인/인정	372		

^{*} 한 영화가 심사결과 발표 후 재심을 신청한 경우 최종 결과를 반영하였음

³¹⁾ 본 결산에 수록된 독립·예술영화 인정 기준은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2022. 6. 29. 제정)과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운영 세칙(2022. 7. 18. 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과 세칙은 인정심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에 있던 각각의 규정과 세칙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신규 제정한 것이다.

〈표 46〉 독립·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업무 규정 및 심사운영 세칙 심사기준

	독립영화 심사기준		예술영화 심사기준
심사 기준	①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의 투자·제작·배급 방식으로부터 탈피한 영화로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2. 편견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표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3.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제를 제기하는 영화	심사 기준	 심미적 가치를 인정받고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한 영화로서,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작가영화를 비롯해 창작자의 독창적 세계와 실험적 시도가 돋보이는 영화 다양한 개인, 집단, 사회, 국가를 다룸으로써 교류를 증진하는 영화 사회·문화적 유산으로 폭넓은 공유와 지속적 보존이 요구되는 영화
자동 인정	1.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 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 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3. 3회 이상 개최된 국제/국내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영화진흥위원회〈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4. 영화진흥위원회 당해연도〈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항공권 구입비 지원 대상 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지원 대상 영화제 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5.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영화(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6. 극장 등의 상영확인서를 제출하는 단편 영화	자동 인정	1.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개봉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장· 단편 영화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예 술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 거나 배급되는 장·단편 영화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1% 이내인 형식의 장·단편 영화 4. 3회 이상 개최된 국제/국내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 영화진흥위원회〈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지원 대상 영화제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5. 영화진흥위원회 당해연도〈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 사업〉항공권 구입비 지원 대상 영화제, 직전년도 3개년〈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지원 대상 영화제 에서 상영되거나 수상한 장·단편 영화 6.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영화(배급사 영화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심사제외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 및 투자 영화. 단, 독립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 플렉스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단편영화는 자동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정 제도의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심사 제외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규모가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 이상 동시 개봉한 경우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 플렉스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던 적 있는 국내외 재개봉 작품. 단, 규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작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은 자동인정 할 수 있다. 단편영화는 자동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작품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정 제도의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바. 극장 현황

1) 극장32)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극장 수는 561개로 전년보다 19개(3.5%) 증가하였다.33) 스크린 수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22년 전체 스크린 수는 68개(2.1%) 증가한 3,322개였다. 극장 수와 스크린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좌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2년 전체 좌석 수는 전년 대비 3,700개(0.8%) 감소한 466,680개로 나타났다.

2022년은 극장 수와 스크린 수가 증가한 데 비해 좌석 수가 감소한 것이 특징이었다. 최근 5년간 (2018~2022년) 극장 수가 증가하였으나, 좌석 수가 감소한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34) 이는 코로나19와 OTT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극장이 관람 경험을 차별화하는데 방점을 찍으면서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 신규 개관한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직영 극장의 절반이 전 좌석 프리미엄 좌석이 있는 특별관이거나 이를 포함한 극장이었다. 또한, 2022년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소규모 좌석의 작은영화관들이 재개관하거나, 신규 개관하면서 극장 수증가 대비 좌석 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7〉 2013~2022년 연도별 전국 극장 수, 스크린, 좌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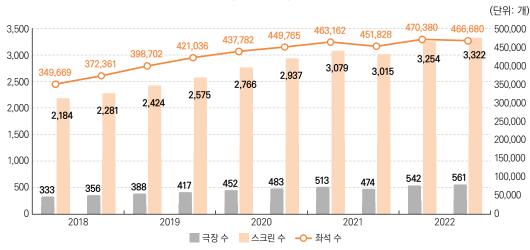
(단위: 만명,개)

연도	총 관객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2013	21,335	333	2,184	349,669
2014	21,506	356	2,281	372,361
2015	21,729	388	2,424	398,702
2016	21,702	417	2,575	421,036
2017	21,987	452	2,766	437,782
2018	21,639	483	2,937	449,765
2019	22,668	513	3,079	463,162
2020	5,952	474	3,015	451,828
2021	6,053	542	3,254	470,380
2022	11,281	561	3,322	466,680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는 "영화상영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연간 영화상영일수가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 기간이 30일 이내)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을 "비상설상영장"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분석 및 발표하는 극장 관련 통계에서의 '극장'은 이런 비상설상영장과 자동차극장 등을 제외한 '영화상영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³³⁾ 본 수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극장 조사〉 결과에 따르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치로, 기준일 당시 휴관 및 폐관 극장은 제외하였으며, 기준일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 시점의 수치로 대체하였다.

^{34) 2020}년에도 좌석 수는 2019년 463,162개 대비 2.4% 감소한 451,828개였으나, 2020년에는 극장 수 또한 2019년 513개에서 474개로 7.6% 감소하였다.



〈그림 28〉 2013~2022년 연도별 전국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극장 수가 전체 극장의 24.8%에 해당하는 139개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극장 수가 4개로 가장 적었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극장 수가 증가했던 전년과 달리, 2022년에는 7곳의 지역에서 극장 수가 변동이 없거나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의 극장 수가 증가하며 최대 10개의 극장이 증가했던 작년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하였다. 경기가전년 대비 7개의 극장이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감수를 기록하였고, 강원이 작년 대비 16.7%(4개)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감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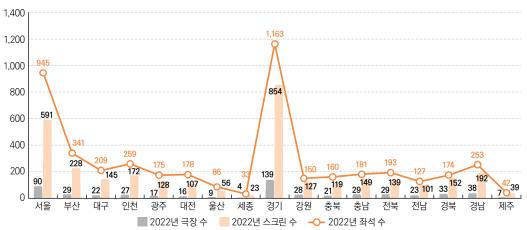
2022년 지역별 극장 현황에서도 극장 수가 증가하였으나, 좌석 수가 감소한 지역이 늘었다. 작년에는 충북과 경남 두 곳에서 극장 수가 증가하였으나 좌석 수가 감소한 데 비해, 2022년에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경북에서 극장 수가 증가한 데 비해 좌석 수가 감소하였다.

〈표 48〉 2022년 지역별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단위: 개)

										(년 T) 좌석 수			
		극징	수 .			스크	린 수			좌석	수		
지역	2022년	2021년 -	전년	대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2022 [.	2021	증감 수	증감률	2022	2021	증감 수	증감률	2022	2021	증감 수	증감률	
서울	90	89	1	1.1%	591	588	3	0.5%	94,487	96,058	-1,571	-1.6%	
부산	29	29	0	0.0%	228	223	5	2.2%	34,053	33,927	126	0.4%	
대구	22	23	-1	-4.3%	145	148	-3	-2.0%	20,912	21,521	-609	-2.8%	
인천	27	24	3	12.5%	172	155	17	11.0%	25,920	23,518	2,402	10.2%	
광주	17	17	0	0.0%	128	128	0	0.0%	17,473	17,473	0	0.0%	
대전	16	17	-1	-5.9%	107	108	-1	-0.9%	17,805	17,955	-150	-0.8%	
울산	9	8	1	12.5%	56	50	6	12.0%	8,583	8,173	410	5.0%	
세종	4	4	0	0.0%	23	23	0	0.0%	3,284	3,284	0	0.0%	
경기	139	132	7	5.3%	854	830	24	2.9%	116,306	118,406	-2,100	-1.8%	
강원	28	24	4	16.7%	127	116	11	9.5%	14,980	14,836	144	1.0%	
충북	21	20	1	5.0%	119	119	0	0.0%	15,981	16,456	-475	-2.9%	
충남	29	28	1	3.6%	149	142	7	4.9%	18,068	17,478	590	3.4%	
전북	29	28	1	3.6%	139	138	1	0.7%	19,277	19,298	-21	-0.1%	
전남	23	23	0	0.0%	101	101	0	0.0%	12,704	12,944	-240	-1.9%	
경북	33	32	1	3.1%	152	155	-3	-1.9%	17,422	19,437	-2,015	-10.4%	
경남	38	38	0	0.0%	192	197	-5	-2.5%	25,260	26,032	-772	-3.0%	
제주	7	6	1	16.7%	39	33	6	18.2%	4,165	3,584	581	16.2%	
합계	561	542	19	3.5%	3,322	3,254	68	2.1%	466,680	470,380	-3,70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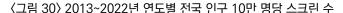
〈그림 29〉 2022년 지역별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를 산출했을 때 2022년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스크린 수는 6.5개였다. 2022년 인구 수가 지난해 대비 19만 명 감소하고 스크린 수는 68개 증가하면서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스크린 수도 지난해 보다 0.2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8.9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8.3개, 전북이 7.9개, 충북이 7.5개로 뒤를 이었다. 대구, 세종, 경북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가 감소하였으며, 대전, 경남, 광주는 전년과 동일하였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작년 대비 인구 10만 명 당 스크린 수가 증가했으며, 그 중 제주가 0.9개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전국 시군구별 극장 및 스크린 현황35)을 보면, 전국적으로 극장이 하나도 없는 시군구는 총 31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이 많았던 2020년은 71개였고, 2021년에는 37개였으나, 2022년에는 31개로 줄었다. 극장이 없던 시군구에 작은영화관이 개관하면서 지난해 대비 극장이 없는 지역이 줄었다. 극장이 없는 지역은 경북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곳, 부산·경기 4곳, 경남 3곳의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극장이 없는 행정구역은 인구 수 21만 명의 광주광역시 남구였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구 8천 9백 명의 경상남도 울릉군이었다.





³⁵⁾ 상세수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49〉 2022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단위: 명, 개)

지역	2022년 인구 수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증감 수
서울	9,428,372	6.3	6.2	0.1
부산	3,317,812	6.9	6.7	0.2
대구	2,363,691	6.1	6.2	-0.1
인천	2,967,314	5.8	5.3	0.5
광주	1,431,050	8.9	8.9	0.0
대전	1,446,072	7.4	7.4	0.0
울산	1,110,663	5.0	4.5	0.5
세종	383,591	6.0	6.2	-0.2
경기	13,589,432	6.3	6.1	0.2
강원	1,536,498	8.3	7.5	0.8
충북	1,595,058	7.5	7.4	0.1
충남	2,123,037	7.0	6.7	0.3
전북	1,769,607	7.9	7.7	0.2
전남	1,817,697	5.6	5.5	0.1
경북	2,600,492	5.8	5.9	-0.1
경남	3,280,493	5.9	5.9	0.0
제주	678,159	5.8	4.9	0.9
합계	51,439,038	6.5	6.3	0.2

^{*} 인구 수는 2022년 12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2022년 전국 신규 개관 극장은 총 27개였고, 이 중 멀티플렉스 체인 소속 극장이 17개, 비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은 10개였다. 40개 가까이 신규 극장이 개관한 지난해와 비교해 2022년 신규 개관 극장 수는 27개로, 전년 39개 대비 12개(30.8%) 감소한 수치다. 멀티플렉스 체인 소속 극장 수인 17개는 전년 26개 대비 9개(34.6%) 감소하였고, 비멀티플렉스 체인 극장 수인 10개는 전년 13개 대비 3개(23.1%) 감소하였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 30개 이상의 극장이 신규 개관하였으나,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³⁶⁾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관 극장 수는 예년에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5년간 신규 개관 극장 수는 47개(2017년), 50개(2018년), 38개(2019년), 33개(2020년), 39개(2021년), 27개(2022년)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신규 개관 극장 수가 지난 5년간 처음으로 30개 이하를 기록하였다. 특히, 이 같은 감소 추세는 팬데믹 이전에 개관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건물 계약 등의 문제로 개관을 진행한 수치를 포함한 것이다.³⁷⁾

^{*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는 2021년 12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

^{36) 2022}년 4월 18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4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도 해제에 따라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제한이 해제되었다.

³⁷⁾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극장의 건물 계약은 대부분 10년 단위로, 건물 설계 때부터 극장 입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1~2년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던 극장을 중단하는 일은 드물다. 2020년~2021년에 개관한 극장에는 팬데믹 이전에 개관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건물 계약 등의 문제로 개관을 진행한 건이 포함되어 있다.

멀티플렉스 체인의 경우, 직영관은 대부분 복합문화센터나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있는 상권이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에 문을 열었다. 비 멀티플렉스 체인 신규 개관 극장의 경우, 독특한 디자인이나 다이닝 서비스 및 개별룸 관람 등 기존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과는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브랜딩한 극장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작은영화관이었다.

〈표 50〉 2022년 신규 개관 극장 목록

(단위: 개)

구분	대기업 운영형태	극장명	극장 수
	직영	CGV 방학	1
CJ CGV	위탁	CGV 광명역, CGV 다산, CGV 부산명지, CGV 울산동구, CGV 원통, CGV 제천, CGV 평택고덕	7
롯데시네마	직영	롯데시네마 부평갈산,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2
大네시네미	위탁	롯데시네마 천안청당	1
메가박스	직영	메가박스 광명소하, 메가박스 금정AK플라자, 메가박스 춘천석사, 메가박스 포항	4
	위탁	메가박스 경주, 메가박스 수원호매실	2
기타	작은영화관	OLC 조종시네마, 달홀영화관, 별고을시네마, 설성시네마, 영암 기찬시네마,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 화성시 작은영화관	7
	-	안영채 X 모노플렉스, 영화공장, 케이트리호텔 X 모노플렉스	3
		합계	27

^{*} 극장명은 가나다순

2022년 12월 31일 기준 휴관 극장은 총 13개, 폐관 극장은 총 6개였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하여 영화관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2020년 임시휴관을 포함한 휴관 극장은 2020년 12월 31일 55개에 달했으나, 2021년 14개로 대폭 감소했고 2022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22년에는 4월 18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4월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시설 음식물 섭취 제한도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영화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극장 내 취식 불가 등 여러 제한 조치에서 자유로워졌다.

〈표 51〉 2022년 휴·폐관 극장 목록

구분	지역명	극장명	극장 수
	서울	롯데시네마 신대방, 명보아트시네마	2
	부산	모노플렉스 오시리아	1
	대구	동성아트홀	1
	인천	CGV 남주안	1
휴관	대전	대전아트시네마	1
	경기	AWC 하남미사, CGV 오리, CGV 죽전, 롯데시네마 양주고읍	4
	충북	씨네Q 충주연수	1
	전북	OLC 장수한누리극장	1
	전남	OLC 목포극장 1926	1
	······	합계	13
	인천	CGV 인천공항	1
페고	충남	당진아트시네마, 조이앤시네마 당진	2
폐관	경북	CGV 포항, 롯데시네마 경산	2
	경남	CGV 통영	1
		합계	6

^{*} 극장명은 가나다순

2) 멀티플렉스38)

2022년 멀티플렉스 극장은 전국 극장 561개의 80.6%인 452개였다. 멀티플렉스 극장 스크린 수는 전국 스크린 3,322개 중 93.9%인 3,120개였으며, 전체 극장 매출액 대비 멀티플렉스의 극장 매출 점유율은 97.1%였다. 2022년 멀티플렉스 극장 수, 스크린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대비 멀티플렉스 극장의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 전체 극장 매출과 멀티플렉스 극장 매출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나, 전체 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극장이 차지하는 매출액 점유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 중, 4대 체인 소속이 아닌 극장은 대한극장³⁹⁾ 1곳이었다. 지난해서울극장이 폐관하며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소속이 아닌 극장은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객 급감, OTT 플랫폼의 약진 등 산업 생태계가 변화함과 동시에 대형극장에서 식사, 쇼핑을 해결하는 복합 멀티플렉스관이 관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극장, 명보아트시네마, 허리우드극장 등의 극장들은 폐관되거나 실버영화관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표 52〉 2022년 지역별 멀티플렉스 비중

(단위: 개, 천명, 천원)

												0, 12 2)
		극장 수			스크린 수			관객 수			극장 매출	
지역	전체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멀티 플렉스	비중	전체	멀티 플렉스	비중
서울	90	74	82.2%	591	567	95.9%	28,924	28,391	98.2%	306,486,285	302,607,928	98.7%
부산	29	28	96.6%	228	224	98.2%	7,686	7,542	98.1%	77,592,127	76,616,865	98.7%
대구	22	21	95.5%	145	144	99.3%	5,125	5,115	99.8%	51,492,055	51,411,909	99.8%
인천	27	22	81.5%	172	159	92.4%	5,746	5,442	94.7%	60,017,188	57,538,869	95.9%
광주	17	15	88.2%	128	126	98.4%	3,740	3,309	88.5%	37,161,261	33,135,534	89.2%
대전	16	15	93.8%	107	106	99.1%	3,833	3,825	99.8%	40,045,567	39,998,549	99.9%
울산	9	7	77.8%	56	52	92.9%	2,399	2,224	92.7%	24,672,601	23,620,073	95.7%
세종	4	4	100.0%	23	23	100.0%	695	695	100.0%	7,199,052	7,199,052	100.0%
경기	139	125	89.9%	854	834	97.7%	28,481	27,920	98.0%	298,913,652	293,262,521	98.1%
강원	28	15	53.6%	127	99	78.0%	2,763	2,223	80.5%	26,151,432	23,079,862	88.3%
충북	21	17	81.0%	119	110	92.4%	3,071	2,945	95.9%	30,745,023	29,931,021	97.4%
충남	29	19	65.5%	149	130	87.2%	3,756	3,537	94.2%	37,848,185	36,500,700	96.4%
전북	29	16	55.2%	139	109	78.4%	3,312	2,972	89.7%	32,758,673	30,373,248	92.7%
전남	23	11	47.8%	101	77	76.2%	2,513	2,126	84.6%	23,877,000	21,417,897	89.7%
경북	33	26	78.8%	152	142	93.4%	3,740	3,639	97.3%	36,643,639	36,023,034	98.3%
경남	38	31	81.6%	192	181	94.3%	5,706	5,217	91.4%	55,615,771	51,518,772	92.6%
제주	7	6	85.7%	39	37	94.9%	1,316	1,270	96.5%	12,992,419	12,731,759	98.0%
합계	561	452	80.6%	3,322	3,120	93.9%	112,805	108,391	96.1%	1,160,211,927	1,126,967,593	97.1%

³⁸⁾ 영화진흥위원회는 4대 체인(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소속 극장(직영과 위탁을 모두 포함) 및 기타 7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을 멀티플렉스로 정의해 오고 있다.

³⁹⁾ 대한극장은 1958년 미국 20세기 폭스 필름의 설계에 따라 1,900여 개 좌석을 갖추고 서울시 충무로에 개관하였다. 대작 위주의 상영을 고집하며, 한때 연 최고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으나, 멀티플렉스관 위주의 관람 추세 변화에 따라 2001년 공사를 통해 11개의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관으로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총 11개 상영관에 2,754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 중견 기업인 호텔업종의 우양산업개발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한 상태다.

4대 멀티플렉스 체인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전년 대비 극장 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 롯데시네마, 씨네Q는 전년 대비 극장 수가 동일하였으며, CJ CGV는 전년 대비 4개, 메가박스는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인 8개 극장이 증가하였다. 4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직영관은 전체의 60.1%에 해당하는 271개였으며, 위탁관은 39.9%에 해당하는 180개였다. 4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직영관 비중은 2019년 64.2%, 2020년 63.7%, 2021년 61.3%에 이어 2022년에는 60.1%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3년간 4대 멀티플렉스 체인별 운영형태 비중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멀티플렉스 극장의 약 73% 이상을 차지하는 CJ CGV, 롯데시네마는 직영관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직영관 비중이 2019년 76.2%에서 2022년 64.1%로 12.1%p 감소하였고, CJ CGV 역시 2019년 68.5%였던 직영관 비중이 2022년 62.8%로 5.7%p 줄었다. 메가박스는 직영관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씨네Q는 2020년에 직영관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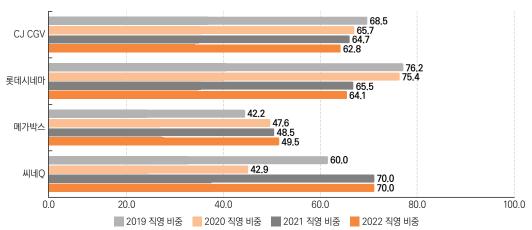
〈표 53〉 2022년 4대 멀티플렉스 체인 현황

(단위: 개)

												()	L 11. 711/
	전년 전년 . 그 . 전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전년		운영형태							
구분	극장 수	대비 증감 수	대비 즈가르	스크린 수	대비 증감 수	대비 조가르	좌석 수	대비 증감 수	대비 즈가르	직영	직영	위탁	위탁
		0 T	002		0 H	002		0 T	002	극장 수	비중	극장 수	비중
CJ CGV	188	4	2.2%	1,330	18	1.4%	194,100	7,058	-0.6%	118	62.8%	70	37.2%
롯데시네마	142	0	0.0%	976	-6	-0.6%	143,947	-5,443	-3.6%	91	64.1%	51	35.9%
메가박스	111	8	7.8%	755	49	6.9%	102,030	3,711	3.8%	55	49.5%	56	50.5%
씨네Q	10	0	0.0%	48	-1	-2.0%	4,480	-675	-13.1%	7	70.0%	3	30.0%
합계	451	12	2.7%	3,109	60	2.0%	444,557	-3,592	-0.8%	271	60.1%	180	39.9%

〈그림 31〉 2019~2022년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운영형태 비중

(단위: %)



3) 특별관⁴⁰⁾

2022년 전국 특별관은 CJ CGV 131개관, 롯데시네마 174개관, 메가박스 223개관, 씨네Q 19개관으로 총 547개관이었다. 전체 특별관 수는 2021년 445개관 대비 102개(22.9%) 증가하였고, 롯데시네마는 44개(33.8%), 메가박스는 58개(35.2%), 씨네큐는 7개(58.3%) 증가하였으며, CJ CGV는 7개(5.1%) 감소하였다. 특별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사운드' 유형이 98개관, '4D'가 51개관, '좌석'이 339개관, '고급'이 59개관이었다.

〈표 54〉 2022년 특별관 유형 분류 및 현황

분류	특별관명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IMAX	21	-	-	-
화면	Starium	1	-	-	-
	Colorium	-	1	-	-
화변 &	Superplex / Superplex G	-	11	-	-
& 사운드	ScreenX / SphereX	46	-	-	-
시正—	Dolby Cinema	-	-	5	-
	Super S	-	4	-	-
	MX	-	-	9	-
4D	4DX	40	-	-	-
40	Super 4D	-	11	-	-
	Megabox Kids	-	-	4	-
	Cine & Living Room	1	-	-	-
	Cine & Foret	7	-	-	_
	Cine Couple	-	3	-	-
	Puppy Cinema	-	-	2	-
좌석	Premium	1	-	-	-
	Cine Salon	-	2	-	-
	Cine Comfort	-	129	-	-
	Comport	-	-	171	-
	Reserve & Suite	-	-	-	10
	Recliner / 밥.CINE	-	-	-	9
	Gold Class	4	-	-	-
	Private Box, Suite Cinema	2	-	-	_
고급	Tempur Cinema	2			
五旦	The Boutique	-	-	32	-
	Charlotte	-	13	-	-
	Cine de Chef	6			
	합계	131	174	223	19

⁴⁰⁾ 특별관이란 일반관과 달리 특수한 설비(스크린/영사기/스피커)나 관람 환경(좌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영관 중에서 해당 극장에서 특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상영관을 말한다. 가령 6p레이저, SoundX 등의 경우 특수 설비에 해당하지만 해당 극장에서 특별관으로 지정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별관 중에서 특수한 좌석을 제공하는 경우, 전 좌석이 특수좌석인 경우에만 특별관으로 집계하며, 일부만 특수좌석인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한편, 2021년까지 특별관으로 집계된 롯데시네마 Cine Biz관은 해당 극장에서 특별관에서 제외하여 2022년 조사에서는 특별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 증가한 특별관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좌석' 특별관이 총 98개관 증가한 339개관으로 전년 대비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지난해 총 55개관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좌석' 특별관은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98개관 증가하며 전년 대비 40.7% 증가하였다. '고급' 특별관이 59개관으로 전년 대비 10개 증가했으며, '4D' 특별관이 51개관으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화면&사운드' 특별관은 98개관으로 전년 대비 7개관이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새로운 특별관 유형이 등장했다. 메가박스 퍼피시네마(Puppy Cinema)는 반려동물과함께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특별관으로 전국에 2개관이 설치되었으며, CJ CGV는 전석 프라이빗 박스 (Private Box) 1개관을 개관했다. 극장을 특별한 관람경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스크린 수 대비 특별관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스크린 중 30.4%가 특별관이었다. 그 다음으로 광주가 전체 스크린 중 28.1%가 특별관이었고, 제주는 25.6%가 특별관이었다.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었는데,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은 101개 스크린 중 특별관이 단 한 개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가 151개관으로 27.6%, 서울이 119개관으로 21.8%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지역이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가 36개관으로 6.6%, 부산이 33개관으로 6.0%, 경남이 38개관으로 6.9%를 차지했다.

〈표 55〉 2022년 지역별 특별관 분포

TICH	저테 시그리 스			스크린 수			트병과 비즈	тюн н п
지역	전체 스크린 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소계	특별관 비중	지역별 분포
서울	591	49	25	42	3	119	20.1%	21.8%
부산	228	12	6	15	0	33	14.5%	6.0%
대구	145	5	2	8	7	22	15.2%	4.0%
인천	172	4	2	6	0	12	7.0%	2.2%
광주	128	5	11	20	0	36	28.1%	6.6%
대전	107	5	4	12	0	21	19.6%	3.8%
울산	56	5	1	2	0	8	14.3%	1.5%
세종	23	1	0	6	0	7	30.4%	1.3%
경기	854	29	56	66	0	151	17.7%	27.6%
강원	127	2	11	13	0	26	20.5%	4.8%
충북	119	2	2	0	0	4	3.4%	0.7%
충남	149	4	7	2	2	15	10.1%	2.7%
전북	139	3	7	0	7	17	12.2%	3.1%
전남	101	0	0	0	0	0	0.0%	0.0%
경북	152	0	20	8	0	28	18.4%	5.1%
경남	192	4	11	23	0	38	19.8%	6.9%
제주	39	1	9	0	0	10	25.6%	1.8%
합계	3,322	131	174	223	19	547	16.5%	100.0%

4) 작은영화관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극장이 없는 중소 시군 지역에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운영하는 영화관을 말한다. 2022년에는 61개의 작은 영화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영화관은 2019년 44개가 운영 중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2020년 18개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운영 재개한 곳들이 늘어나 53개였다. 41) 2022년에는 지난해보다 8개, 2019년보다 17개 늘어난 61개의 작은영화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은영화관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원으로 13개였고, 전남이 11개, 전북이 8개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은 모두 6곳이었다. 씨네Q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곳, CGV가 위탁 운영 중인 곳이 2곳이었고,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42)

〈표 56〉 2022년 전국 작은영화관 현황

지역	극장명	극장 수	신규 개관 극장 수
인천	강화작은영화관	1	-
울산	알프스시네마	1	-
경기	1939 시네마, OLC조종시네마(신규), 포천 클라우드시네마, 화성시 작은영화관(신규)	4	2
강원	CGV 인제, 고한시네마, 달홀영화관(신규), 삼척 가람영화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양구 정중앙시네마, 양양 작은영화관, 영월시네마, 철원작은영화관 뚜루, 해피700 평창시네마, 홍천시네마, 화천작은영화관, 횡성시네마	13	1
충북	설성시네마(신규), 씨네Q 보은,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옥천 향수시네마	4	1
충남	금산시네마,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예산시네마, 청양시네마, 태안시네마	5	-
전북	OLC 부안마실영화관, 동리시네마, 마이골작은영화관, 무주산골영화관, 올망졸망 지평선시네마, 완주 휴 시네마,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신규),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8	1
전남	OLC 곡성극장, OLC담양담빛시네마, OLC화순시네마, 고흥 작은영화관, 보성 작은영화관, 영광작은영화관, 영암 기찬시네마(신규), 완도 빙그레시네마, 정남진시네마, 진도아리랑 시네마, 해남시네마	11	1
경북	대가야시네마, 별고을시네마(신규), 씨네Q 칠곡호이, 영양 작은영화관, 영천 별빛영화관 with 씨네Q, 울진 작은영화관, 의성작은영화관	7	1
경남	CGV 고성, OLC함안군 작은영화관, 보물섬시네마, 산청군 작은영화관, 씨네Q 알프스하동, 합천시네마	6	-
제주	한림작은영화관	1	-
	합계	61	7

^{*} 극장명은 가나다순

⁴¹⁾ 동 수치는 모두 매년 말일 기준 수치이며, 2020년 12월 31일 경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임시휴관이 많아 휴관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전체 휴관 55개 중 작은영화관은 28개로 그 비중은 전체의 51%에 달했다.

⁴²⁾ 씨네Q 직영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은 '씨네Q 보은(충북 보은군)', '씨네Q 칠곡호이(경북 칠곡군)', '영천 별빛영화관 with 시네Q (경북 영천시)', '씨네Q 알프스 하동(경남 하동군)'의 4곳이다. CJ CGV가 위탁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은 'CGV 인제(강원도 인제군)', 'CGV 고성(경남 고성군)'의 2곳이다.

2022년에는 7개의 작은영화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OLC 조종시네마'와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영화관이었다. 특히, 1970년대 영암중앙극장이 폐관한 이후 40여년 만에 전남 영암군에 작은영화관인 '영암 기찬시네마'가 문을 열었으며,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던 '임실한마당 작은별영화관'도 다시 문을 열었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⁴³)은 영화예술 확산 등을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2022년 전국 68곳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관이 잦았던 2020년의 50개에 비해 18곳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보다는 1곳이 줄어든 수치다. 전체 68개관 중 멀티플렉스 체인에서 운영하는 상영관은 CGV 아트하우스 17개관, 롯데시네마 아르떼클래식 8개관, 메가박스 소상영관 2개관, MX관으로 총 28개관이었으며 모두 직영관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로 51.5%를 차지했고, 그 다음 부산 8개, 인천 7개, 경기와 광주가 3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모두 포함한 수도권에만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45개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위치한 반면 울산, 세종, 전남, 제주에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이 한 곳도 없었다.

〈표 57〉 2022년 지역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분포

(단위: 개, %)

지	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개		35	8	2	7	3	1	0	0	3	2	1	2	1	0	2	1	0	68
Н/	'중	51.5	11.8	2.9	10.3	4.4	1.5	0.0	0.0	4.4	2.9	1.5			0.0	2.9	1.5	$\cap \cap$	100.0

⁴³⁾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거나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여 운영되는 곳들을 말하며,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전용관현황과는 다를 수 있다.

사.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매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는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제작비 간이조사(Temporary Investigation)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제작비 30억 이상 제작·개봉한 영화를 상업영화⁴⁴⁾로 분류하고 추정수익률(Estimated Rate of Return)을 사출한다.

2022년 분석대상은 실질개봉작으로 한정하였으며, 공연실황, 재편집 개봉작 등 일반적인 투자-제작유형이 아닌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2022년 실질개봉작 총 226편 중 29편이 제외되어 197편이 분석대상으로 파악되었다. 45) 이중 상업영화는 36편이었다.

한편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발표하는 추정수익률과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에서 발표하는 수익률에는 차이가 있다.46)

〈표 58〉 한국영화 제작비와 추정수익률 파트 주요 용어 기준 및 정의

구분	기준 및 정의 ⁴⁷⁾
실질개봉작	• 2022년 개봉한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총 226편 중 일반적인 한국영화 투자-제작 유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29편을 제외한 197편
상업영화	• 위 실질개봉작 중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한 36편
독립·예술영화	• 위 실질개봉작 중 독립·예술영화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또는 심사세칙에 따라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128편
추정수익률	• 위 실질개봉작 제작비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상업영화의 순제작비, P&A비용 및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 수에 근거하여 추정한 수익률

^{*} 본 파트에서는 분석대상에 한하여 기술하므로 실질개봉작 및 독립·예술영화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는 개념적 범주와 차이가 있음

^{44) 2015}년도에는 총 제작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되었거나 전국 100개 이상 상영관에서 개봉 상영된 영화를 상업영화의 기준으로 삼았다. 2016년부터는 영화관 수 증가, 광역 개봉현상의 심화 등을 반영하여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제작·개봉한 영화를 상업영화로 재 정의하였다.

⁴⁶⁾ 결산작업은 연 초에 수행되며 이 시기 극장 상영과 1차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수이다. 이에 매출과 기타비용은 추정치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러므로 정산감사보고서 등 실 집계자료 분석을 통해 수익률을 산출하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의 집계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한다.

⁴⁷⁾ 본 파트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기준 및 정의는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기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로 이는 현 영화산업 내 확정된 개념은 아니다.

〈표 59〉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집계수익률 조사 및 분석 개요

-	구분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2022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조시	조사시기 2023년 1월		2023년 7월				
발표	발표시기 2023년 2월		2023년 12월(예정)				
 분	석대상	2022년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한 한국 상업영화 36편					
T II	자료수집	전화, 이메일을 통한 순제작비, P&A비용, 극장 매출 〈간이조사표〉 회신	전화, 이메일을 통한 매출(극장, 극장 외), 순제작비, P&A비용, 수수료 〈집계조사표〉 회신				
조사 방법	분석방법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극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N-1년도 평균 객단가, N-1년도 극장 매출: 극장 외 매출 비중을 적용 추정수익률 산출	매출 및 비용 세부내역의 집계분석을 통한 수익률 산출				
수익	률 산출	간이조사를 통한 추정분석(추정수익률)	집계조사를 통한 집계분석(집계수익률)				

^{* 2022}년 제작비 전수조사의 경우 분석대상 197편 중 189편의 순제작비, P&A비용 수집(수집률 95.9%)

1)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제작비

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197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5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2423억 원) 2865억 원이 증가하였다.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12.1억 원) 14.7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평균 순제작비가 21.4억 원으로 총제작비의 79.9% 평균 P&A비용이 5.4억 원으로 총제작비의 20.1%를 차지하였다.

(표 60) 2013~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평균 제작비

(단위: 억원,%)

구분	ᄪᄉ	순제작	Н (А)	마케팅비((P&A)(B)	총제작비(A+B)
干正	친구	평균 순제작비	비중	평균 마케팅비	비중	평균 총제작비
2013	182	15.0	70.1%	6.4	29.9%	21.4
2014	217	14.9	74.1%	5.2	25.9%	20.1
2015	232	14.5	72.9%	5.4	27.1%	19.9
2016	178	17.1	71.3%	6.9	28.7%	24.0
2017	174	19.1	72.5%	7.3	27.5%	26.4
2018	186	20.0	74.6%	6.8	25.4%	26.8
2019	190	21.5	74.2%	7.5	25.8%	29.0
2020	155	14.9	77.6%	4.3	22.4%	19.2
2021	200	9.3	76.9%	2.8	23.1%	12.1
2022	197	21.4	79.9%	5.4	20.1%	26.8

^{* 2016}년부터 실질개봉작에 한하여 집계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실질개봉작 중 일반적인 한국영화 투자-제작의 유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을 제외하고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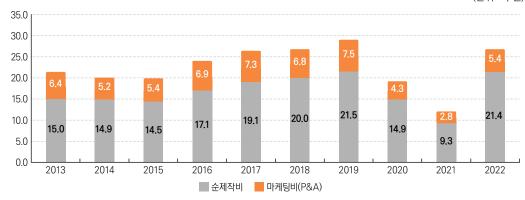
^{*} 미수집 8편(3편 → 투자배급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활용, 5편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 신청서 참고)

^{*} 본 파트에서는 실질개봉작을 2016년부터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 독립·예술영화로 집계하였는데, 본 보고서 〈표 2〉에서 2016~2017년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의 작품에 한해 실직개봉작으로 분류하였고, 2018년부터 40회차 이상+독립·예술영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므로 〈표 2〉의 실질개봉작 편수와는 차이가 있음

평균 순제작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1.5억 원)과 비슷한 규모 수준으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2022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인해 대작 영화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작·개봉함에 따라 전체 평균 순제작비가 상승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2〉 2013~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평균 총제작비 구성

(단위: 억원)



〈표 61〉과 같이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를 살펴보면, 10억 미만 구간이 전년 대비 24편이 감소한 140편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71.1%)을 차지하였다. 반면 100억 이상 구간은 전년 대비 14편이 늘어난 18편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9.1%)을 기록하였다.

〈표 61〉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총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단위: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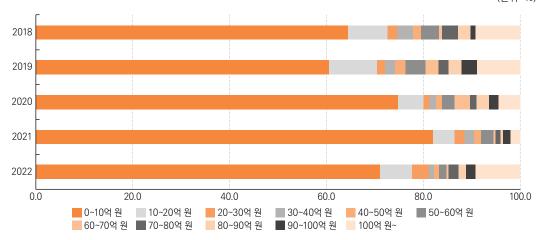
구	분	~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40억 미만	4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60억 미만	60억 이상~ 70억 미만	70억 이상~ 80억 미만	80억 이상~ 90억 미만	9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합계
2010	편수	120	15	4	6	3	7	1	6	5	2	17	186
2018	비율	64.5%	8.1%	2.2%	3.2%	1.6%	3.8%	0.5%	3.2%	2.7%	1.1%	9.1%	100%
0010	편수	115	19	3	4	4	8	5	4	5	6	17	190
2019	비율	60.5%	10.0%	1.6%	2.1%	2.1%	4.2%	2.6%	2.1%	2.6%	3.2%	8.9%	100%
2020	편수	116	8	2	2	2	4	5	2	4	3	7	155
2020	비율	74.8%	5.2%	1.3%	1.3%	1.3%	2.6%	3.2%	1.3%	2.6%	1.9%	4.5%	100%
2021	편수	164	9	4	4	3	5	1	2	1	3	4	200
2021	비율	82.0%	4.5%	2.0%	2.0%	1.5%	2.5%	0.5%	1.0%	0.5%	1.5%	2.0%	100%
2022	편수	140	13	7	2	2	3	1	4	3	4	18	197
2022	비율	71.1%	6.6%	3.6%	1.0%	1.0%	1.5%	0.5%	2.0%	1.5%	2.0%	9.1%	100%

^{* 2016}년부터는 실질개봉작에 한하여 집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실질개봉작 중 일반적인 한국영화 투자-제작의 유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을 추가로 제외하고 집계함

^{*} 본 파트에서는 실질개봉작을 2016년부터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독립·예술영화로 집계하였는데, 본 보고서 〈표 2〉에서 2016~2017년은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의 작품에 한해 실질개봉작으로 분류하였고, 2018년부터 40회차 이상+독립·예술영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 2〉의 실질개봉작 편수와 차이가 있음







《표 62》와 같이 순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10억 미만이 전년 대비 20편이 감소한 146편으로 나타나 비율이 8.9%p 줄어들었다. 그러나 본 구간은 총제작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74.1%)로 나타났다. 반면 90억 이상~100억 미만 구간 및 100억 이상 구간에서 전년 대비 각각 4편, 8편이 증가하였다. 특히 100억 이상 구간의 경우 10억 이상~20억 미만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 높은 비율(5.6%)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들은 줄어든 반면 대작 영화들이 연내 개봉을 이어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소폭증가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62〉 2018~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순제작비 구간별 편수 분포

(단위: 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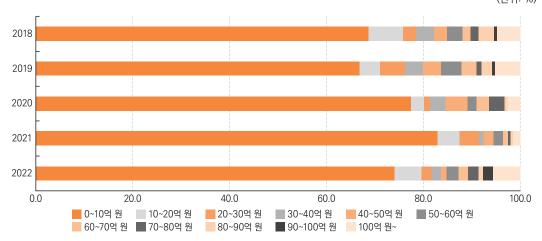
구	분	~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40억 미만	4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60억 미만	60억 이상~ 70억 미만	70억 이상~ 80억 미만	80억 이상~ 90억 미만	9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합계
2018	편수	128	13	5	7	5	6	3	3	6	1	9	186
2016	비율	68.8%	7.0%	2.7%	3.8%	2.7%	3.2%	1.6%	1.6%	3.2%	0.5%	4.8%	100%
2019	편수	127	8	10	7	7	8	6	2	4	1	10	190
2019	비율	66.8%	4.2%	5.3%	3.7%	3.7%	4.2%	3.2%	1.1%	2.1%	0.5%	5.3%	100%
2020	편수	120	4	2	5	7	3	4	5	1	0	4	155
2020	비율	77.5%	2.6%	1.3%	3.2%	4.5%	1.9%	2.6%	3.2%	0.6%	0.0%	2.6%	100%
2021	편수	166	9	8	2	4	4	2	1	1	0	3	200
2021	비율	83.0%	4.5%	4.0%	1.0%	2.0%	2.0%	1.0%	0.5%	0.5%	0.0%	1.5%	102%
2022	편수	146	11	4	4	2	5	4	4	2	4	11	197
2022	비율	74.1%	5.6%	2.0%	2.0%	1.0%	2.6%	2.0%	2.0%	1.0%	2.0%	5.6%	100%

^{* 2016}년부터는 실질개봉작에 한하여 집계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실질개봉작 중 일반적인 한국영화 투자-제작의 유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을 추가로 제외하고 집계함

^{*} 본 파트에서는 실질개봉작을 2016년부터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독립·예술영화로 집계하였는데, 본 보고서 〈표 2〉에서 2016~2017년은 연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의 작품에 한해 실질개봉작으로 분류하였고, 2018년부터 40회차 이상+독립·예술영화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 2〉의 실질개봉작 편수와 차이가 있음







2) 한국 상업영화 제작비

2022년 실질개봉작 197편 중 상업영화 36편의 총제작비 총합은 4483억 원으로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 대비(93.9억 원) 30.7억 원 상승한 124.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표 63〉과 같이 2022년 한국 상업영화 평균 순제작비는 99.9억 원으로 전년 대비(74.8억 원) 25.1억 원 상승하였고, 평균 P&A비용은 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19.1억 원) 5.6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3) 2018~2022년 한국영화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단위: 억원,%)

						, , , , , , ,
구분	ᄪᄉ	순제작년	네(A)	마케팅	총제작비(A+B)	
干正	친구	평균 순제작비 비중		평균 마케팅비	비중	평균 총제작비
2018	40	79.0	77.1%	23.5	22.9%	102.5
2019	45	76.5	75.9%	24.3	24.1%	100.8
2020	29	66.4	77.5%	19.2	22.4%	85.7
2021	17	74.8	79.7%	19.1	20.3%	93.9
2022(추정치)	36	99.9	80.2%	24.7	19.8%	124.6

^{*}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된 영화 기준임

^{* 2021}년 데이터는 각 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 발간을 위해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2022년은 간이조사를 통한 추정치로 산출함

〈표 64〉과 같이 한국 상업영화의 순제작비를 제작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억 원 이상~80억 원 미만 구간이 13편으로 다섯 구간 중 편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8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구간이 전년 대비 5편, 100억 원 이상~150억 원 미만, 150억 원 이상 구간이 전년 대비 각각 4편씩 증가하였다.

〈표 64〉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및 평균 순제작비

(단위: 편,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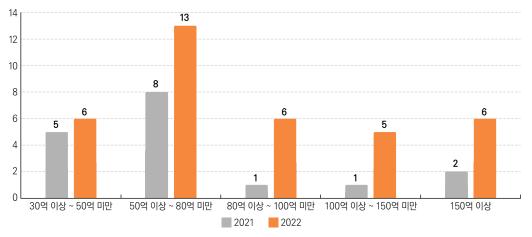
78	20	21	2022(추정치)		
↑ 世	편수 평균 순제작비		편수	평균 순제작비	
150억 원 이상	2	193.0	6	231.9	
100억 원 이상~150억 원 미만	1	116.7	5	121.0	
80억 원~100억 원 미만	1	88.3	6	90.3	
50억 원~80억 원 미만	8	61.1	13	63.9	
30억 원~50억 원 미만	5	38.3	6	37.7	
합계	17	74.8	36	99.9	

^{* 2021}년 데이터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조사에서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추정치를 분석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78〉의 2021년(추정치)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평균 순제작비의 경우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상승하였다. 해당 구간에 속하는 모든 작품들이 순제작비가 증가하였다기보다는 특정 몇몇 작품들이 평균 순제작비를 크게 상회한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 특히 30억 이상~50억 미만 구간의 경우 편수로는 1편이 증가하였으나 평균 순제작비는 0.6억 원 감소하였다.

〈그림 35〉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단위: 편)



3) 한국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2022년 실질개봉작 197편 중 독립·예술영화 128편(전체 실질개봉작의 65.0%)의 총제작비 총합은 463.7억 원으로 편당 평균 총제작비는 전년 대비(3.2억 원) 0.4억 원 상승한 3.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65〉에서 평균 순제작비는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2.4억 원) 0.4억 원 증가, 평균 P&A비용은 0.9억 원으로 전년 대비(0.8억 원) 0.1억 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5〉 2018~2022년 한국영화 독립·예술영화 평균 제작비

(단위: 억 원, %)

						1-11-1
78	편수	순제작	·비(A)	마케팅비(총제작비(A+B)	
干正		평균 순제작비	비중	평균 마케팅비	비중	평균 총제작비
2018	113	2.0	73.5%	0.7	26.5%	2.7
2019	120	2.6	71.3%	1.1	28.7%	3.7
2020	105	2.4	78.1%	0.7	21.9%	3.1
2021	151	2.4	75.0%	0.8	25.3%	3.2
2022	128	2.8	76.4%	0.9	23.6%	3.6

^{*} 본 부문에서 이야기하는 독립·예술영화 편수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 또는 예술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들 중 공연실황 등 일반적인 한국영화 제작-투자 유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을 제외한 것으로서, 본 보고서 독립·예술영화〈표 39〉에서의 한국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66〉과 같이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순제작비를 제작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구간에서 전년 대비 편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구간에서 각각 20편, 11편이 줄어들어 10억 원 이상 구간과는 다르게 큰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두 구간의 경우 평균 순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반면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6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편수가 증가하였다.

전체 평균 순제작비는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3.4억 원) 0.6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구간의 평균 순제작비가 전년 대비 각각 0.1억 원, 1.4억 원이 낮아진 것이 원인이다.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집계조사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일반적으로 독립·예술 영화의 순제작비는 30억 원 이하가 많으므로 평균 제작비는 연 초 실시하는 간이조사 추정치로 산출함

〈표 66〉 2021~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및 평균 순제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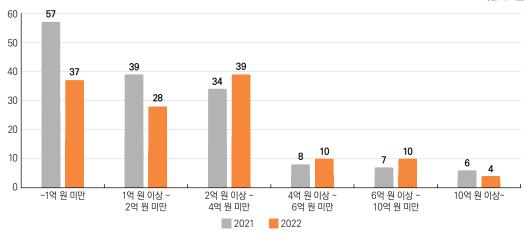
(단위: 편, 억 원)

78	20:	21	2022(2022(추정치)		
↑ -	편수 평균 순제작비		편수	평균 순제작비		
10억 원 이상~	6	18.5	4	17.1		
6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7	6.8	10	7.6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8	4.5	10	4.4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34	2.7	39	2.9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39	1.3	28	1.3		
~1억 원 미만	57	0.4	37	0.4		
합계	151	3.4	128	2.8		

^{*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을 위해 실시하는 집계조사는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만을 대상으로 실시함. 일반적으로 독립·예술 영화의 순제작비는 30억 원 이하가 많으므로 평균 제작비는 연 초 실시하는 간이조사 추정치로 산출함

〈그림 36〉 2021~2022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 비교

(단위: 편)



4)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2022년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한 한국 상업영화 36편의 평균 추정수익률은 -0.3%로 추정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021년에는 평균 수익률이 -20%를 하회하였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흑자로 돌아오지는 못하였으나,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산출 개요

○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계산 산식

[총매출(극장 매출⁴⁸⁾ + 극장 외 매출) - 총비용(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순제작비 + P&A비용)] ÷ [총제작비(순제작비 + P&A비용)]

○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계산 과정

- 분석대상: 2022년 실질개봉작 중 순제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한 한국 상업영화 총 **36편**
- 활용자료: 작품별 순제작비, P&A비용,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 수

구분	산식	비고
극장 매출 추정	36편의 관객 수 59,245,921명 ⁴⁹⁾ × 관객 1인당 평균 객단가 4,599원 ⁵⁰⁾ ≒ 272,471,990,679원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중 1차 정산이 완료된 작품 24편 평균 객단가
극장 외 매출 추정	272,471,990,679원(2022년도 극장 매출 추정액) × (47.83÷52.17) ≒ 249,805,162,242원	2021년 극장 매출 : 극장 외 매출 비중 '52.17:47.83'
순제·P&A비용 집계	36편의 순제작비 총합 ≒ 359,515,678,081원 36편의 P&A비용 총합 ≒ 88,779,126,493원	전수조사를 통한 간이조사
수수료 및 기타비용 추정	522,277,152,921원(2022년도 총매출 추정액) × 14.44% ≒ 75,416,820,882원	2021년 총매출 대비 수수료 및 기타비용 비중 14.44%

⁴⁸⁾ 본 파트에서 극장 매출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매출액에서 극장부금정산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⁴⁹⁾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2023. 1. 4.) 기준이다.

^{50) 2019}년부터 수익률 추정치 산출시 집계치와의 오차를 좁히기 위해 기존 방식인 N-1년도 관객 1인당 객단가 평균이 아닌 해당연도 수익성 분석 대상작 중 1차 정산이 완료된 작품의 극장부금정산 후 매출을 제공받아 적용하였다. 2022년 수익률 추정치산출에서도 1차 정산이 완료된 작품의 경우 극장 매출을 조사하여 2022년 기준 객단가 평균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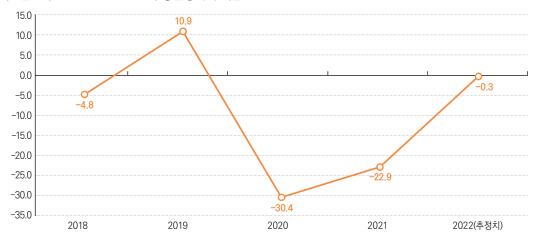
〈표 67〉 2018~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매출(A)	458,495	579,119	215,739	143,860	522,277
총제작비(B)	410,193	453,399	248,543	159,553	448,295
수수료 등 기타비용(C)	67,856	76,153	42,733	20,768	75,417
총이익(D=A-B-C)	-19,554	49,567	-75,537	-36,461	-1,434
평균 수익률(D/B)	-4.8%	10.9%	-30.4%	-22.9%	-0.3%
편수	40편	45편	29편	17편	36편

^{* 2016}년부터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으로 제작·개봉한 영화 기준임

〈그림 37〉 2018~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



전체 36편 중 총매출 기준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긴 영화는 7편이었다. 2022년 개봉한 전체 상업 영화의 19.4%만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한 것이다. 이 가운데 수익률 30% 이상~80% 미만이 3편으로 전체 상업영화 17편 중 8.4%를 차지하였고 수익률 100% 이상이 4편으로 11.1%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상회하였던 3편 모두 수익률이 30% 미만이었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중소규모 및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상업영화들이 줄지어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영화의 경우에는 수익률 -100%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전년 대비 편수가 증가하였다. 2022년 상업영화 추정수익률이 전년 대비 22.6% 증가하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2022년 상업영화 편수가 전년 대비 19편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 2017~2022}년은 각 년도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보고서 및 통합 데이터에서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2022년 제작비 간이조사를 통해 수집된 순제작비, P&A비용 및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 수를 기반으로 추정함

〈표 68〉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손익분기점 구간별 편수·비율

(단위: 편, %)

	2021		2022(추정	ا حّا
구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수익률 100% 이상	0	0.0%	4	11.1%
수익률 80% 이상 100% 미만	0	0.0%	0	0.0%
수익률 50% 이상 80% 미만	0	0.0%	2	5.6%
수익률 30% 이상 50%미만	0	0.0%	1	2.8%
수익률 30% 미만	3	17.6%	0	0.0%
수익률 -100% 이상	0	0.0%	0	0.0%
수익률 -80% 이상 -100% 미만	1	5.9%	7	19.4%
수익률 -50% 이상 -80% 미만	4	23.5%	10	27.8%
수익률 -30% 이상 -50% 미만	5	29.4%	6	16.7%
수익률 -30% 미만	4	23.5%	6	16.7%
손익분기점(BEP) 상회	3	17.6%	7	19.4%
합계	17	100%	36	100%

^{* 2021}년 데이터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조사에서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추정치를 분석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78〉의 2021년(추정치)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표 69》와 같이 한국 상업영화를 총제작비 규모별로 나누어 구간별 작품 편수와 평균 수익률 등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150억 원 미만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해당 구간에 속하는 작품 9편 중 3편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전년도에도 동일 구간 작품 2편 중 1편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평균 수익률이 2.7%로 나타났다. 해당 구간은 총제작비 기준 전년도와 2022년 모두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한 구간이다. 한편 3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작품 3편(2021년 1편)이 -62.6%로 가장 낮은 평균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50억 이상~80억 미만, 80억 이상~100억 미만, 150억 이상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모두 평균 수익률이 낮아졌다. 특히 80억 이상~100억 미만 구간의 경우 평균 총제작비는 2.9억 원이 증가한 반면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없어 평균 수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69〉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총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단위: 백만 원)

		20	21			2022(추정치)			
구분	771.4	BEP	<u>~ '</u> 평균	평균	TT A	BEP	<u> </u>	 평균	
	편수	상회편수	총제작비	수익률	편수	상회편수	총제작비	수익률	
150억 이상	2	1	21,823	-0.2%	9	3	23,387	-5.8%	
100억 이상~150억 미만	2	1	12,264	2.7%	9	3	12,089	69.4%	
80억 이상~100억 미만	5	1	8,734		7	0	9,024	-52.9%	
50억 이상~80억 미만	7	0	6,210	-42.8%	8	1	6,684	-44.0%	
30억 이상~50억 미만	1	0	4,239		3	0	4,122		
전체	17	3	9,385	-22.9%	36	7	12,453	-0.3%	

^{* 2021}년 데이터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조사에서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추정치를 분석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78〉의 2021년(추정치)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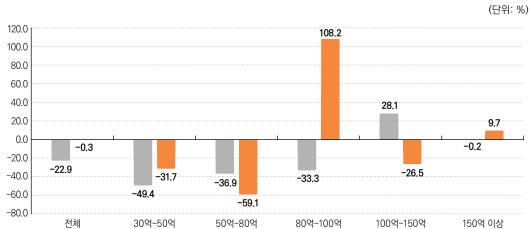
〈표 70〉과 같이 한국 상업영화를 순제작비 규모별로 나누어 각 편수와 평균 수익률 등을 살펴보면, 80억 이상~100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6편의 평균 수익률이 10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의 경우 동일 구간의 평균 수익률은 -33.3%였던 것에 반해 2022년에는 해당 구간의 평균 순제작비는 줄어든 반면 2편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며 평균 수익률이 대폭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150억 이상 6편의 평균 수익률이 9.7%로 나타나 두 번째로 흑자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전년 대비 평균 순제작비는 증가하였으나 손익분기점을 넘긴 편수가 2편 증가하며 평균 수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모두 적자로 추정되어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표 70〉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				2022(추정치)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순제작비	평균 수익률	편수	BEP 상회편수	평균 순제작비	평균 수익률
150억 이상	2	1	19,304	-0.2%	6	3	23,193	9.7%
100억 이상~150억 미만	1	1	11,667	28.1%	5	1	12,104	
80억 이상~100억 미만	1	0	8,831	-33.3%	6	2	9,026	108.2%
50억 이상~80억 미만	8	1	6,109	-36.9%	13	0	6,390	-59.1%
30억 이상~50억 미만	5	0	3,834	-49.4%	6	1	3,767	-31.7%
전체	17	3	7,479	-22.9%	36	7	9,987	-0.3%

^{* 2021}년 데이터는 『한국영화 수익성 분석』 조사에서 수급된 실 집계금액으로 산출함. 추정치를 분석한 『2021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의 〈표 78〉의 2021년(추정치)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그림 38〉 2021~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추정)수익률 추이

이와 같이 2022년 한국 상업영화 36편을 총제작비/순제작비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더라도 같은 구간에 속한 작품마다 매출 규모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값(Average Value)과 중앙값(Mean Value)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⁵¹⁾

2021 2022(추정치)

〈표 71〉과 같이 2022년 한국 상업영화의 매출액을 정렬하였을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작품의 매출액 (중앙값)은 62억 원으로 평균값(145억 원)과 8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일부 영화가 평균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체 36편 중 매출액 1위, 2위 영화를 제외한 34편의 평균 수익률을 산출하면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수익률은 -28.5%까지 떨어진다. 이는 2021년 한국 상업영화의 평균수익률인 -22.9% 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표 71〉 2022년 한국 상업영화 추정수익률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

(단위: 백만 원)

구분	총매출액	총제작비	수수료·기타비용	총이익	수익률
평균	14,508	12,453	12,413	-40	-0.3%
중앙값	6,248	9,969	5,346	-4,231	-48.2%
표준편차	22,557	7,757	19,300	17,703	139.2%

⁵¹⁾ 평균값과 중앙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특정 영화 몇 편으로 인해 전체 매출 규모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가. 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개봉일람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장르
이월1	그림자꽃	이승준	블루버드픽처스	㈜엣나인필름	2021-10-27	다큐멘터리
이월2	너에게 가는 길	변규리	성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엣나인필름	2021-11-17	다큐멘터리
이월3	연애 빠진 로맨스	정가영	㈜씨제이이엔엠, 트웰브져니㈜	㈜씨제이이엔엠	2021-11-24	멜로/로맨스
이월4	유체이탈자	윤재근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사람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에이비오 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1-11-24	판타지
이월5	라임크라임	이승환 유재욱	기린놀이터, ㈜시네마달	㈜시네마달	2021-11-25	드라마
이월6	태일이	홍준표	㈜명필름, ㈜스튜디오루머, 전태일재단, 유한회사 질라라비, 영화〈태일이〉1970인 제작위원	㈜리틀빅픽쳐스	2021-12-01	애니메이션
이월7	몬스타엑스 : 더 드리밍	오윤동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2021-12-08	다큐멘터리
이월8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김철민	엠앤씨에프, 다큐창작소, ㈜영화사진	㈜인디스토리, 엠앤씨에프	2021-12-09	다큐멘터리
이월9	소설가 구보의 하루	임현묵	영화사 다동극장	필름다빈	2021-12-09	드라마
이월10	해피 뉴 이어	곽재용	㈜하이브미디어코프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티빙	2021-12-29	멜로/로맨스
이월11	긴 하루	조성규	㈜와우	하준사	2021-12-30	드라마
이월12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박소현 송영윤	보리와 메루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2021-12-30	다큐멘터리
이월13	숏버스 배우행	이건휘 김내리 황지현 서태범 황재필 김효준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언더식스티, ㈜퍼니콘	2021-12-30	드라마
이월14	탁이거마스크	염정원	㈜ <u>그노스,</u> ㈜파이브데이, 꿀잼컴퍼니㈜	㈜그노스, ㈜다날엔터테인먼트	2021-12-30	코미디
1	경관의 피	이규만	리양필름㈜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	2022-01-05	범죄
2	비욘드라이브 더 무비 : 엔시티 레조넌스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2022-01-12	공연
3	특송	박대민	㈜엠픽처스	㈜ <u>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u> NEW)	2022-01-12	범죄
4	천년의 노래, 리버스	성유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이놀미디어	2022-01-13	공연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2세	89	45	5,398,000	871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집중	
12세	56	74	4,032,000	502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집중	
15세	967	378	28,663,790	3,381			영화계정
15세	1,216	91	42,190,000	7,761			영화계정, 문화계정
15세	25	47	6,679,000	1,267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일반	
전체	458	126	52,018,940	6,761	예술(승인)	강소형, 차기작, 애니장편	영화계정
전체	98	50	5,759,500	425			
12세	23	111	2,640,000	380	독립(승인) 예술(심사)	개봉일반	
12세	36	45	721,000	107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후반작업	
12세	832	11,274	1,183,820,530	122,596		차기작	
12세	12	75	2,551,400	264	독립(심사)		
전체	12	160	4,045,070	489	독립(승인) 예술(승인)	지역영화, 후반작업	
12세	16	86	3,619,400	350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12세	36	114	2,440,270	400			
15세	1,187	57,408	6,687,389,520	679,503		차기작, 제작활성화	영화계정
전체	34	525	341,407,500	22,726			
15세	996	48,003	4,172,193,200	443,177			영화계정, 문화계정
전체	10	49	3,224,300	349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장르
5	블루버스데이	박단희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CGV ICECON	2022-01-19	멜로/로맨스
6	걸 위드 더 카메라	안희수		영화사 그램	2022-01-20	다큐멘터리
7	미싱타는 여자들	이혁래 김정영	플라잉타이거픽처스	㈜영화사 진진	2022-01-20	다큐멘터리
8	장민호 드라마 최종회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CGV ICECON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CGV ICECON	2022-01-24	공연
9	킹메이커	변성현	㈜씨앗필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2-01-26	드라마
10	해적: 도깨비 깃발	김정훈	㈜어뉴, 오스카10스튜디오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2022-01-26	어드벤처
11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김동령 박경태	㈜시네마달, 웃음과바늘 필름&아카이브	㈜시네마달	2022-01-27	드라마
12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김진홍	㈜영화사메이플러스, 광주MBC	주식회사 블루필름웍스, ㈜영화사메이플러스	2022-01-27	다큐멘터리
13	트로트는 인생이다	투케이	㈜드림스테이션	시네마 뉴원	2022-01-27	코미디
14	효자	이훈국	영화사 틈, ㈜모그픽쳐스	㈜드림팩트 엔터테인먼트	2022-01-27	코미디
15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손석우	아툰즈	㈜씨제이이엔엠	2022-01-27	애니메이션
16	짬뽕비권	박동기	클라임 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콘텐츠판다	2022-02-02	액션
17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고선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이놀미디어	2022-02-03	공연
18	나의 촛불	김의성 주진우	주기자 유한회사	트윈플러스 파트너스㈜	2022-02-10	다큐멘터리
19	늦봄2020	박규현	㈜전주엠비씨 프로덕션	주식회사 블루필름웍스	2022-02-10	다큐멘터리
20	온 세상이 하얗다	김지석	㈜소셜프로덕션	㈜트리플픽쳐스	2022-02-10	멜로/로맨스
21	리프레쉬	김길영	㈜케이엠글로벌 미디어	㈜이놀미디어	2022-02-16	드라마
22	대한민국 대통령	배상국	㈜바보들	㈜라이크콘텐츠	2022-02-17	다큐멘터리
23	전투왕	이상호	㈜씨네포트	㈜씨네포트, 주식회사 블루필름웍스	2022-02-17	다큐멘터리
24	당신은 이 글 속에 살아있다	임지환	스토리웨이브픽쳐스	스토리웨이브픽쳐스	2022-02-18	기타
25	싫은 건 아니지만	오세섭		필름다빈	2022-02-19	멜로/로맨스
26	보드랍게	박문칠	(사)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	㈜인디플러그	2022-02-23	다큐멘터리
27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장철수	주식회사 표범영화사, (유)조이앤시네마	㈜제이앤씨 미디어그룹	2022-02-23	멜로/로맨스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2세	43	465	46,533,900	4,394			
12세	11	126	3,676,470	465	독립(승인)		
전체	39	945	86,361,720	10,683	독립(승인)	제작(다큐), 개봉일반	
전체	81	839	223,662,200	11,687			
15세	1,185	80,070	7,318,959,610	775,968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1,708	117,320	12,523,963,990	1,339,242		첨단영상, 차기작	
15세	20	361	15,292,300	2,400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일반	
12세	22	213	21,547,700	2,379	독립(심사) 예술(승인)		
15세	8	69	3,040,100	334	독립(심사)		
15세	16	232	9,243,300	1,599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618	13,714	1,071,861,980	121,648			
12세	9	46	1,594,000	247	독립(심사)		
15세	13	111	4,910,300	558			
전체	294	4,312	405,835,950	42,123	독립(심사)		
전체	12	140	9,350,470	1,253	독립(승인)		
15세	18	224	6,179,800	683	독립(승인) 예술(승인)		
12세	44	294	18,819,100	2,664	독립(심사)		
전체	22	130	4,443,000	433	독립(심사) 예술(승인)		
12세	41	519	62,190,610	6,044	독립(심사) 예술(승인)		
12세	5	18	1,800,000	360	독립(심사)		
12세	1	18	324,000	45	독립(승인)		
전체	20	342	14,146,300	1,721	독립(승인)		
청불	598	12,221	709,334,190	79,105		촬영공간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5세	70	699	48,338,770	5,132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5	39	3,055,000	384	독립(심사)		
12세	17	255	9,974,750	1,491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후반작업	
12세	116	1,059	130,972,770	17,143		차기작	
12세	84	813	34,658,600	4,063	독립(승인) 예술(승인)	차기작, 개봉집중	
12세	1,357	72,424	5,045,184,520	534,287		차기작, 특별기획전	영화계정, 문화계정
15세	5	78	904,000	287	독립(심사)		
전체	75	1,087	58,489,970	6,680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집중	
15세	11	78	2,972,000	356	독립(승인)		
전체	10	43	2,890,000	337			
15세	1,279	54,136	3,894,750,170	411,944		특별기획전	영화계정, 문화계정
15세	23	216	12,744,400	1,583	독립(심사)		
청불	84	1,042	36,525,500	4,763		첨단영상	영화계정
12세	7	60	1,616,200	181	독립(심사)		
12세	7	155	12,200,000	2,011	독립(승인) 예술(심사)		
12세	44	491	35,342,500	5,630	독립(승인) 예술(심사)	개봉집중	
15세	690	17,698	871,870,300	97,312		차기작, 제작활성화	영화계정
15세	203	2,162	104,318,240	12,482	독립(승인) 예술(승인)	강소형, 제작(장편), 개봉집중	영화계정
전체	197	2,196	160,684,570	21,303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집중	
12세	6	37	130,000	42	독립(승인)		
12세	53	873	48,281,100	6,688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지역영화	
전체	7	130	3,289,700	499	독립(승인)		
12세	50	925	39,017,300	4,680	독립(승인) 예술(승인)	지역영화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전체	151	2,897	967,402,500	48,383			
15세	1,032	26,638	1,651,791,610	171,255		기획개발, 촬영공간, 특별기획전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66	1,811	96,262,570	10,574	독립(심사) 예술(승인)		
15세	77	577	59,127,000	8,573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전체	30	456	27,616,700	3,258	독립(승인)	개봉일반	
12세	20	196	5,619,060	722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9	40	2,175,000	247			
12세	756	20,624	1,473,339,250	158,265			
청불	29	240	10,136,160	1,404	독립(승인)	기획개발(시), 기획개발(트), 국제영화제	
15세	455	5,615	239,876,830	34,236	독립(승인)	촬영공간	
15세	474	9,026	1,076,281,490	112,725			영화계정
15세	1,008	39,190	3,949,569,280	416,523		특별기획전	
12세	30	354	11,544,200	1,311	독립(승인) 예술(승인)	후반작업	
15세	23	216	15,353,370	2,340			
15세	4	78	1,274,000	612	독립(심사)		
전체	9	85	5,215,000	792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전체	327	3,509	188,918,470	24,308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21	141	11,432,000	1,463	독립(심사)		
청불	50	150	5,000,000	1,000			
12세	4	23	1,457,000	231	독립(승인)		
전체	149	2,638	333,236,210	35,094	독립(승인) 예술(승인)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5세	2,521	355,767	131,297,440,478	12,693,302		차기작 특별기획전, 제작활성화	영화계정, 문화계정
전체	24	325	15,211,600	1,687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지역영화	
12세	601	11,218	3,110,252,870	333,633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51	284	12,574,990	1,671			
15세	78	981	90,700,500	14,201			영화계정
12세	297	2,792	186,265,360	25,450		국제영화제, 촬영공간	
12세	133	1,516	102,534,500	13,519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집중, 국제영화제	
전체	11	58	1,886,500	190			
12세	12	149	3,419,000	718			
전체	39	231	25,221,000	2,433			
12세	175	1,845	211,378,300	24,207	독립(승인) 예술(승인)	차기작, 제작(장편), 개봉집중	
12세	8	46	2,205,600	173			
15세	13	121	6,505,800	693	독립(승인)		
12세	51	724	37,233,200	4,069	독립(승인)	KAFA장편	
15세	89	968	70,013,820	7,386	독립(심사)		
12세	1,594	66,199	12,586,786,030	1,261,131		특별기획전	
15세	1,796	94,940	28,922,488,670	2,806,501		특별기획전	영화계정, 문화계정
15세	54	1,001	61,878,100	8,897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일반, 후반작업	
전체	21	242	13,528,500	1,491	독립(승인)		
15세	41	140	8,617,000	896			
전체	28	276	21,009,000	2,483	독립(승인)		
전체	122	1,565	137,609,480	17,094	독립(승인)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전체	9	52	2,695,200	217			
15세	6	20	3,956,000	565	독립(심사)	후반작업	
전체	110	1,097	293,037,800	29,432	예술(심사)		
전체	65	1,420	163,325,600	18,346	독립(승인)	제작(다큐)	
15세	54	1,155	93,207,900	11,015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집중	
15세	14	213	8,692,700	1,026	독립(심사)		
전체	9	43	1,987,500	244			
전체	13	172	133,198,500	8,325			
12세	48	607	94,328,670	10,098			
15세	1,374	79,619	19,642,291,589	1,893,954		강소형, 특별기획전	
전체	8	159	6,896,600	894			
전체	34	577	143,231,500	23,741			
12세	37	188	12,043,500	1,503			
15세	156	2,128	331,549,100	34,886		촬영공간	
청불	314	4,090	601,780,660	60,175		국제영화제, 촬영공간	
15세	4	71	1,130,000	178	독립(심사) 예술(승인)		
12세	1,959	68,414	15,995,553,548	1,539,362		첨단영상, 촬영공간	
12세	51	644	39,818,300	4,682	독립(승인) 예술(승인)	시나리오, 제작(장편), 개봉일반	
전체	18	331	149,441,500	9,060			
12세	2,223	220,477	73,869,887,553	7,284,248		첨단영상 강소형, 차기작 제작활성화	
15세	31	564	22,363,327	2,595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국제영화제	
전체	748	17,845	4,192,060,075	447,710		차기작	

1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장르
116	비상선언	한재림	㈜메그넘나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씨네주 유한회사	㈜쇼박스	2022-08-03	드라마
117	좀비는 좀비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오세섭		필름다빈	2022-08-04	드라마
118	헌트	이정재	㈜아티스트스튜디오, (주)사나이픽처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2-08-10	액션
119	모퉁이	신선		㈜영화사 그램	2022-08-11	드라마
120	오싹한 동거	황경성	㈜컨택트미디어	㈜컨택트미디어	2022-08-17	멜로/로맨스
121	녹턴	정관조	미디어나무	㈜시네마달	2022-08-18	다큐멘터리
122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	김시우	㈜나인테일즈코리아	주식회사 블루필름웍스	2022-08-18	뮤지컬
123	파로호	임상수	한국영화아카데미	㈜더쿱디스트리뷰션	2022-08-18	스릴러
124	콘서트를 지켜라	이미리 설민아	㈜캐리소프트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2022-08-18	공연
125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김충길	김충길 필름	김충길 필름	2022-08-24	드라마
126	어웨이크	이윤호	주식회사 티에스나린시네마	주식회사 엔픽플, 트윈플러스파트너스㈜	2022-08-24	미스터리
127	육사오(6/45)	박규태	㈜티피에스컴퍼니, ㈜싸이더스	㈜홈초이스, ㈜싸이더스	2022-08-24	코미디
128	말아	곽민승	왓에버웍스	㈜인디스토리	2022-08-25	드라마
129	인플루엔자	황준하	아이 엠	아이 엠	2022-08-25	드라마
130	작은새와 돼지씨	김새봄	레드펀트	필름다빈	2022-08-25	다큐멘터리
131	코코순이	이석재	KBS, 커넥트픽쳐스㈜	커넥트픽쳐스㈜	2022-08-25	다큐멘터리
132	테이크 오프: 파도위에 서다	강대희	데이 나이트 컴퍼니, ㈜프레임픽쳐스	㈜아우라픽처스	2022-08-25	드라마
133	시맨틱 에러: 더 무비	김수정	주식회사 왓챠	주식회사 왓챠	2022-08-31	멜로/로맨스
134	리미트	이승준	㈜베러투모로우, 나로픽처스㈜, (유)조이앤시네마	TCO㈜더콘텐츠온, ㈜제이앤씨미디어그룹	2022-08-31	범죄
135	부적: 남의 운을 빼앗는 자	김세성	머지션스토어	(주)트리플픽쳐스	2022-09-07	액션
136	인생은 뷰티풀: 비타돌체	김선형 오윤동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씨제이 씨지브이(CJ CGV)㈜, 씨제이포디플렉스 주식회사	2022-09-07	다큐멘터리
137	쥬라기캅스 극장판: 공룡시대 대모험	김호락	㈜스튜디오버튼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022-09-07	애니메이션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2세	1,734	73,045	20,927,363,328	2,058,869		첨단영상, 강소형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1	15	1,414,000	179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1,625	170,963	44,600,858,153	4,352,390		기획개발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20	209	10,515,400	1,127	독립(승인)		
12세	5	56	5,120,000	542			
12세	54	651	78,048,100	10,989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12세	18	143	9,361,700	1,080	독립(승인)		
15세	51	521	34,909,400	3,922	독립(승인) 예술(승인)	기획개발(트), KAFA장편	
전체	19	81	8,126,000	826			
12세	5	66	2,000,000	269	독립(심사)		
15세	72	598	42,708,198	5,367	독립(심사)		
12세	1,339	105,933	19,791,166,880	1,980,769		촬영공간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33	547	23,054,900	2,745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15세	15	178	7,249,900	760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9	195	7,396,300	1,013	독립(심사) 예술(심사)		
전체	50	420	40,166,900	4,415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12세	4	32	2,604,000	259	독립(심사)		
12세	57	1,269	656,057,000	59,314			
15세	687	13,037	637,399,902	68,097		강소형, 촬영공간	
12세	6	44	5,321,500	662	독립(심사)		
전체	107	1,540	1,667,323,500	52,969			
전체	453	2,983	245,577,088	26,805		애니개봉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5세	2,389	275,814	70,916,352,586	6,982,840		첨단영상, 촬영공간	
전체	48	1,000	70,174,161	7,410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단편), 개봉일반, 후반작업	
전체	616	9,318	1,597,219,099	172,165		애니개봉	문화계정
15세	10	146	4,565,000	459	독립(심사) 예술(심사)		
15세	74	743	64,874,099	7,894	독립(심사)	제작(장편), 개봉집중	
15세	283	1,876	87,894,391	11,124	예술(승인)	촬영공간	
12세	86	889	49,834,597	6,824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전체	16	64	27,590,000	4,597			
전체	6	78	20,555,000	3,393			
15세	99	894	52,757,800	6,227	독립(승인) 예술(승인)	KAFA장편	
전체	348	2,344	162,670,896	20,761			
청불	1,226	39,241	4,769,650,393	458,720		촬영공간	영화계정, 문화계정
15세	25	229	12,016,099	1,278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47	528	22,102,396	2,451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47	962	78,650,000	8,762	독립(승인)	개봉집중	
12세	60	1,336	106,452,892	12,158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국제영화제	
전체	790	12,678	2,140,400,817	228,380			
12세	1,318	77,220	8,446,139,162	899,684	899,684 강소형, 촬영공간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1,285	106,968	10,898,038,019	1,171,602 차기작		차기작	문화계정
12세	16	190	10,802,900	1,374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일반	
12세	20	171	8,306,600	1,361	독립(심사)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전체	531	4,926	493,898,813	54,143	예술(승인)		
전체	40	487	16,222,099	2,162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일반	
전체	16	212	43,579,000	4,358			
전체	31	295	261,746,000	11,305			
15세	603	8,970	455,749,079	51,404			영화계정
12세	72	744	57,709,099	6,289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71	710	64,296,698	8,979	독립(심사)	제작(다큐), 개봉집중, 후반작업	
15세	9	94	9,966,099	1,191	독립(승인) 예술(승인)	지역영화, 후반작업	
전체	232	2,144	219,406,100	24,465			
15세	20	187	182,562,000	7,977			
15세	587	9,835	571,289,256	63,431	독립(심사)	강소형, 개봉집중, 제작활성화	영화계정, 문화계정
12세	29	855	33,377,500	3,869			
15세	20	218	6,321,098	707	독립(승인)		
15세	112	1,110	39,655,296	4,636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224	2,098	108,083,491	13,528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15세	208	4,441	358,073,700	42,342			
15세	52	668	37,654,098	4,612	독립(승인) 예술(승인)	KAFA장편	
12세	45	940	76,708,550	8,367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다큐), 개봉일반	
15세	1,189	51,985	3,969,817,717	412,778	최여고가		영화계정
15세	1,115	78,569	7,352,587,230	738,122 차기작, 촬영공간, 제작활성화		문화계정	
12세	51	573	27,400,995	3,430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국제영화제	
전체	31	322	70,676,000	3,534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2세	69	757	58,248,407	5,813	독립(승인)		
12세	10	81	25,620,000	1,281			
15세	222	4,168	196,624,100	24,489	예술(승인)	제작(장편)	
전체	12	76	2,787,500	316			
청불	50	132	28,972,999	3,826			
15세	72	780	38,862,757	4,778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12세	41	449	33,585,796	4,118	예술(승인)		
15세	57	969	54,374,293	5,777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53	974	73,295,392	8,076	독립(승인) 예술(승인)	KAFA장편	
12세	59	584	40,046,897	4,385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후반작업	
12세	1,013	37,448	4,755,257,700	490,145			
12세	1,152	55,336	8,846,183,146	900,655			문화계정
12세	174	1,305	98,978,194	13,682			영화계정
12세	5	19	950,000	190	독립(심사)		
전체	1	4	140,000	14	예술(승인)		
15세	29	247	11,680,099	3,254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일반	
15세	123	1,987	154,485,500	23,682			
15세	1,541	142,130	31,768,660,550	3,222,738		차기작	영화계정, 문화계정
전체	23	238	26,979,600	2,741	독립(승인)		
15세	70	546	52,501,083	6,739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집중	
12세	19	203	11,326,899	1,310	독립(승인) 예술(승인)	개봉일반	
12세	55	794	55,492,992	7,047	독립(승인)	제작(장편), 개봉일반	
12세	9	65	5,502,700	606	독립(심사)		
15세	9	76	2,937,000	304	독립(승인) 예술(승인)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전체	103	2,445	1,240,019,100	62,019			
15세	27	406	42,836,793	5,689	독립(승인) 예술(승인)	KAFA장편	
12세	670	20,129	3,027,962,441	335,938			
전체	6	59	4,318,000	509	독립(승인)		
12세	1,229	47,408	5,722,751,661	608,197		차기작, 촬영공간	영화계정, 문화계정
전체	282	1,533	133,990,363	14,478			
전체	380	8,605	1,740,457,400	193,346			
전체	9	85	2,957,200	405	독립(승인) 예술(승인)		
15세	52	477	63,262,300	7,770	독립(승인) 예술(승인)	제작(장편), 개봉집중	
12세	32	360	29,158,997	3,326	독립(심사)		
청불	410	4,255	227,011,380	24,235	독립(승인)	개봉집중	영화계정
전체	55	159	25,999,499	3,216			
15세	9	64	3,588,800	340	독립(승인)		
12세	23	239	10,626,099	1,183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686	12,996	3,417,329,076	356,785			
12세	5	47	1,109,500	143	독립(승인) 예술(승인)	촬영공간	
12세	1,314	45,482	14,534,313,323	1,487,686		첨단영상	
전체	432	2,763	380,743,121	40,776	예술(승인)		
15세	751	9,228	1,421,046,655	152,550			
12세	22	47	4,587,700	444	독립(승인) 예술(승인)		
전체	100	321	28,841,199	3,108	독립(심사)		
12세	6	10	1,279,000	158	독립(승인) 예술(승인)		

구분	영화명	감독 제작사		배급사	개봉일	장르
시사1	스위치	마대윤	㈜하이브미디어코프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2023-01-04	기타
시사2	겨울 이야기	신상옥	신프로덕션	와이드 릴리즈㈜, 시네마 뉴원	2023-01-18	드라마
시사3	캐리와 슈퍼콜라	오성윤 이춘백	㈜캐리소프트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2023-01-18	애니메이션
시사4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박재범	한국영화아카데미	㈜더쿱디스트리뷰션	2023-01-25	애니메이션

^{* 2022}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은 극장 개봉하여 총 상영회수 40회 이상 상영한 작품(적어도 1개 상영관에서 일주일간 전일 상영되는 횟수) 기준으로 집계하되,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예술영화 인정 심사를 거쳐 독립·예술영화 인정을 받은 작품은 총 상영횟수 40회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함(단,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독립·예술영화로 등록된 작품에 한하여 포함)

^{*} 개봉일 기준으로 정렬, 전국 스크린 수는 전체 상영기간 중 최대 스크린 수 기준, 매출액과 관객 수는 2022년 해당영화의 총 매출액과 관객 수 기준, 전국 상영횟수는 상영기간 중 전국 총 상영횟수

^{*} 감독판·확장판 등은 원영화에 합산하여 발표함

^{*} 이월영화는 2021년에 개봉하여 2022년 총 상영횟수 40회차 이상 상영한 작품 기준

^{*} 감독, 제작사, 배급사, 등급, 장르 등 기본 영화정보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기준이며, 공란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상 해당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

등급	전국 스크린 수 (개)	전국 상영 횟수 (회)	전국 매출액 (원)	전국 관객 수 (명)	독립·예술영화 세부	위원회 지원여부	모태펀드 투자여부
12세	720	626	220,588,884	23,148		촬영공간	
전체	1	1	1,674,000	186	독립(심사) 예술(심사)		
전체	1	1	3,993,000	295			
전체	1	4	632,000	80	독립(승인) 예술(승인)	KAFA장편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약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명	약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명	약어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기획개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장편/다큐)	제작(장편/다큐)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시업 트리트먼트 개발지원	기획개발(트)	독립예술영화 개봉 일반지원	개봉일반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시나리오 개발지원	기획개발(시)	독립예술영화 개봉 집중지원	개봉집중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차기작	독립예술영화 후반작업 기술지원	후반작업
시나리오 마켓	시나리오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지역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장편제작지원사업	애니장편	장편극영화 촬영공간지원	촬영공간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지원사업	애니개봉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국제영화제
첨단영상 가상영상체 특성화 지원	첨단영상	코로나19 극복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 특별지원	제작활성화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	강소형	코로나19 극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특별기획전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KAFA장편		

나. 2022년 국내 영화 시상식 주요부문 수상실적

시상식	시상일	수상부문	수상내역	제작사	배급사
		영화 대상	류승완 (모가디슈)	㈜덱스터스튜디오, ㈜외유내강, ㈜필름케이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작품상	모가디슈	㈜덱스터스튜디오, ㈜외유내강, ㈜필름케이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백상예술대상	2022.5.6.	영화 감독상	변성현 (킹메이커)	㈜씨앗필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영화 신인감독상	조은지 (장르만 로맨스)	㈜비리프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영화 각본상	정가영, 왕혜지 (연애 빠진 로맨스)	㈜씨제이이엔엠, 트웰브져니(주)	㈜씨제이이엔엠
		최우수작품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최우수감독상	김한민 (한산: 용의 출현)	㈜빅스톤픽쳐스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부일영화상	2022.10.6.	신인감독상	이정재 (헌트)	㈜아티스트스튜디오, ㈜사나이픽쳐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각본상	정욱 (좋은 사람)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싸이더스, 찬란
		최우수작품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ಕಟ್ಟಡಕ		감독상	박찬욱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한국영화 평론가협회상	2022.11.23.	신인감독상	이정재 (헌트)	㈜아티스트스튜디오, ㈜사나이픽쳐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각본상	박찬욱, 정서경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최우수작품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감독상	박찬욱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청룡영화상	2022.11.25.	신인감독상	이정재 (헌트)	㈜아티스트스튜디오, ㈜사나이픽쳐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각본상	박찬욱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최우수 작품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대종상영화제	2022.12.9.	감독상	변성현 (킹메이커)	㈜씨앗필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네ㅎㅎㅎ쒸세	2022.12.3.	신인감독상	박이웅 (불도저에 탄 소녀)	㈜고집스튜디오	트윈플러스파트너스㈜
		각본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작품상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한국영화제작	2022 12 14	감독상	이정재 (헌트)	㈜아티스트스튜디오, ㈜사나이픽쳐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가협회상	2022.12.14.	신인감독상	조은지 (장르만 로맨스)	(주)비리프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각본상	박찬욱, 정서경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최우수작품상	킹메이커	㈜씨앗필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황금촬영상	2022.12.20.	감독상	박찬욱 (헤어질 결심)	㈜모호필름	㈜씨제이이엔엠
00200	2022.12.2U.	촬영상-금상	김태성 (한산: 용의 출현)	㈜빅스톤픽쳐스	롯데컬처웍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다. 2022년 해외 주요 영화제·시상식 초청 및 수상실적52)

시상식	개최시기	개최지역/ 도시	구분	초청작	감독	초청부문	수상내역	
			장편	소설가의 영화 The Novelist's Film	홍상수	Competition	심사위원 대상 Jury Grand Prix (Silver Bear)	
베를린	2022.2.10.	유럽/	장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김세인	Panorama		
국제영화제	~2022.2.10.		장편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이지은	Generation		
			장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Hot in Day Cold at Night	박송열	Forum		
			단편	존재의 집 House of Existence	정유미	Berlinale Shorts		
	2022.5.17. ~2022.5.28.			장편	헤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	박찬욱	In Competiton	감독상 Prix de la mise-en-scène
칸 국제영화제		유럽/ 프랑스, 칸	장편	브로커 Broker	고레에다 히로카즈	In Competiton	남우주연상 (송강호)	
			장편	헌트 HUNT	이정재	Midnight Screenings		
			단편	각질 Persona	문수진	Short Films		
선댄스 영화제	2022.1.20.	북미주/ 미국,	단편	시슴꽃 Deer Flower	김강민	Anniversary Shorts		
	~2022.1.30.	솔트레이크 시티	장편	차이나타운의 앨리스 Free Chol Soo Lee	이성민			
			장편	소설가의 영화	홍상수	The Masters		
홍콩 국제영화제	2022.3.30. ~2022.4.10.	아시아/ 홍콩	장편	혼자 사는 사람들	홍성은	Global Vision		
	2022. 1. 10.		단편	존재의 집	정유미	Animation Unlimited		
핫독스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2022.4.28. ~2022.5.8.	북미주/ 캐나다, 토론토	장편	퀴어 마이 프렌즈 Queer My Friends	서아현	World Showcase		

⁵²⁾ 집계 기준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참가활동 지원사업의 항공권 지원 대상 영화제 목록 상 장편 A급·B급 영화제이다.

라.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전국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 수·스크린

행정구역		인	구 10만 명	당 스크린	수	전국 형	행정구역(시	군구)별 =	장수	전국 행	정구역(시	군구)별 스	크린수
(시군구)별	인구 수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전국	51,439,038	6.5	6.3	0.2	2.5%	561	542	19	3.5%	3,322	3,254	68	2.1%
서울특별시	9,428,372	6.3	6.2	0.1	1.1%	90	89	1	1.1%	591	588	3	0.5%
종로구	141,379	14.1	15.2	-1.1	-6.9%	6	8	-2	-25.0%	20	22	-2	-9.1%
중구	120,437	34.9	34.3	0.6	1.7%	8	8	0	0.0%	42	42	0	0.0%
용산구	218,650	12.8	12.6	0.2	1.6%	2	2	0	0.0%	28	28	0	0.0%
성동구	281,000	6.0	5.9	0.1	2.5%	2	2	0	0.0%	17	17	0	0.0%
광진구	337,416	11.0	11.2	-0.2	-2.1%	5	5	0	0.0%	37	38	-1	-2.6%
동대문구	336,644	2.4	2.4	0.0	-1.0%	1	1	0	0.0%	8	8	0	0.0%
중랑구	385,318	5.7	5.7	0.0	0.2%	3	3	0	0.0%	22	22	0	0.0%
성북구	430,397	1.9	1.9	0.0	-2.2%	2	2	0	0.0%	8	8	0	0.0%
강북구	293,660	7.2	7.0	0.2	2.2%	3	3	0	0.0%	21	21	0	0.0%
도봉구	311,694	3.8	1.6	2.2	140.6%	2	1	1	100.0%	12	5	7	140.0%
노원구	503,734	5.6	5.5	0.1	1.1%	5	5	0	0.0%	28	28	0	0.0%
은평구	466,746	3.6	3.6	0.0	1.2%	2	2	0	0.0%	17	17	0	0.0%
서대문구	306,337	7.5	7.5	0.0	0.1%	5	5	0	0.0%	23	23	0	0.0%
마포구	364,638	10.4	9.8	0.6	6.3%	8	6	2	33.3%	38	36	2	5.6%
양천구	440,881	3.9	3.8	0.1	1.5%	2	2	0	0.0%	17	17	0	0.0%
강서구	569,166	5.8	6.1	-0.3	-5.0%	5	5	0	0.0%	33	35	-2	-5.7%
구로구	395,315	5.8	6.3	-0.5	-7.6%	3	3	0	0.0%	23	25	-2	-8.0%
금천구	229,642	6.1	6.1	0.0	-0.1%	2	2	0	0.0%	14	14	0	0.0%
영등포구	375,675	7.5	7.4	0.1	0.7%	3	3	0	0.0%	28	28	0	0.0%
동작구	380,596	2.1	2.1	0.0	0.1%	2	2	0	0.0%	8	8	0	0.0%
관악구	486,752	2.7	2.7	0.0	-1.1%	2	2	0	0.0%	13	13	0	0.0%
서초구	404,325	3.2	3.2	0.0	0.5%	3	3	0	0.0%	13	13	0	0.0%
강남구	529,102	10.8	10.5	0.3	2.6%	8	8	0	0.0%	57	56	1	1.8%
송파구	658,801	5.8	5.8	0.0	-0.6%	3	3	0	0.0%	38	38	0	0.0%
강동구	460,067	5.7	5.6	0.1	0.9%	3	3	0	0.0%	26	26	0	0.0%
부산광역시	3,317,812	6.9	6.7	0.2	2.6%	29	29	0	0.0%	228	223	5	2.2%
중구	39,689	65.5	64.2	1.3	2.0%	3	3	0	0.0%	26	26	0	0.0%
서구	105,192	0.0	0.0	0.0	-	0	0	0	-	0	0	0	-
동구	86,462	0.0	0.0	0.0	-	0	0	0	-	0	0	0	-
영도구	108,156	0.0	0.0	0.0		0	0	0	-	0	0	0	-
부산진구	355,917	12.1	12.2	-0.1	-1.0%	5	5	0	0.0%	43	43	0	0.0%

	인구수	인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전국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 수					전국 행	정구역(시	군구)별 스	크린수		
행정구역 (시군구)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광산구	400,654	12.2	12.1	0.1	1.1%	6	6	0	0.0%	49	49	0	0.0%
대전광역시	1,446,072	7.4	7.4	0.0	0.0%	16	17	-1	-5.9%	107	108	-1	-0.9%
동구	219,751	6.4	6.8	-0.4	-6.3%	2	3	-1	-33.3%	14	15	-1	-6.7%
중구	227,108	7.9	7.8	0.1	1.6%	3	3	0	0.0%	18	18	0	0.0%
서구	470,374	10.8	10.8	0.0	0.4%	7	7	0	0.0%	51	51	0	0.0%
유성구	356,093	6.7	6.8	-0.1	-0.9%	4	4	0	0.0%	24	24	0	0.0%
대덕구	172,746	0.0	0.0	0.0	-	0	0	0	-	0	0	0	-
울산광역시	1,110,663	5.0	4.5	0.5	12.0%	9	8	1	12.5%	56	50	6	12.0%
중구	208,132	7.2	7.0	0.2	3.0%	2	2	0	0.0%	15	15	0	0.0%
남구	310,638	6.4	6.4	0.0	0.6%	2	2	0	0.0%	20	20	0	0.0%
동구	151,711	5.3	1.3	4.0	305.6%	2	1	1	100.0%	8	2	6	300.0%
북구	218,670	5.0	5.0	0.0	0.6%	2	2	0	0.0%	11	11	0	0.0%
울주군	221,512	0.9	0.9	0.0	0.3%	1	1	0	0.0%	2	2	0	0.0%
は発動	383,591	6.0	6.2	-0.2	-3.3%	4	4	0	0.0%	23	23	0	0.0%
경기도	13,589,432	6.3	6.1	0.2	3.0%	139	132	7	5.3%	854	830	24	2.9%
수원시	1,190,964	6.7	6.3	0.4	6.6%	12	11	1	9.1%	80	75	5	6.7%
성남시	922,518	5.9	6.9	-1.0	-15.2%	8	9	-1	-11.1%	54	64	-10	-15.6%
의정부시	463,724	6.5	6.5	0.0	-0.5%	4	4	0	0.0%	30	30	0	0.0%
안양시	548,228	8.2	8.2	0.0	0.1%	6	6	0	0.0%	45	45	0	0.0%
부천시	790,128	8.0	7.8	0.2	2.2%	10	10	0	0.0%	63	63	0	0.0%
광명시	287,945	11.1	8.5	2.6	30.7%	6	4	2	50.0%	32	25	7	28.0%
평택시	578,529	5.5	4.3	1.2	28.6%	5	4	1	25.0%	32	24	8	33.3%
동두천시	91,546	3.3	3.2	0.1	2.4%	2	2	0	0.0%	3	3	0	0.0%
안산시	641,660	6.1	6.0	0.1	1.3%	6	6	0	0.0%	39	39	0	0.0%
고양시	1,076,535	7.0	6.9	0.1	1.0%	11	10	1	10.0%	75	74	1	1.4%
과천시	78,137	0.0	0.0	0.0	-	0	0	0	-	0	0	0	-
구리시	188,701	7.4	7.3	0.1	1.6%	2	2	0	0.0%	14	14	0	0.0%
남양주시	737,353	5.7	4.4	1.3	29.5%	7	6	1	16.7%	42	32	10	31.3%
오산시	229,849	8.3	8.3	0.0	-0.4%	3	3	0	0.0%	19	19	0	0.0%
시흥시	512,912	6.6	6.2	0.4	6.9%	6	6	0	0.0%	34	32	2	6.3%
군포시	266,213	7.5	4.8	2.7	56.5%	3	2	1	50.0%	20	13	7	53.8%
의왕시	160,221	0.0	0.0	0.0	-	0	0	0	-	0	0	0	-
하남시	326,059	11.3	12.5	-1.2	-9.2%	5	6	-1	-16.7%	37	40	-3	-7.5%
용인시	1,074,971	5.6	6.3	-0.7	-11.4%	9	10	-1	-10.0%	60	68	-8	-11.8%
파주시	495,315	7.9	8.1	-0.2	-2.8%	7	7	0	0.0%	39	39	0	0.0%
이천시	222,721	4.5	4.5	0.0	-0.2%	1	1	0	0.0%	10	10	0	0.0%

÷III TO	인구 수	인구 10만 명당 스크린 수			전국 행정구역(시군구)별 극장 수				전국 행정구역(시군구)별 스크린 수				
행정구역 (시군구)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수	전년 대비 증감률
증평군	37,262	0.0	0.0	0.0	-	0	0	0	-	0	0	0	-
진천군	86,147	4.6	4.7	-0.1	-1.2%	1	1	0	0.0%	4	4	0	0.0%
괴산군	37,055	8.1	7.9	0.2	2.5%	1	1	0	0.0%	3	3	0	0.0%
음성군	92,058	7.6	5.4	2.2	40.8%	2	1	1	100.0%	7	5	2	40.0%
단양군	27,767	0.0	0.0	0.0	-	0	0	0	-	0	0	0	-
충청남도	2,123,037	7.0	6.7	0.3	4.7%	29	28	1	3.6%	149	142	7	4.9%
천안시	657,559	9.7	8.7	1.0	11.9%	10	8	2	25.0%	64	57	7	12.3%
공주시	102,571	6.8	6.8	0.0	0.4%	1	1	0	0.0%	7	7	0	0.0%
보령시	97,157	8.2	8.1	0.1	1.7%	2	2	0	0.0%	8	8	0	0.0%
아산시	334,539	1.8	1.8	0.0	-0.4%	1	1	0	0.0%	6	6	0	0.0%
서산시	176,413	8.5	8.5	0.0	0.0%	2	2	0	0.0%	15	15	0	0.0%
논산시	112,617	8.9	8.7	0.2	2.1%	2	2	0	0.0%	10	10	0	0.0%
계룡시	44,475	0.0	0.0	0.0	-	0	0	0	-	0	0	0	-
당진시	168,253	8.3	9.6	-1.3	-13.3%	2	4	-2	-50.0%	14	16	-2	-12.5%
금산군	50,092	4.0	0.0	4.0	0.0%	1	0	1	-	2	0	2	-
부여군	62,343	6.4	6.3	0.1	1.8%	2	2	0	0.0%	4	4	0	0.0%
서천군	49,964	4.0	3.9	0.1	2.6%	1	1	0	0.0%	2	2	0	0.0%
청양군	30,266	6.6	6.6	0.0	0.1%	1	1	0	0.0%	2	2	0	0.0%
홍성군	98,068	11.2	11.1	0.1	1.1%	2	2	0	0.0%	11	11	0	0.0%
예산군	77,385	2.6	2.6	0.0	-0.6%	1	1	0	0.0%	2	2	0	0.0%
태안군	61,335	3.3	3.3	0.0	-1.2%	1	1	0	0.0%	2	2	0	0.0%
전라북도	1,769,607	7.9	7.7	0.2	2.0%	29	28	1	3.6%	139	138	1	0.7%
전주시	651,495	12.7	12.5	0.2	1.9%	14	13	1	7.7%	83	82	1	1.2%
군산시	262,467	7.2	7.2	0.0	0.5%	3	3	0	0.0%	19	19	0	0.0%
익산시	273,697	5.1	5.0	0.1	2.3%	2	2	0	0.0%	14	14	0	0.0%
정읍시	105,081	3.8	3.8	0.0	0.2%	1	1	0	0.0%	4	4	0	0.0%
남원시	77,948	3.8	3.8	0.0	1.3%	1	1	0	0.0%	3	3	0	0.0%
김제시	81,455	2.5	2.5	0.0	-1.8%	1	1	0	0.0%	2	2	0	0.0%
완주군	92,422	2.2	2.2	0.0	-1.6%	1	1	0	0.0%	2	2	0	0.0%
진안군	24,550	8.1	8.0	0.1	1.8%	1	1	0	0.0%	2	2	0	0.0%
무주군	23,489	8.5	8.4	0.1	1.4%	1	1	0	0.0%	2	2	0	0.0%
장수군	21,336	0.0	9.2	-9.2	-1000%	0	1	-1	-1000%	0	2	-2	-1000%
임실군	26,508	7.5	0.0	7.5	0.0%	1	0	1	-	2	0	2	-
순창군	26,727	7.5	7.4	0.1	1.1%	1	1	0	0.0%	2	2	0	0.0%
고창군	52,338	3.8	3.7	0.1	3.3%	1	1	0	0.0%	2	2	0	0.0%
부안군	50,094	4.0	3.9	0.1	2.4%	1	1	0	0.0%	2	2	0	0.0%

-UT-1704	인구 수	인-	구 10만 명	당 스크린	수	전국 형	냉정구역(시	군구)별 =	장수	전국 행	정구역(시	군구)별 스	크린수
행정구역 (시군구)별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2022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청송군	24,295	0.0	0.0	0.0	0.0%	0	0	0	-	0	0	0	-
영양군	16,022	6.2	6.1	0.1	2.3%	1	1	0	0.0%	1	1	0	0.0%
영덕군	34,650	0.0	0.0	0.0	-	0	0	0	-	0	0	0	-
청도군	41,614	0.0	0.0	0.0	-	0	0	0	-	0	0	0	-
고령군	30,353	6.6	6.5	0.1	1.4%	1	1	0	0.0%	2	2	0	0.0%
성주군	42,566	4.7	0.0	4.7	0.0%	1	0	1	-	2	0	2	-
칠곡군	112,487	1.8	1.8	0.0	-1.2%	1	1	0	0.0%	2	2	0	0.0%
예천군	55,755	10.8	10.8	0.0	-0.4%	1	1	0	0.0%	6	6	0	0.0%
봉화군	30,139	0.0	0.0	0.0	-	0	0	0	-	0	0	0	-
울진군	47,030	2.1	2.1	0.0	1.3%	1	1	0	0.0%	1	1	0	0.0%
울릉군	8,996	0.0	0.0	0.0	0.0%	0	0	0	-	0	0	0	-
경상남도	3,280,493	5.9	5.9	0.0	-0.8%	38	38	0	0.0%	192	197	-5	-2.5%
창원시	1,021,487	6.8	6.7	0.1	0.8%	12	12	0	0.0%	69	69	0	0.0%
진주시	343,782	9.3	9.2	0.1	1.2%	4	4	0	0.0%	32	32	0	0.0%
통영시	122,681	5.7	10.4	-4.7	-45.1%	1	2	-1	-50.0%	7	13	-6	-46.2%
사천시	109,369	8.2	8.2	0.0	0.4%	2	2	0	0.0%	9	9	0	0.0%
김해시	535,129	6.0	6.0	0.0	-0.3%	5	5	0	0.0%	32	32	0	0.0%
밀양시	102,945	1.9	1.9	0.0	2.3%	1	1	0	0.0%	2	2	0	0.0%
거제시	236,662	3.0	2.9	0.1	2.0%	1	1	0	0.0%	7	7	0	0.0%
양산시	353,792	6.2	5.9	0.3	5.4%	5	4	1	25.0%	22	21	1	4.8%
의령군	26,061	0.0	0.0	0.0	-	0	0	0	-	0	0	0	-
함안군	61,456	3.3	3.2	0.1	1.7%	1	1	0	0.0%	2	2	0	-
창녕군	58,372	0.0	0.0	0.0	0.0%	0	0	0	-	0	0	0	-
고성군	50,448	4.0	4.0	0.0	-0.9%	1	1	0	0.0%	2	2	0	0.0%
남해군	41,579	2.4	2.4	0.0	0.2%	1	1	0	0.0%	1	1	0	0.0%
하동군	42,465	2.4	2.3	0.1	2.4%	1	1	0	0.0%	1	1	0	0.0%
산청군	34,028	5.9	5.8	0.1	1.3%	1	1	0	0.0%	2	2	0	0.0%
함양군	37,708	0.0	0.0	0.0	-	0	0	0	_	0	0	0	-
거창군	60,387	3.3	3.3	0.0	0.4%	1	1	0	0.0%	2	2	0	0.0%
합천군	42,142	4.7	4.7	0.0	1.0%	1	1	0	0.0%	2	2	0	0.0%
福力を	678,159	5.8	4.9	0.9	17.4%	7	6	1	16.7%	39	33	6	18.2%
제주시	493,389	6.7	5.5	1.2	21.6%	6	5	1	20.0%	33	27	6	22.2%
서귀포시	184,770	3.2	3.3	-0.1	-1.6%	1	1	0	0.0%	6	6	0	0.0%



